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수자료 I -편수 일반 편-

2015. 12.



발간사

우리의 역사는 창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역사 창조의 주체인 인간은 교육에 의하여 인격이 형성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된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와 방향이 담긴 교육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편찬한 교과용도서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편수 자료는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알아야 할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하는 안내서와 같은 기능을 한다. 교과용도서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정확한 용어의 제시, 교과용도서와 관련 각종 제도에 대한 안내가 편수 자료의 주요한 기능이다. 편수 자료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역사 형성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편수 자료에 어떤 내용을 담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과용도서를 편찬하는 데 용어나 내용을 통일하고, 편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여러 사항이나 자료를 정리하여 편수 자료를 편찬해 왔다.

먼저, 1959년 9월에 당시 문교부 편수국에서 ‘제1호’(제1집)가 36쪽의 소책자(4·6배판)로 발간되고, 이후 1977년 12월 제7집까지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이 자료는 내용이 부분적이고 단편적이어서, 모든 교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포괄하는 자료로서의 역할은 다하지 못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에 1984년 1월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1986년 1월에 ‘외래어 표기법’이 개정, 고시되어 편수 자료의 보완이 더욱 절실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동안 활발히 논의되어 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편수 자료 발간 계획이 1986년 8월에 확정되어 4집 7책의 자료가 나오게 되었다. 제Ⅰ집은 총론적 성격으로 교육과정 변천사 등을 수록하고, 제Ⅱ집은 주로 인문·사회 과학 및 예·체능 관련 사항을 4권으로 분책하여 발간하였다. 그리고 Ⅲ집은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등 기초 과학 관련 사항을, 제Ⅳ집은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컴퓨터 등 응용과학 관련 사항을 수록, 편찬하였다.

일부 편수 자료에 이미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1988년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 2000년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새롭게 개정, 고시되었다. 여기에 학문적인 발달과 교육 여건의 변화, 교육 이론과 교육 프로그램의 발전 등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편수 자료 보완의 필요성이 또다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2001년 초에 ‘편수자료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발간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21세기 정보 사회에 부응하는 교과서 편수 자료를 발간하였다. 이 교과서 편수 자료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까지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교육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라 2011년에 교과서 편수 자료를 또 한 차례 수정·보완하였다.

교육부는 올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새로이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는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에 맞추어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 개발의 일환으로 교과서 편수 자료를 수정·보완하였다.

이번 편수 자료 수정·보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이념 구현, 학문적·사회적·교육적 변화상 반영, “표준국어대사전”에 근거한 편수 용어의 정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번에 수정·보완되어 발간되는 교과서 편수 자료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 편수 자료 I - 편수 일반 편』은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의 변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과용도서의 편찬, 교과용도서에 관한 각종 법규, 교과용도서의 표기·표현 사례 등을 수록하였다.

『교과서 편수 자료 II - 인문·사회과학 / 체육·음악·미술 편』은 한글 맞춤법, 학교 문법 용어,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국어의 가나 표기법, 지리, 세계사, 일반 사회, 체육, 음악, 미술 각 교과 of 편수 용어를 수록하였다.

『교과서 편수 자료 III - 기초 과학 편』은 수학,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정보 교과의 편수 용어를 수록하였다.

이 교과서 편수 자료는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의 실제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교과서 편수 자료로서 미비하거나 미흡한 점이 다소 있으리라 본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수시로 수정·보완하여 나가도록 힘쓸 것이다.

그 동안 이 자료가 나오기까지 애써 주신 학계, 교육계 여러분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자료가 우리 교육의 결정체로서 교과용도서 편찬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5. 12.

교육부 장관

차례

I.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의 변천	1
1. 교육과정의 변천	3
2. 교과용도서의 변천	14
II.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27
1. 교육과정의 성격	29
2.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29
3.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32
4.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48
5. 학교 교육과정 지원	51
III. 교과용도서의 편찬	55
1. 교과용도서 정책 방향	57
2. 교과용도서의 편찬 방향	69
3. 국정도서의 편찬	73
4. 검정도서의 편찬	78
5. 인정도서의 편찬	96
부록 1.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109
• 대한민국헌법(발췌)	111
• 교육기본법(발췌)	112
• 초·중등교육법(발췌)	114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발췌)	115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전문)	116
• 저작권법(전문)	129
부록 2. 교과용도서의 표기·표현 사례	181
1. 표기 사례	183
2. 표현 사례	254
3. 사전 이용 방법	266

편수 자료 발간에 즈음하여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새로운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을 제시한다. 그 방향은 ‘국정도서 편찬 지침,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 인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기준’ 등에 들어 있다.

초·중등학교의 교수·학습은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된 자료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교과서와 지도서로 구성되는 교과용도서이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목의 내용을 제시하는 자료집이고, 지도서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방법과 참고 자료를 실은 교사용 도서이다.

교과용도서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한 가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교과용도서가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에서 어느 것이든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더 나아가 그 바탕 위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춘 최고 수준의 질을 추구해야 한다.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공급하는 것이 교수·학습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교과용도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작자와 편집자가 내용 집필, 편집·디자인, 제작·인쇄 등의 모든 과정에서 참신한 관점으로 독창성을 발휘해야 한다. 교과용도서는 이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종합 예술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용도서는 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요구와 국민의 미래 전망 및 교사의 교수권, 학습자의 학습권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독창성을 존중하면서도 구성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편찬 방향을 둘 수밖에 없다.

교과용도서 개발 방향은 저작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국경이나 검·인정 제도를 채택하는 어느 국가에나 있다. 자유 발행제를 채택하는 경우라도 교과용도서 개발자가 무제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지향하는 교육과정 정책에 맞는 교과용도서의 개발 방향이 필요하다.

이 방향은 모두 교육과정을 교과용도서에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교과용도서의 편찬 방향과 관련된 자료는 교과용도서 집필과 제작의 대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교과용도서 집필·제작에 필요한 정보와 지침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데에는 부분적인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또 다른 자료가 바로 편수 자료이다.

편수 자료는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알아야 할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하는 안내서와 같은 기능을 한다. 그 자체가 강제 규범으로서 절대 조건은 아니지만, 저자나 편집자, 발행자 등이 이를 근거로 교과용도서를 개발한다면 교육과정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1959년 편수 자료 제 1집을 발행한 뒤 정부가 계속 편수 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발행하는 이유도 이런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편수(編修)’란, 단순히 말하면 자료를 모아 도서를 편찬하고 수정하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여러 형식의 전달 매체, 그중에서도 주로 도서를 출판하여 공포할 목적으로 그 내용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일련의 지적 활동인 편수는 편집(編輯), 편찬(編纂), 수찬(修撰)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편수한다는 것은 도서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 당초의 의도에 맞도록 선별, 가공, 구조화하여 완성본을 제작해 가는 과정, 즉 편찬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편수 개념을 교과용도서에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편수 자료가 뒤따라 나오게 된다.

교육부가 제공하는 교과용도서 편찬 관련 자료는 ‘대강의 원칙, 절대준거(교육과정) → 실천 세목(편찬상의 유의점, 검정 기준) → 참조 체제(편수 자료)’로 분화된다.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뉘어 고시된 문서이다. 교육과정 총론은 교과목 편제와 편성·운영 지침을 제시하고, 교과 교육과정은 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통해 당해 과목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을 제시한다. 이 내용은 교과용도서 편찬의 절대 준거라 할 수 있다. 편찬상의 유의점과 검정 기준에도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심의하는 항목이 있어서 어떤 교과서도 그 내용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

교육과정이나 편찬상의 유의점 등의 내용이나 편찬 과정, 그리고 교과용도서와 관련된 법규 등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문도 있고, 그 정보원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 교육과정과 편찬 지침의 어려운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다. 바로 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 편수 자료인데, 범교과 총론 일반과 교과별 자료로 나뉜다.

편수 자료는 교육과정과 편찬상의 유의점이라는 상위 준거를 중심으로 편찬자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즉, 교과용도서 편찬의 제반 사항을 안내하는 것이 편수 자료가 할 일이다. 그중에서도 주된 내용은 ‘내용이나 용어의 체계 및 일관성과 관련된 구체적 명시나, 기타 편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편수 자료에 들어갈 소재가 된다.

지금까지 편수 자료사를 보면 그 호시인 제1호가 1959년에 발행된 이후 1987년부터 1990년 집대성본을 발행하기까지 크게 여덟 번에 걸쳐 간행되었다. 제1호는 1959년 9월 15일 발행한 36쪽짜리 소책자였다. 제2호에는 1960년 4월 초·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에 실린 외국어 지명 300여 개를 모은 ‘외국 지명 한글 표기’를 실었다. 제3호를 거쳐 제4집은 1963년 7월에 발행되었는데, ‘사회과 인명·지명 표기’를 실었다. 제5집은 1964년 6월에 발행되었는데, ‘학교 문법 및 국사 교육 내용의 통일’, ‘수학, 물리, 화학 용어의 개정과 통일’을 싣고 있다. 제6집은 1970년 6월에 발행되었는데, ‘지학과 자료 및 내용’을 싣고 있다. 그리고 1972년 2월에는 편수 자료 3집, 4집, 5집, 6집의 합본을 발행했다. 제 7집은 1977년 12월에 20,000여 개의 외래어를 다룬 ‘외래어 표기 용례’로 나왔다.

이후 1986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편수 자료 편찬 계획에 따라 4집 7책으로 구성된 신편으로 발행되었다. 교육과정 변천과 편수 일반을 실은 ‘편수 자료 I(1990)’, 인문·사회 과학 및 예·체능에 관해 4권으로 분책한 ‘편수 자료 II(1987~1988)’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등 주로 기초 과학에 관련된 ‘편수 자료 III(1987)’,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정, 컴퓨터 등 주로 응용 과학에 관련된 사항을 수록한 ‘편수 자료IV(1988)’가 그것이다.

편수 자료 I은 ‘교육과정 변천과 편수 일반’을 주제로 하여, 미 군정기의 교수요목부터 제4차 교육과정까지의 구성 체제를 서술하고, 관련 법규와 지침, 원고 정리와 교정 및 편집·디자인, 인쇄·제본에 이

르기까지 교과서 개발 과정의 기술적인 사항도 설명하였다. 부록에는 ‘교과목별 개발 현황, 연도별 개발 현황, 교육인적자원부 기구 변천 자료, 구문 활자 수용량 조건표 및 조판 예시’ 등을 실었다.

2002년 편수 자료 개편 연구팀은 현행 편수 자료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편수 자료 구성을 위하여 교과용도서 발행사의 편집자와 교육인적자원부 편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① 현행 편수 자료 중에서 교육과정 변천사, 편집·디자인, 인쇄 부문은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② 앞으로 편수 자료는 맞춤법, 개편된 교육과정의 지향 방향, 저작권 등을 보강해야 한다. ③ 편수 자료는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여 전자 파일 형태로도 보급하고, 수정·보완 사항은 수시로 개정해야 활용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수 자료의 개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내용 구성안을 설정하였다.

- 교과별 특수 사항은 각론 편에 싣고, 총론에는 범교과 공통 사항만 제시한다.
- 내용은 쉽게 변하지 않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교육과정과 법규 개정 등 변동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저작권, 검·인정 심의 과정 등 민간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 중점적으로 보강한다.

이러한 방향을 바탕으로 한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수 자료는 참조 자료이기는 하지만 준공적(準公的) 규범 기능도 하기 때문에 저작자나 출판사가 자유재량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둘째, 교육과정 변천사는 현행 편수 자료보다 대폭 줄여 큰 경향성만 제시하고, 교과용도서 변천사를 추가하였다. 교육과정 변천사를 약술하는 이유는 그 자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과용도서를 개발하는 데에 참조 정도가 낮기 때문이다.

셋째, 편집·디자인과 인쇄 및 제본 등에 대한 기술적인 부문은 모두 신지 않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내용 자체가 전문적이며, 이를 설명하는 최신 도서가 많아서 편집자가 참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맞춤법 관련 내용은 원칙을 제시하는 대신 글쓰기 사례를 제시하였다. 맞춤법의 원칙은 편수 자료 각론 중의 ‘교과서 편수 자료Ⅱ-1 인문·사회과학편’에 실렸기 때문에 총론에서는 생략한 것이다.

다섯째, 앞의 첫째 원칙에 따라 부록은 연구 성향을 띤 자료(용어, 표기·표현 사례)와 단순 자료인 교육인적자원부 기구 변천 자료로 구성하기도 하였다.

2002년 편수 자료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에 맞춰 일부 내용을 보강하여 재 발간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4). 이 자료는 2011년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정·보완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부는 올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새로이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는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에 맞추어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 개발의 일환으로 교과서 편수 자료를 수정·보완하였다. 이번 편수 자료 수정·보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이념 구현, 학문적·사회적·교육적 변화상 반영, “표준국어대사전”에 근거한 편수 용어의 정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번에 수정·보완되어 발간되는 『교과서 편수 자료 I - 편수 일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의 변천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의 변천 과정을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와 교수요목의 시기(1945~1954), 제1차 교육과정기(1954. 4.~1963. 2.), 제2차 교육과정기(1963. 2.~1973. 2.), 제3차 교육과정기(1973. 2.~1981. 12.), 제4차 교육과정기(1981. 12.~1987. 3.), 제5차 교육과정기(1987. 3.~1992. 6.), 제6차 교육과정기(1992. 6.~1997. 12.), 제7차 교육과정기(1997. 12.~2007. 2.), 2007 개정 교육과정기(2007. 2.~2009. 12.), 2009 개정 교육과정기(2009. 12.~2015. 8.), 2015 개정 교육과정기(2015. 9.~)로 나누어 주요 요소와 경향성을 기술하였다. 교육과정은 기본 방향과 교과 편제에 중점을 두고, 교과용도서는 편찬 제도와 강조점을 정리하였다. 이 부분은 현재 교과용도서를 편찬하는 데에 직접 참조가 되는 자료는 아니지만, 그동안 변천의 경향성을 통해 현재 강조하는 사안은 무엇이며, 앞으로 교과서 정책은 어느 방향이 될지를 가늠하는 참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II.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개정의 기본 방향과 지향하는 인간상 및 학교급별 목표를 기술한 뒤, 교과목 편제를 제시하였다. 교과용도서 편찬 과정에서 교과 담당자는 해당 교육과정 각론만 주로 참조하지만, 그 근본인 총론의 기본 틀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 더불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지침도 서술하여, 개별 교과를 넘어서는 교육과정 전반에 관련되는 정책 의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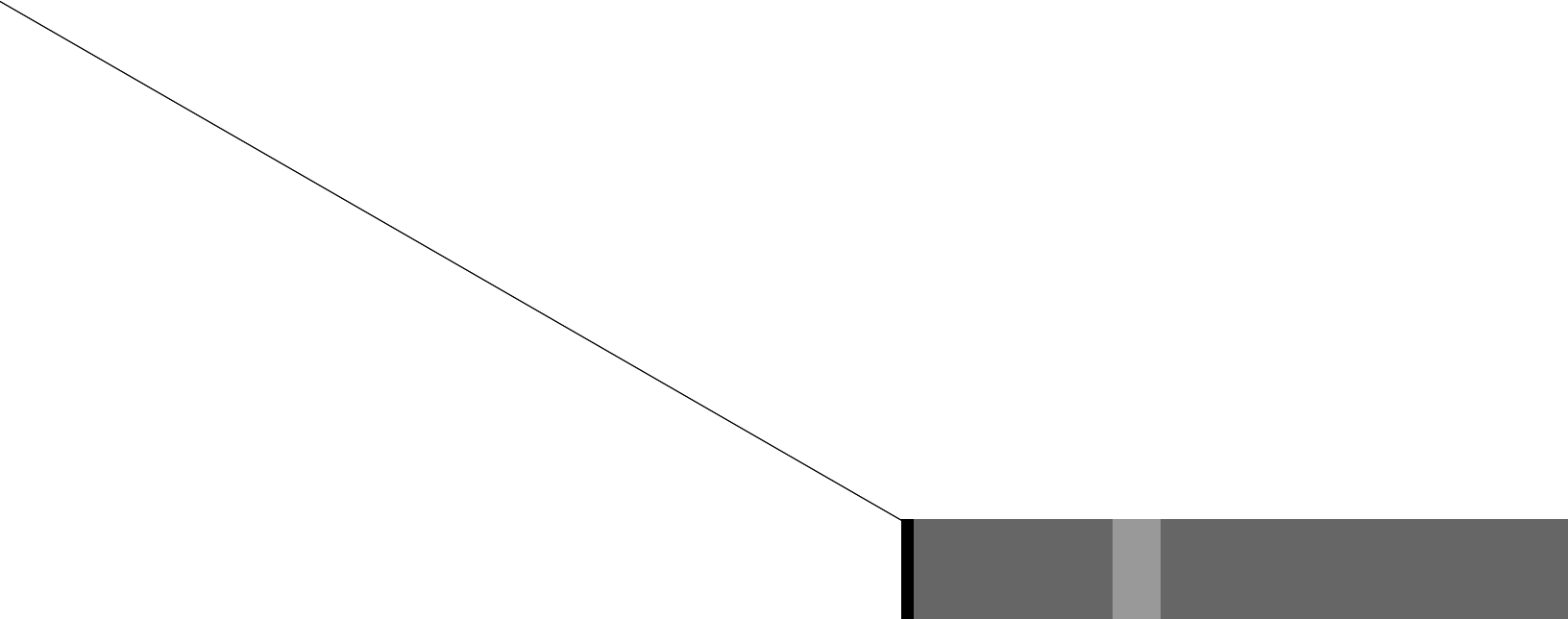
III. 교과용도서의 편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정책 방향, 교과용도서의 편찬 방향을 담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의 편찬 관련 주요 내용을 실었다. 국·검·인정 교과용도서의 개발 절차, 개발 대상 도서, 개발 방법 및 절차 등을 소개하여 교과용도서의 개발 체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

부록 1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에는 대한민국헌법(발췌), 교육기본법(발췌), 초·중등교육법(발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발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전문), 저작권법(전문)을 수록하여 교과용도서 관련 법적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규들은 특히 교과용도서 심의에 사용하는 공통기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규들이다.

부록 2에서는 교과용도서의 표기·표현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부분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참조할 사안이지 공식 규정처럼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I.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의 변천

1. 교육과정의 변천
2. 교과용도서의 변천

1 교육과정의 변천

가.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와 교수요목의 시기(1945 ~ 1954)

(1)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의 시기(1945 ~ 1946)

이 시기는 우리 정부가 발족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공교육 활동은 미군정청 학무국에 의해 집행되었다.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당시의 행정은 긴급 조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교육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편수 업무는 한·미 양측 스태프로 조직되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행정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이원 조직은 서로의 부족한 경험을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갈등과 함께 불필요한 오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미 군정 초기, 미군 측 학무 당국자는 한국 사정에 그리 밝지 않은 편이었고, 따라서 우리 측 인사들은 조선교육회, 조선교육심의회 등의 자문 조직을 통하여 교육행정을 조력하였다. 이들 자문 조직은 당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문적 식견을 십분 발휘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 문제 등 여러 현안을 준비하는 데에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45년 9월에는 초등학교, 10월에는 중학교(고등학교가 포함된 학제)에 대하여 각각 ‘교과목 편제와 시간 배당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공민, 국어, 지리·역사, 산술, 이과(잇과), 음악·체육을 가르치도록 하였으며, 중학교에서는 공민, 국어, 지리·역사, 수학, 물리·화학·생물, 가사(여), 재봉(여), 영어, 체육, 음악, 습자, 도화, 수예(여), 실업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편제는 그 후에 여러 차례 개정된 바 있다.

과목 편제와 시간 배당은 일제 말기의 중등학교의 교과목 및 시간 배당을 근간으로 개정된 것이지만, 수신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한 공민과를 신설한 점, 국어가 일본어 중심에서 우리말, 우리글 중심으로 바뀐 점, 일본 역사 대신 우리 역사가 등장한 점을 주요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2) 교수요목의 시기(1946 ~ 1954)

교수요목의 시기는 1946년부터 1954년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나오기까지의 시기를 말하며, 이 시기에는 아직 교육과정의 틀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

미군정청 학무국에서는 1946년 2월에 ‘교수요목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수요목을 제정하는 한편,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1946년 9월에는 국민학교 교수요목을 시달하였고, 1947년에는 중학교의 학제 변경에 따른 교과목별 주당 수업 시간표를 정하고, 교과목별 교수요목을 시달하였다.

이때 제정된 교수요목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과목의 지도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데 주력하였다.

둘째, 교과목은 분과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체계적인 지도와 지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인 ‘홍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하여 애국, 애족의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정신 면에서나 생활 면에서 일제 잔재를 시급히 제거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형편은 교수요목을 제정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없을 정도로 교과서의 발행이 시급하였기 때문에, 교수요목을 제정하는 데에는 그다지 심혈을 기울일 수 없었다. 교육심의회는 9개 분과가 있어도 교수요목이나 교육과정을 다루는 분과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

하며, 그 결과 체제상 교과 간에 일관성을 기하지 못하고 교과별로 가르칠 주제를 열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즉, 교수요목이라는 문자 상의 의미 그대로,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의 주제 또는 제목을 열거하는 데에 불과하였다.

이 교수요목은 정부 수립과 교육법의 제정에 따라 새롭게 개정될 예정이었으나, 한국 전쟁으로 중단되어 1954년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그 이듬해의 ‘교과 과정’이 공포될 때까지 유효하였으며, 이에 따른 교과서가 편찬되어 사용되었다.

새 정부 수립 이후 교육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변화는 교육법의 제정, 공포였다(1949. 12. 31.). 우리에게 익숙한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채택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교육법 시행에 따른 각종 법령들의 제정·공포도 뒤따랐다. 교육법에는 “사범 대학, 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는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것에 한한다(157조).”는 점을 밝혀 교과용도서에 관한 국가 관리 체제를 분명히 하였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이러한 원칙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49년 초등 교과서를 전면 국정화하였고, 초·중등용 검·인정도서도 225종 472책을 발행하게 되었다.

나. 제1차 교육과정기(1954. 4. ~ 1963. 2.)

제1차 교육과정기는 1954년 4월 20일 공포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1955년 8월 1일 공포된 각급학교 교육과정 공포로부터 1963년 2월 제2차 교육과정이 공포된 시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1차 교육과정기가 교육법 제정(1949)과 더불어 곧바로 시작되지 못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 전쟁의 발발 때문이다. 제1차 교육과정기의 특징을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제2조에 “본령에서 교육과정이라 함은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활동의 편제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 그리고 문교부령 제44조, 제45조, 제46조로 공포(1955)된 교육과정의 명칭이 ○○학교 ‘교과 과정’으로 명시된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제1차 교육과정은 우리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시기적으로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의 영향을 받아 ‘새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전인교육, 특기 적성을 살리기 위한 특별 활동이 강조되었으나, 교육과정상에 진보적 교육관이 뚜렷하게 반영된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한마디로 말하여,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 생활 중심 교육과정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볼 때, 교육과정으로서의 체계, 진술 형식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 교육 이념으로서 도의 교육이 강조되었고, 특별 활동이 교과와 더불어 편제표에 정식으로 반영된 것을 큰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다. 제2차 교육과정기(1963. 2. ~ 1973. 2.)

제2차 교육과정은 교육사절단이 권고한 진보주의 교육 또는 생활 중심 교육의 영향을 받고, 당시 사회 재건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완성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이 이전의 교육과정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교육의 일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인데, 7가지의 교육 목표를 정하여 ‘개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교과 과정’을 별도로 공포했던 것을 합쳐 일련의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으로 공포하여, 명실공히 교육과정령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제1차의 ‘교과 과정’에서 ‘교육 과정’으로 바꾸어 교육과정이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전 활동과

관련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었다.

내용 면에서 드러나는 제2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교과목으로 조직된 내용보다 학생들의 경험 혹은 활동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의 교육과정 문서에도 나타나 있듯이,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로 되어 있다.

제2차 교육과정의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전의 교육과정에서와는 달리 교육과정을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구성하였고, 총론에서는 초·중등학교에 공통되는 개정의 취지, 일반 목표, 개정의 요점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학교급별 시간 배당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활동별 운영 계획에서는 ‘반공·도덕’ 영역을 새롭게 설정하여 교과 활동, 특별 활동과 더불어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①지식과 교양을 중심으로 한 교과 활동, ② 도덕심의 양양과 승공 사상의 확립을 위한 반공 도덕 생활, ③ 민주 사회인으로서의 생활 태도, 개성의 신장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 활동의 3대 영역으로 조직되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①교과 활동, ② 특별 활동의 2대 영역으로 조직되었다. 각론에서는 교과별로 개정의 요점, 교육 목표, 지도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등을 통일된 형식으로 자세하게 서술하고, 교과별 학년 목표를 제시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과 지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교육 내용의 학교급 간 연계와 통합을 강조하였다.

또, 이 시기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단위제가 도입되었다. 단위제는 학년별로 시간 배당 기준을 제시하는 학년제와 달리,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교과별 단위 수를 제시해 주고, 학교가 이에 따라 학년별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특정 교과 또는 과목을 이수하는 시기가 특정 학년 또는 학기에 고정됨이 없이, 학교의 여건과 교사 수급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차 교육과정의 특징으로는 생활 중심 교육 이념을 강조한 점, 그리고 교육과정의 체제 면에서 일정한 틀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라. 제3차 교육과정기(1973. 2. ~ 1981. 12.)

제3차 교육과정기에는 초·중·고(인문계, 실업계)와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교육대학 등의 교육과정을 개정하였으며, 특수학교와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육과정을 제정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교육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국민 정신 교육의 강화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의 내용 및 방법적 원리 면에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이다.

첫째, 새로 개편된 교육과정은 변천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과 한국적 가치관에 입각한 국적 있는 교육의 구현을 위하여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 기술 교육의 쇄신에 중점을 두었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도 자주성을 강조하여 ‘고유의 역사와 전통’, ‘역사적 현실 속에서의 명확한 사명감 자각’ 등이 강조되기는 하였지만, 제3차 교육과정기에는 이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한층 부각시켰다. 이 점은 1970년대가 가지는 역사적 특징, 즉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 구현, 유신 교육의 강화 등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다.

둘째, 제3차 교육과정은 생활 중심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1960년대 미국 교육 개혁을 주도했던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각 학문에 내재해 있는 지식 탐구 과정의 조직이라는 것이다. 이 사조를 주도한 브루너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각 교과의 전문가들이 교과

가 나타내고 있는 지식의 본질, 즉 교과목의 구조를 가장 명백히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학문의 구조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한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교과목의 내용 조직에서 지식 구조의 체계화에 의한 학교급별, 학년별 계열성을 더욱 뚜렷이 하고, 내용 선정에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일관된 지식 구조의 체계 하에서 전개하는, 이른바 나선형 교육과정이 부각되었고, 단순 기억이나 일반 경험보다는 교과목의 탐구 과정이 강조되었다.

문서상으로 드러나는 교육과정의 특징으로는 우선 교육과정의 체계를 언급할 수 있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을 일반 목표와 학교급별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일반 목표에서는 교육과정의 기본 방침, 일반 목표를, 학교급별 교육과정에서는 구성 방침, 편제와 시간 배당, 그리고 운영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이전의 과정보다 단순화, 체계화하였다.

각론에서는 각 교과목별 목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교과 목표에 해당하는 일반 목표와 학년별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그 위계를 명백히 하였다. 또 이념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서 도덕, 국민윤리과와 국사과를 독립시켰고, 종전의 반공·도덕 영역이 없어짐에 따라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이원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자유 선택 교과목’이 신설되었으나, 최저 단위가 ‘0’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였다.

마. 제4차 교육과정기(1981. 12. ~ 1987. 3.)

제4차 교육과정은 제5 공화국의 출범과 1980년의 교육 개혁 조치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개정의 절차와 과정 면에서 이전의 교육과정과는 현저하게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은 연구 전담 기관의 주도로 교육과정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문교부는 ‘검·인정 교과서 사건’ 이후 문교부의 편수 행정 업무를 재검토하였고, 그 일환으로 편수관이 중심이 되어 소수 전문가 위주로 이루어지던 연구·개발이 연구 기관의 조직적인 연구·개발형 체제로 전환되었다. 문교부는 제4차 교육과정의 연구·개발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였고, 한국교육개발원은 광범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면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의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새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이전의 교육과정이 ‘경험 중심’ 또는 ‘학문 중심’ 등을 강하게 표방하였던 것과는 달리, 특정 사조나 이념을 부각시키지 않는 균형 있고 종합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다.

교육과정에 드러난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제4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 교육과정은 교과목 간의 통합 운영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교육과정의 교과 편제는 교과별로 하되, 수업 시간은 통합군으로 배당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 교과서가 출현하게 되었다. 도덕, 국어, 사회를 통합하여 ‘바른 생활’이, 산수, 자연을 통합하여 ‘즐거로운 생활’이, 체육, 음악, 미술을 통합하여 ‘즐거운 생활’이 편찬되었다. 중학교의 경우, 지리, 세계사, 공민 등으로 조직되어 있던 교과목별 내용 조직을 문제 중심 혹은 주제 중심으로 통합하여 사회 I, II로 조정하였으며, 국토 지리와 인문 지리를 통합하여 지리 I, II로 하였다. 교과목 간의 통폐합은 고등학교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공업 계열의 경우에 그 규모가 커서 361개의 전문 과목이 150개 과목으로 통폐합되었다.

둘째, 이른바 인간 중심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교과목 수와 연간 수업 시간의 수를 축소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학습 부담 경감과 여가 시간의 확충을 겨냥한 것이다. 이로써 중학교 2, 3학년에서 각각 1과목

씩, 그리고 주당 1시간씩 수업 시간을 축소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총 이수 단위의 수를 6~18단위 축소하였고, 교과목 수에 있어서도 공통 필수 교과목의 설정과 유사 과목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과목 수가 축소되었다. 또 자유 선택 과목을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교과 선택의 자유를 마련하였으나, 고등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셋째, 전인 교육 강화책의 일환으로 인문계와 실업계에 공통 필수 교과목을 두고, 초·중·고 교육과정을 일원화하였다. 특히, 실업계의 경우, 종전에는 교과목 편제가 지나치게 기능인 양성 위주로 치우쳐 있어서 인문계와 실업계 사이에 공통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부족하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를 공통 필수로 하여 전 교과에서 약 30~40%의 비중으로 부과하였다. 아울러 초등학교에서는 공민학교 내용을, 중학교에서는 고등공민학교와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학교의 교육 내용을, 고등학교에서는 방송통신고등학교와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 교육 내용을 일반 고등학교에 준하도록 하였고, 실업계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 내용을 서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일원화하였다.

바. 제5차 교육과정기(1987. 3. ~ 1992. 6.)

제5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정 주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제4차 교육과정 기간 중에 나타난 학문과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 내용을 보완한다는 원칙 밑에 이루어진 교육과정이다. 즉, 제5차 교육과정의 개정은 국가·사회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육의 내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학문의 급속한 발전과 교과서 사용 시한이 주된 고려 사항이 되어 문교부 편수진 자체 판단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제5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적정화, 내실화, 지역화를 개정 방침으로 내세우고, 개정의 기본 원칙으로 부분 개정의 원칙(제4차 교육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개정한다), 지속성의 원칙(제4차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파괴하지 않는다), 점진적인 개정(전면적, 혁명적 개정이 아닌 온건하고 현실적인 여건에 맞는 부분적이고 점차적인 개정이 되도록 한다), 효율성의 원칙(교육과정이 의도한 대로 학교 교육이 교육력을 발휘하여 학생에게 교육적 성취를 가져오게 한다)으로 개정되었기에 제4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차이점이 많지 않다. 제5차 교육과정 개정은 제4차 교육과정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연구, 개발하도록 하고, 이 시안을 문교부가 검토, 심의, 정리, 확정, 고시하는 단계를 밟았다.

이전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제5차 교육과정이 가지는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1, 2학년의 통합 교과 운영 체제가 바뀌었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통합 교과서만 출현하였을 뿐, 교육과정상에는 교과가 분리된 채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제5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상에 통합 교과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교과 활동은 ‘국어’, ‘산수’,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5개 교과로 편성되었으며, 1학년의 경우에는 여기에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교과가 추가되었다. 국어와 산수가 이전과 달리 독립된 교과로 변경된 것은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본 능력이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며, ‘우리들은 1학년’ 과목이 신설된 것은 1학년에 입학하여 한 달 동안 학교생활에 체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자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자유 선택 과목이 실질적으로 정착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 때부터 ‘자유 선택’ 과목이 설정되었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제5차 교육과

정에서는 ‘자유 선택’이 ‘교양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최소 2시간 확보되어, 선택 과목의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록 시수가 크게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에 숨통을 열고 전인 교양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했다는 조치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교양 선택은 교육학, 논리학, 심리학, 철학, 생활 경제, 종교 중에서 학생의 필요,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사. 제6차 교육과정기(1992. 6. ~ 1997. 12.)

제6차 교육과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존의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을 분권 지향형 교육과정으로 바꾸는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 교육을 보다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그리고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정 해설서, 각종 교과용 전문 도서, 단위 학교의 실태 조사 자료, 지역의 교육 자원과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단위 학교의 실정과 단위 학교 학습자의 수준에 알맞게 편성한 구체적인 실행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제까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학교에서는 교사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전달해 왔던 체제(교육부: 국가 수준 교육과정 → 학교: 교과서)에서 탈피하여 위상별 역할 분담 체제(교육부: 국가 수준 교육과정 →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학교: 학교 교육과정)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제6차 교육과정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권 지향적 변화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였던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는 폐지되었다. 교과별 학년 목표는 각 학교가 당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에 결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국가 수준의 편제에서는 고등학교 공통 필수 과목(10개 과목 → 70단위)만 지정하고, 그 밖에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은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에서 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실업계 전문 과목은 계열 간의 벽을 넘어서 선택, 이수할 수 있게 하였고, 학교 단위에서 필요한 과목의 신설도 가능하게 되어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체제가 확립되었다.

넷째, 수업 시간 배당 기준은 과거의 ‘주당 시간 배당형’을 ‘연간 총 시간 제시형’으로 바꾸었다. 그리하여 주별, 월별, 학기별 수업 시간은 각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에 당해 학교 실정에 맞게 배정할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 초등학교에 교육과정 사상 처음으로 ‘학교 재량 시간’을 신설하여 국가 공통 편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교육 활동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학교에 부여하였다.

여섯째, 인정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승인권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함으로써 지역 특성과 학교 실정에 적합한 교과용도서를 융통성 있고 자유롭게 선정,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의 특징 중에서 지역 분권화 이외의 것으로는, 이전의 교육과정 개정 방식, 즉 연구를 특정 연구 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 일괄 위탁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문교부 편수진이 개정의 주체가 되어 광범위한 전문 인력과 현장 교육의 연계를 시도한 점을 들 수 있다. 또, 중학교 선택 과목 도입,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구성과 교과용도서 편찬권 시·도 교육청 이관, 실업·가정 교과의 대폭 조정, 고등학교 공통 필수 과목 축소, 선택 과목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아. 제7차 교육 과정기(1997. 12. ~ 2007. 2.)

제7차 교육과정은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교육개혁위원회는 ①필수 과목 축소 및 선택 과목의 확대, ② 정보화·세계화 교육 강화, ③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을 개선의 원칙으로 삼았고, 이 원칙은 일련의 개정 실무 작업에서 보다 상세화되었다.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는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입장을 정할 때에 제6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을 승계하되, 2000년대에 보다 근접해 있는 시점에서의 시대·사회적, 문명사적 변화의 의미를 학교 교육과정에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교육과정 개정의 대원칙을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구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 원칙은 다음의 7가지 특징으로 구체화되었다.

첫째,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도입이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기간 동일한 내용을 가르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인데, 기존의 교육과정 내용 구성 방식을 바꾸어 국민 공통 기간 10년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이 기간 중에 교과별 학습 내용을 학교급별 개념이 아닌 학년제 또는 단계 개념에 기초해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체제는 각 교과별로 학교급 간, 학년 간의 내용 중복과 비약을 해소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 체제를 구성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이다. 교육과정은 보통 수준의 다수 학생을 겨냥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수 과정에서의 개인별 능력차는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내용의 위계가 비교적 분명한 교과에 적용되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내용이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고 개인차가 심하게 작용하지 않는 교과에 적용되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분되었다.

셋째, 재량 활동의 도입이다. 이는 이전에 존재했던 학교 재량 시간을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독립시킨 것으로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해결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성격상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넷째, 고등학교 2, 3학년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이다. 고등학교 2, 3학년은 일부 학생에게는 종결 교육의 의미를 가지며, 다른 일부 학생에게는 대학 진학을 위한 진로 탐색 및 예비 교육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그 단계 역시 세분화해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이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10개 교과로 제한한 것은 학생의 입장에서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이수 시간의 적정화 차원에서 모든 교과의 이수 시간을 최소 수업 시간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를 교육 내용 구성의 최소 기준으로 삼도록 함으로써 학습량을 감축시켰다.

여섯째,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 확립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강화하였는데, 학생의 교과별 내용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학생의 학력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평가하는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는 교육과정 개정에서 추구하는 변화가 문서 수준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취해진 조치이다.

일곱째, 정보 사회에 대비한 컴퓨터 교육의 강화이다. 산업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대체되면서 학생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것이 요청되었고, 이는 초등 수준에서는 실과와 학교 재량 활동에서의 컴퓨터

교육 시간 확보로, 중학교에서는 재량 활동 시간에 컴퓨터 과목의 개설로, 고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에 ‘정보 사회와 컴퓨터’ 과목의 개설로 나타났다.

자. 2007 개정 교육과정기(2007. 2. ~ 2009. 12.)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를 학교 교육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교육과정 개정을 ‘주기적 전면 개정’ 방식을 취해 왔다. 그런데 이 방식은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05. 2.)을 만들어 교육과정 개정의 개방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현장 교원과 일반 국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전국 단위와 지역별, 학교별로 구성된 교육과정 지원 장학협의단 등을 통해 교육과정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을 상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특히, ‘교육과정·교과서 정보 서비스’(cutis.moe.go.kr. '05. 9.)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운영을 통해 2004년 11월에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2005년 12월에는 공고 2·1 체제 및 국사 교육 내용을 개정하였고, 2006년 8월에는 수준별 수업 내실화를 위해 수학·영어 수준별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특히, 2007년 2월에는 다양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한 새 교육과정을 개정·고시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부분·수시 개정임에도 교과별 교육과정은 전면 개정되었으며, 총론에서도 사회·문화적인 변화와 다양한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상당 부분의 개선이 있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 시수를 일부 조정하였다. 주 5일 수업제의 월 2회 시행에 따라 학교급별로 수업 시수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수업 시수를 연간 34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 운영(초등학교 1, 2학년 제외)하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2, 3학년은 학교 자율로 교과에서, 중 1~고 1학년은 재량 활동 중 교과와 성격이 유사한 교과 재량 활동에서 감축하도록 하였다. 이는 특별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천 중심의 다양한 체험 교육을 통해 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7차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 과학·역사 교육을 강화하였다. 세계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과학적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과학과 수업 시수를 주당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증대하였다. 또한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역사 교육을 위해 중·고등학교의 사회 교과에서 ‘역사’ 과목을 독립시키고,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신설하는 한편, 고등학교 1학년 역사 과목 수업 시수를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증대하였다.

셋째, 단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교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 이수가 가능하도록 ‘교과 집중 이수제’를 도입하고, 재량 활동은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넷째,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개선하였다. 선택 과목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위해 선택 과

목에 따라 다양한 단위 수(4, 6, 8단위)를 6단위로 조정(교양 등 일부 과목만 4단위)하고, 일반 선택과 심화 선택의 구분을 폐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운영상의 혼란을 해소하였으며, 고등학교 선택 과목군인 예·체능 과목군을 체육과 예술로 분리하여 6개 과목군으로 개선하였다. 선택 과목군을 확대하게 된 것은 입시 위주의 편중 선택을 방지하고,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격을 기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2, 3학년에 서도 체육, 음악, 미술을 분리하여 각각 1과목 이상은 이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미래에는 국민들이 체육, 음악, 미술을 향유하는 토대 위에 형성되는 문화적 창의성이 곧바로 국가 경쟁력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2007년 6월에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정도서의 검정 전환 확대 및 검인정 규제를 완화하고,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교과서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5, 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 및 3~6학년 영어와 중·고등학교 국어, 도덕, 역사를 검정으로 전환한 것을 비롯하여 오류 없는 검정도서 개발을 위하여 검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교과서 질 관리 체제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차. 2009 개정 교육과정기(2009. 12. ~ 2015. 8.)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지나친 학습 부담을 감축하고,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하며, 단편적 지식·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지나친 암기 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개정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개정 방향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크게 변화시켰다. 즉, 공통 교육과정 이수 기간 조정 및 선택 교육과정 기간 확대, 교과군과 학년군의 도입, 교과 집중 이수를 통한 학년·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의 축소, 교과(군)별 수업 시수의 증감 운영, 배려와 나눔의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적 체험 활동 도입 등이 그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을 통해 유의미한 학습 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은 주당 10개 교과, 중·고등학생은 11~13개 교과목을 학습하며, 사회, 과학 등 통합 교과의 경우 과목별로 나누어 가르치고 있어 실제 학생의 학습 부담은 더욱 과중한 상태이며, 이와 같은 학습 부담 과중은 학습 흥미도와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등학교의 경우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수업 시수가 적은 교과목은 특정 학기, 학년에 집중 이수하도록 하는 집중 이수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집중 이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년군, 교과군을 도입하였다. 학년군 접근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초등학교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의 3개 학년군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개 학년을 각각 1개 학년군으로 설정하였다.

교과군 접근은 교과간 소통을 촉진하며,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탄력있게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교과를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경우 사회, 도덕 교과를 사회/도덕 교과군으로, 과학, 실과 교과를 과학/실과 교과군으로, 음악, 미술 교과를 예술(음악/미술) 교과군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창의적 체험 활동’을 신설하였다. 기존의 재량 활동은 창의적 재량 활동(자기 주도 학습, 범교과 학습)과 교과 재량 활동으로 구성되며, 특별 활동은 적응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 계발 활동, 자치 활동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상호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교과 외 교육과정인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교과 보충 학습 등으로 편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특별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교과 지식 위주의 학교교육의 관행을 개선하고, 전인적 성장이 가능한 학교교육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창의적 체험 활동의 세부 영역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수업 시수는 초·중학교는 주당 3시간 이상, 고등학교에서는 주당 4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하며, 중학교의 교과 재량 활동은 ‘선택 교과’로 분류하고, 고등학교의 교과 재량 활동은 폐지하였다.

셋째, 공통 교육과정의 기간을 조정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혁신을 추구하였다. 기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이며,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10개의 기본 교과를 획일적으로 학습하고 있었으며, 모든 계열의 고등학교에서 10학년 공통 과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계고, 특수목적고 등 교육과정의 자율화가 필요한 학교에서 자율화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통 교육과정을 9년(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으로 조정하고 초등 1~2학년 초기 단계의 기초·기본 교육, 돌봄 기능을 강화하며, 국민 기초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초·중학교 과정으로 명확히 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전 학생의 기초 학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기초 핵심 역량을 강화하며, 고등학교에서 교과 영역 간 균형 있는 학습을 위하여 기초 영역(국어, 영어, 수학)을 강화함과 동시에 예술·체육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탐구 영역(사회, 과학)의 교육은 기존의 지식 전달 위주의 획일적 수업을 지양하고, 토론식 수업·다양한 실험 중심·토론 중심의 수업 등으로 수업 방법 혁신을 통해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넷째,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기존의 교육과정은 지역, 학교, 학생 집단의 특성과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별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편성·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또한 학습 부진이 심한 교과목에 대해, 단위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탄력적 대응이 어려우며, 학생의 적성과 진로, 능력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만 제시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고,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학교교육의 실질적인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연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과목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자율 증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과군, 학년군 도입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개별 학생의 기초 교육을 강화하고, 교과 영역 간 균형 이수를 유도하였으며, 학년군 도입 등 교육과정 운영 체제 혁신으로 무학년제 구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공통 필수 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교과(군)별 필수 이수 단위 수만을 지정하여 학생 자신의 수준이나 진로에 맞는 교과목

중심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학교 자율 과정’ 설정을 통해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 및 학생의 진로를 고려한 계열화를 통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카. 2015 개정 교육과정기(2015. 9. ~)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기초로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였다. 창의융합형 인재는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 요구됨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천명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론의 주요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과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비롯한 기초 소양 함양 교육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였다. 특히 고등학교에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 과목을 도입하고,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16년)에 대비하여, 중학교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의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교과별로 꼭 배워야 할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정선하여 감축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급별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군)에 한글교육을 강조하는 등 유아 교육과정(누리과정)과 연계를 강화하였다. 초등 1~2학년 수업시수를 주당 1시간 늘리되, 학생들의 추가적인 학습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해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안전한 생활은 ‘생활안전/교통안전/신변안전/재난안전’ 4개 영역으로 설정하여 지식 보다는 체험 중심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안전한 생활습관과 의식을 습득하게 하였다.

중학교는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의 교과 활동과 함께 장래 진로에 대해 마음껏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초 소양을 충실히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 중심의 정보 교과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재미있고 흥미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통해 기초소양을 함양한 후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일반 선택/진로 선택)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생의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진로 선택 과목을 3개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기초교과 영역(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이수 단위를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하여 균형학습을 유도하였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전문교과를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으로 개편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를 강화하였다.

2 교과용도서의 변천

가.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와 교수요목의 시기(1945 ~ 1954)

정부 수립 직후의 교과용도서 검정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단위 출원본을 대상으로 하여 3~5인의 교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에게 사열을 위촉하는 일로 첫 단계를 밟았다. 심사 위원은 출원본에 대한 사열 보고서(가부를 결정한 내용)를 작성하여 당국이 조직한 검인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상부의 결재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요컨대, ‘집필 → 출원 → 심사 → 발행’으로 이어지는 검정 절차가 확립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때로는 국익에 반하는 내용이 걸리지 않고 통과되거나, 일제 협력 인사가 저자로 드러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국 전쟁의 발발로 ‘건국 문교’는 초기 단계에서 큰 타격을 받았으며, 교육 정책은 ‘전시 문교’로 급선회하였다. 당초의 계획은 중단되었고, ‘전시 하 교육 특별 조치 요강’이라는 전시 교육 방침이 시행되었다. ‘전시 교재’가 보급되어 전쟁 중에도 학교에서는 수업을 중단하지 않았고, 열악한 환경에서나마 높은 교육열로 이어 갔다. 국정 교과서의 경우, 전시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교과서만큼은 거의 전량 발행되고 있었으나,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형편이 어려워, 전쟁 발발 전에 무려 215종에 이르는 실업 전문 교과서 발행을 계획했던 것이, 전쟁 중에는 3년간의 실적이 고작 61종(보통 교과의 교과서 포함)에 그쳤다.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여, 교과서 집필 자체가 무산되거나 완성된 원고가 있더라도 출판이 거의 불가능한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전쟁 이후, 이전 상태를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일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으로는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서 발행이 국가 주도, 정부 주도 체제로 더욱 굳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남북 분단으로 인한 이데올로기 문제가 교육 내용 선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나. 제1차 교육과정기(1954. 4. ~ 1963. 2.)

제1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편찬은 법령에 근거하여 교과용도서 편찬이 시작된 시기이다. 물론 국정 교과서, 검정 교과서는 이전의 미 군정기에도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임시 방편적으로 발행된 것이다. 제1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제도는 이전의 운영과는 달리, 교육법과 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교과서 관련법이 정비되고, 이 법에 기초하여 교과서 편찬과 검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 점에서 제1차 교육과정기는 법령에 근거하여 국정과 검정 제도가 정착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국정 교과서는 ‘국정 교과용도서 편찬 규정(대통령령 제337호, 1950. 4. 29.)’에 의거하여, 검인정 교과서는 ‘교과용도서 검인정 규정(대통령령 제336호, 1950. 4. 29.)’에 의거해서 각각 편찬되었다.

(1) 국정 교과용도서

이전에 편수 제도가 정비되지 못했을 때에는 한글학회나 진단학회 등에서 편찬한 것도 정부가 발행, 공급하여 국정화하였으나, 차츰 편수국의 전문성이 신장된 이후에는 모든 교과용도서를 편수국이 직접 편찬하여 공급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당시 국정 교과용도서의 범위는 현재의 형편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초등학교와 공민학교, 그리고 그것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정규 교과목의 교과용도서와 중·고등학교의 국어, 도의,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 교과와 교과용도서 중에서 검정 신청이 없거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도서로 되어 있다. 이 시기의 국정 교과용도서 편찬 과정에 대해 상세한 자료가 남아 있지는 않으나,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편찬 기본 계획 세우기 → ② 교육과정 분석 → ③ 집필 세목 작성 → ④ 집필 세목 검토(또는 집필 세목 검토 심의회) → ⑤ 집필 세목 완성 → ⑥ 단원 전개 체제 확정 → ⑦ 집필 → ⑧ 원고본 작성 → ⑨ 수정·검토 → ⑩ 원고본 검토 심의회 → ⑪ 수정·검토 → ⑫ 조판본 심의회 → ⑬ 수정·검토 → ⑭ 완성본 작성 → (결재) → ⑮ 인쇄 회부(편수사 연구(I), p. 192)

교사용 지도서의 경우, 초등학교용은 거의 모두 편찬되었고, 중·고등학교용도 대부분 편찬되었다. 다만, 이들 교사용 지도서는 현재와는 달리 교과서보다 1년 늦게 공급되었다. 편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심의는 ‘국정 교과서 편찬 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공포된 ‘국정 교과용도서 편찬 심의회 규정(문교부령 제8호, 1950. 6. 2.)’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 심의회는 교과용도서의 편찬, 개편 또는 그 기초 조사를 위하여 문교부 편수국에 두게 되는 일종의 심의 기구였다.

(2) 검인정 교과용도서

제1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제도는 국정과 검정을 근간으로 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 교본으로서 인정도서를 도입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기본 교과서를 모두 국정으로 함에 따라 검정 교과서가 사라지게 되었고, 인정도서는 위의 취지에 따라 존속시켰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검인정 사업은 국정 교과용도서 편찬 사업과 함께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검인정 교과서 사열 기준(1955. 10. 6.)’ 발표 후 심사 결과를 확정하고(1956. 1. 15.), 그해 신학기부터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검인정 사열을 위해 일선 교육자, 학자 등이 약 350명 동원되었고,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신청 검인정 권 수는 총 992권에 허가(수정 명령) 권 수 847권, 불허가 권 수 145권이 되었다. 이 결과에 의해 전국 40여 개 출판사에서 400여 종 정도의 검인정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특징적인 것으로서 당시 검인정 규정은 오늘날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과 달리 검정의 대상이 되는 교과용도서의 범위를 각 학교의 학생용 도서뿐만 아니라 각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수용 패도, 지구의 종류 등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검정 대상은 초등학교 교과용도서를 제외한 각 학교 정규 교과용도서 중 국정으로 지정하지 않는 도서가 되므로, 국어, 도의(도덕), 그리고 경제성이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실업계 고교 교과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교과서가 검정 대상이 되었다.

다. 제2차 교육과정기(1963. 2. ~ 1973. 2.)

제2차 교육과정은 1963년 2월에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1963년부터 1967년에 걸쳐 교과서 개편 작업이 이루어졌다. 초등학교의 경우, 1, 2학년용은 1963년에 편찬이 완료되어 1964년에 사용되었고, 3, 4학년의 경우에는 1965년부터, 5, 6학년의 경우에는 1966년부터 사용하게 되었다. 중등학교의 경우, 국어, 사회, 반공·도덕, 실업 등의 일부 교과서는 국정으로 발행되었고, 그 밖의 것은 모두 검인정으로 발행되었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으로 교과서의 구성도 발견 학습, 탐구 학습 등의 편찬 방식을 지향하여 진일보한 면모를 보였고, 외형 체제 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교과서 행정과 관련하여 제2차 교육과정기의 특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의 전 교과서와 중·고교 일부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였고, 그 밖의 것은 검인정제로 하였는데, 검인정제는 통제가 강한 편이었다.

둘째, 교과서의 편수 기간이 너무 짧고, 판형, 지질, 인쇄 등이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셋째, 편수 행정을 위한 기구의 빈번한 개편과 적은 예산이 교과서 편찬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넷째, 검인정 교과서의 사열 기간이 너무 짧았고, 사열 기준을 대외비로 함으로써 ‘좋은 교과서’의 편찬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다섯째, 교과서비를 학생 측의 부담으로 하고 있어 의무 교육 정신에 위배되었다.

여섯째, 교과서의 채택을 위한 교과서 전시회, 교과서 평가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1) 국정 교과서

교육과정령이 공포되고 교과서 개편이 시작되면, 해당 교과목의 교과서 저자를 선정, 집필 위촉하여 당해 연도 내에 조판, 심의, 교정하여 익년도 신학기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는다. 이 시기의 국정 교과서는 장관 명의로 집필이 위촉되지만, 원고 집필자는 담당 교과목의 편수관이 추천하며, 작성된 원고는 편수관이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인쇄에 회부하였다. 국정 교과용도서의 편찬 근거가 되는 ‘국정 교과용도서 편찬 규정(1950년 제정, 대통령령 제337호)’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기의 국정 교과서 체제는 판형이 제1차 교육과정기에 4·6판에서 5·7판(국판)으로 바뀐 그대로였으며, 활자는 개량된 것을 사용하였다. 교과서 용지로는 표지에 모조지를, 본문에는 갱지(저학년은 백상지)를 사용하였다. 활자 크기는 1학년은 32급, 2학년은 28급, 3학년은 16포인트 활자(24급), 4학년 이상은 14포인트(20급)를 사용하여 제1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활자보다 커졌다. 표지 인쇄의 경우, 저학년은 원색을, 고학년은 단색을 썼으며, 제본은 제1차 교육과정기와 동일하게 철침 크로스볼임으로 하였다. 원색 삽화는 초등학교의 경우 ‘자연’은 4학년 일부까지, ‘바른 생활’은 3학년, 그 밖의 교과는 2학년까지만 적용하였다.

(2) 검인정 교과서

제2차 교육과정기의 검인정 교과서 제도는 그 법적 근거를 ① ‘교과용도서 검인정 규정(1950. 4. 29. ~ 1967. 4. 16.)’, ② ‘교과용도서 저작 검인정령(1967. 4. 17. ~ 1977. 8. 21.)’에 두고 있다. 검인정 교과서의 출원과 사열에 관한 규정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용도서 발행자는 그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문교부 장관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전항의 출원자로서 대한민국 반도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대리시

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자로서 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둘째,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사열하기 위하여 문교부 장관은 교과용도서의 검인정 출원이 있을 때마다 매건에 대하여 3인 내지 5인의 사열 위원을 선정, 위촉하여야 한다. 사열 위원은 위촉받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사열하여 문교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셋째, 검인정 요금은 도서 1종에 대하여 그 도서의 정가의 50배로 한다.

넷째, 사열 검정은 별도 계획에 의하되, 검인정 수는 각 교과서별로 3~7종 한도 내에서 조정한다.

당시 검인정도서의 사열에서는 우수한 사열 위원을 선정하기가 어려웠고, 사열 위원의 수가 너무 적었던 점, 사열 기간이 너무 짧았던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학교급별 검인정 대상 교과서는 중학교 9교과 13과목 28종, 고등학교 13교과 38과목 45종이었고, 실업 고등학교는 농업, 공업, 상업, 가정 등의 과목이었다. 문교부는 공고와 동시에 집필자를 위하여 ‘집필상의 유의점’을 작성, 배포하였다. 여기에서 12개항의 일반 원칙으로 내용, 표기, 창의성, 형식 등을 제시하였고, 다시 각 교과별로 편찬 내용에 대한 유의점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편수관실에서 극비리에 사열의 일반 기준, 과별 사열 기준, 종합 의견 작성 요령 등을 정하였다.

검인정 결과, 1966년의 중학교 검인정 교과서 합격사는 54개사, 1967년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 합격사는 85개사로 집계되었다. 이들은 제작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 한국검인정교과서발행인협회 등을 조직하여 공동 생산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교과서의 판형과 체제는 국판(A5판)으로 종전과 동일하였으나, 색채와 삽화가 증가하고 활자가 개량되어 사용되었다. 또, 한자의 혼용이 이루어지고, 학교 문법이 통일되었다.

라. 제3차 교육과정기(1973. 2 ~ 1981. 12.)

제3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행정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그 가운데 하나는 1977년 중반기까지 ‘교과용도서 저작·검인정령’이 적용되었고, 이후에 이른바 ‘검인정 교과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새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제정, 적용되었다. 후기, 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적용기에는 ‘교과용도서 저작·검인정령’ 시대와 달리 문교부는 교과서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기획·감독 기능만 수행하고, 집필, 교정 등의 편찬 기능은 교과서 개발 기관(연구 기관, 대학교 등)에 위임하였던 것이다. ‘검인정령’ 시대에서는 교과서를 국정, 검인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새 규정에서는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1종은 ‘연구·개발형’이라고 부르고, 2종은 ‘자유 경쟁형’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또, 교과서 공급에 있어서 ‘검인정령’ 시대에는 공급인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새 규정을 적용한 시기에는 중간 상인의 배제 및 적기 공급 등을 내세워 정부 투자 기관인 국정교과서(주)를 공급 업무 대행자로 지정, 학교에 직접 공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교과서 편수 행정을 쇄신하여 더 좋은 교과서를 보다 싼 값에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교과용도서 체제는 제2차 교육과정기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된 것은 없었으며, 교과서관이나 교과서의 기능 등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 국정 교과서

‘교과용도서 저작·검인정령’이 적용되기 이전의 교과서 편찬은 제2차 교육과정기와 비교하여 거의 동일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편찬 계획은 교과 담당 편수관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 매년도 초에 편찬할 교

과서의 종류를 결정하고, 규격, 체제, 내용의 대강, 집필자 및 삽화가의 선정 범위, 예산, 업무 진행 일정을 계획하여 장관의 결재를 얻어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세부 집필 작업은 편수관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교과서의 상세한 내용, 도표, 사진, 삽화의 종류 등에 대한 집필 세부 계획을 세워 집필자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다. 과목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통 3~5명의 집필자를 추천하며, 집필자는 각 교과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지침과 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교과목별 지침을 참고하여 집필하였다. 집필 기간이 약 3개월 정도로 짧았고, 원고료 또한 저렴하였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면서부터 교과서 편찬 양상이 달라지게 되었다. 전술한 대로 1종 도서는 연구 기관 또는 대학 등에서 해당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 집필, 심의, 교정, 현장 실험, 수정 등의 과정을 거쳐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기획, 감독 기능은 문교부가 수행하고, 연구·편집 기능은 연구 기관 또는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업무를 분담하였다. 문교부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1979학년도부터 사용할 1종 교과서 238책을 27개 연구 기관 등에 편찬 위탁하였다. 그리고 초등 1, 2, 3학년용 교과서와 4학년용 ‘자연’의 일부 교과서가 원색으로 제작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기부터 교과서는 180g/m² 모조지에 유선철 통표지로 바뀌어 한층 세련된 형태를 띠게 되었으며, 판형은 종전과 그대로 국판이었다.

(2) 검인정 교과서

검인정 교과서의 편찬 과정 역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1977)’ 이전과 이후에 큰 변화가 없었다. 검정 교과서의 신청 기간 공고 명시(제11조), 그것의 세부 사항으로서 ①준거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종류, ② 심사본의 제출 부수, ③ 수수료, ④ 검정 신청의 자격 및 기간, ⑤ 검정 기준, ⑥ 검정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 ⑦ 첨부 서류 등의 명시(제12조), 심사위원을 교과목마다 3인으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제15조), 심사 기준을 교과목별로 절대 요건과 필요 요건으로 구분하여 문교부령으로 정한 것(제16조) 등은 ‘검인정령’과 별다른 것이 없었다. 변화된 사항으로서는 이전에 합격 중 수가 불명확했던 것에 비해, 새 규정에서는 과목당 5종 이내로 한정된 점, 검정 수수료가 인상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검정에 따르는 문제점 역시 이전의 그것과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①사열 위원 수(3~5인)가 검정 교과서 신청 건수에 비해 매우 부족하여 제한된 시간에 많은 분량을 충분히 검토할 수 없게 된 것, ②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제기되는 투명성의 시비, ③ 사열 위원의 책임 여부 시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마. 제4차 교육과정기(1981. 12. ~ 1987. 3.)

제4차 교육과정기에 제작된 교과서는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판형을 달리하였으며, 또한 컬러 인쇄에 지질, 장정 등의 모든 면이 향상되었다. 특히, 초등 1, 2학년 교과서는 4·6배판으로 판형이 바뀌었으며, 음악, 미술 교과서도 국판에서 4·6배판으로 확대되어 교과 내용을 보다 다양하게, 그리고 원색으로 실을 수 있게 되었다. 중학교 과학 교과서도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형을 크라운판으로 바꾸었다. 전반적으로 외형 체제도 개선되어 지질, 색도, 디자인 등이 이전 시기보다 크게 향상되었다.

(1) 국정 교과서

이 시기에 초등 1, 2학년의 경우, 교과목의 통합 운영이 시도된 사실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으며,

이에 따라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서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교육과정의 편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교과서만 통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변화된 것 중의 하나는 실업계 고등학교 보통 교과서를 없앤 것이다. 이것은 제4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전에 개편되었던 1종 도서부터 적용되기는 하였으나, 전 보통 교과와 교과서를 일반계, 실업계(기타계 포함) 구분 없이 같이 사용하게 한 것은 이 시기부터이다.

2종 도서의 비중을 확대한 방침과는 달리, 중학교의 경우에는 1종 도서의 비율과 종수가 사상 최대로 많았다. 이는 1977년 검인정 교과서 사건 이후 2종 도서 기피 현상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한국 편수사 연구(Ⅱ), p. 83).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표에 나타난 11개 교과와 17개 교과목 중에서 1종 도서로 발행된 교과서가 14개 교과목에 이르고, 검정 대상이 된 2종 도서는 체육(전 학년), 음악(전 학년), 미술(전 학년), 사회과 부도(지도서 없음.), 서예와 한문(전 학년)이 전부였다.

(2) 검인정 교과서

제4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맞추어 1977년에 제정했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1982년에 개정하였고, 이 규정을 통하여 1종 도서의 범위를 재정립함으로써 2종 도서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1종 도서는 국가 정책의 실현과 국가관 확립에 유용한 반면, 교과서 저자와 출판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점에 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중·고등학교 1종 도서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국어, 도덕, 국민 윤리, 국사에 국한시키고, 나머지 교과들은 모두 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과용도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검정도서 출판사의 자격 기준을 이전보다 강화하여, 종래 ‘최근 3개년 간에 매년 5종 이상의 도서를 발행한 실적이 있는 출판사’에서 ‘10종 이상의 도서 발행 실적이 있는 출판사’로 개정하였다.

바. 제5차 교육과정기(1987. 3. ~ 1992. 6.)

제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제도는 이전 교육과정기와 큰 차이 없이, 1종 도서와 2종 도서를 양대 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제4차 교육과정기와 비교하여 제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편찬상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의 ‘1교과 1교과서’의 틀을 탈피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에 따라서는 2종 이상의 1종(국정) 교과서를 발행하였다.

둘째, 교과서 중앙 편찬 방식을 일부 탈피하여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교과서를 시·도별로 개발, 편찬하였다.

셋째, 2종 교과용도서의 수를 확대하고, 교과목당 합격 중 수를 확대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출판, 공급에 관한 행정 업무는 편수관실에서 관장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1종 도서의 경우에는 한국2종교과서협회가 출판을, 국정교과서주식회사가 공급 업무를 대행하였다. 이러한 공급 제도는 교과서의 적기 공급, 채택 비리 방지, 공급 비용의 최소화 등에서 긍정적인 면을 기대할 수 있지만, 교과서 주재원이나 보관 창고의 부족 등으로 교과서를 적기에 공급하는 데에 어려움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1) 국정 교과서

1970년대 후반부터 시행되어 오던 ‘위탁 개발형’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아 연구 기관이나 대학에 개발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에서도 개발 기관이 업무 전반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편수관이 편찬 계획을 수립한 후, 연구·개발 기관을 선정, 위탁하고, 편수관과 연구 기관이 상호 연계하여 개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과서 개발 형태는 교과서 개발에 참여 인원이 많아지고 많은 전문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편수관과 개발 기관 간에 업무의 중복과 의견 상충 등의 문제점도 있어서 부정적인 면도 드러내었다.

초등의 여러 교과에 적용된 ‘1교과 1교과서 탈피’는 교육과정 정신의 구현을 위한 자료를 보다 다양화하고, 현장에서 관행으로 이어져 온 암기 위주, 지식 전달 위주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하여 취해진 조치이다. 국어 교과는 종래의 단일 교과서에서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의 3개 교과서로, 산수 교과는 산수와 산수 익힘책의 2개 교과서로, 슬기로운 생활 교과도 슬기로운 생활과 관찰의 2개 교과서로, 실과 교과는 실과와 실습의 길잡이의 2개 교과서로 개편되었다.

초등 4학년 1학기용 교과서를 시·도 단위로 편찬한 것은 모든 교과서가 중앙에서 편찬되어 획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종래의 교과서 편찬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비록 교과목의 폭이 넓지는 않으나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교과서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2) 검인정 교과서

검정도서의 신청은 원고를 집필한 ‘저작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 추진의 주체는 출판사이고, 저작자는 출판사와 계약하에 원고료와 그 밖의 경비를 받고 모든 업무를 출판사에 일임하게 된다. 출원할 때에는 교과서 신청 가격의 400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국고에 납부하고,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차 심사는 문교부 장관이 위촉한 5명의 심사 위원이 검정 기준에 의거 평점제로 심사하고, 2차 심사는 가채본으로 1차 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 지시 이행 여부와 체제의 적합성 여부를 3명의 심사 위원이 심사한다. 적격 판정을 받은 교과서에 한하여 해당 지도서를 별도로 심사하고, 교과서와 지도서가 모두 적격 판정을 받은 도서만 최종 합격될 수 있었다.

합격본 중 수는 제4차 교육과정기의 5종에 비해 8종으로 확대되었다(중학교의 경우는 5종 유지). 종수의 확대는 저자의 독창적인 집필에 바탕을 둔 다양한 교과서의 출현을 기대한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검정 기준’, ‘집필상의 유의점’ 등의 규제가 있어 1종 도서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대두되었다.

중학교의 경우에 검정 신청 312종에 합격본이 45종, 고등학교의 경우에 검정 신청 513종에 합격본이 351종이었다.

사. 제6차 교육과정기(1992. 6. ~ 1997. 12.)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도서는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1종 도서는 대학 또는 연구 기관에 위탁하여 편찬하였고, 2종 도서는 교육부가 검정 신청을 공고하고, 저자의 신청을 받고 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최종 합격 도서를 발표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도서 편찬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구성 방침의 구현 및 국제 경쟁력의 강화 기여

둘째, 교과용도서의 내용 선정과 방법의 제시에 있어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도덕성, 바른 역사관, 민주

시민 의식과 창의성 강조

셋째, 교육의 질 관리에 실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로서의 기능 강화

넷째, 학생의 개성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지도와 생활 교육 및 자율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용 도서 편찬

(1) 국정 교과서

제6차 교육과정기에 정착된 1종 도서의 편찬 과정은 과거에 비하여 크게 달라진 면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1종 도서 연구·개발 기관을 선정, 위탁할 때 교육부의 각 교과별 편수 담당자가 편찬 능력과 연구 실적, 전문가 확보 여부, 편찬의 효율성 및 편의성 등 제반 편찬 조건을 더 면밀히 조사, 파악하여 담당자 책임 아래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편수 담당자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충분히 보장하였다. 이와 같이 편수 담당자에 대한 권한을 강화한 조치는 편수 담당자의 능력과 자질이 우수할 경우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추진 기관과의 불필요한 의견 조율 등의 과정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오히려 연구·개발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또, 도서 편찬 실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1종 도서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매년 중반기 이후에나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도서 편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 전년도부터 편수 관리실에서 사전 작업을 진행, 매년도 1~2월 초반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검인정 교과서

제6차 교육과정기에 따른 검정은 학교급별 일시 검정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중학교 교과용도서의 합격 종 수가 5종에서 8종으로 늘어났다. 고등학교 도서는 심사본 제출일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참고서가 필요 없는 자율 학습형 교과서로 전환하면서 심사도 일정 질을 유지하면 합격시키는 절대 평가제를 채택하였고, 심지어 최초 검정에서 불합격된 도서도 수정·보완을 전제로 재검정을 허락하여 합격 종 수가 최대 18종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 배경에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져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발행사의 강한 반발과 원망을 산 바 있다. 자율 학습형 교과서는 부교재와 지도서가 필요 없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으므로 발행사는 지도서를 제작하지 않았지만, 반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발행사에 지도서 제작을 요구하여 이중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 제6차 교육과정 검정에서는 초등 영어과 도서가 2종으로 전환되어 처음으로 초등학교에도 검정 교과서가 출현하게 되었고, 영어와 한문 교과서의 어휘 산정에 전산 처리 방식을 도입하여 검정 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일정한 성과를 올렸다.

아. 제7차 교육과정기(1997. 12. ~ 2007. 2.)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새로 편찬되는 교과용도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하여 학생의 자기 주도적 능력과 창의력 신장을 목표로 하였으며,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여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의 교과용도서 구분은 종래의 1종 도서, 2종 도서, 인정도서의 구분을 그대로 따르다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2002. 6.)으로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그 명칭을 재정립하였다. 교과서 공급 제도와 관련하여 생긴 변화로는, 재단 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2001학년도 교과서 공급분부터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지방 공급 조직을 흡수하여 교과용도서를 공급하도록 한 조치를 들 수 있다.

(1) 국정 교과서

국정 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과 맥을 같이하지만, 국정제에 초점을 두고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하는 교과용도서의 편찬

둘째,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에 적합한 교과용도서의 편찬

셋째,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용도서의 편찬

넷째, 연구·개발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교과용도서의 편찬

제6차 교육과정기의 초등 영어가 주위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검정도서에서 국정도서로 전환되었고, 교과용도서 발행권과 관련하여 생긴 변화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도서의 발행권 부여가 2002년부터 6개 출판사로 확대되어 교과서 발행이 다양한 체제로 이루어지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2) 검인정 교과서

교과용도서 관리 업무와 관련된 큰 변화 중의 하나로, 1998년 2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검인정도서 관리 업무가 국가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위탁되었다. 업무의 이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검정도서의 경우에 연차 검정의 도입과 교과서와 지도서의 분리 검정이 제도화되었다. 연차 검정이란, 종래의 검정에서 1, 2, 3학년용 도서를 한꺼번에 검정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매년 검정을 실시, 다음 해에 적격본만을 심사 대상으로 진입시키는 것을 말하며, 교과서와 지도서의 분리 검정이란, 종전에 교과서와 지도서를 동시에 검정하던 것을 지도서를 별개의 검정 단계로 분리시킨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기존의 유명무실한 검정 체제를 개선하여 검정도서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검정도서의 경우, 제5차, 제6차, 교육과정기에 국정도서로 되어 있던 고등학교 사회가 검정도서로 전환되었다. 한편, 인정도서의 경우, 고등학교에 인정도서심의회 심의가 없는 인정도서 목록을 제시하여 단위 학교에서 심의 절차를 거친 도서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의 승인으로 단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자. 2007 개정 교육과정기(2007. 2. ~ 2009. 12)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했다. 학습자 중심, 단위 학교에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철학 유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등 기본 체제를 유지하였다. 또한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확대하였으며, 재량 활동 운영 자율권 확대, 교과 집중 이수제 도입, 특성·자율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부여가 이루어졌다.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 목표 달성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용도서의 편찬이었다. 기본 방향은 학생의 학습 능력과 창의력 신장에 적합한 교과용도서 개발이었다.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교과용도서 편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 체제에 적합한 교과용도서 편찬,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용도서 편찬이었다. 그리고 교과서의 구성 체제에 대해서는 편찬상의 유의점을 통해 단위 구성에서 교과 특성 및 단위 성격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구성,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초·중·고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신청 자격은 2년간 20종 이상의 도서를 발행한 출판사였고, 검정합

격 유효 기간은 최초 사용부터 5년간이었다. 발행은 공동 인쇄 발행으로 발행자 자율책임공급제였으며, 전문 기관 감수제를 실시하였다. 국정교과용도서는 발행 대행사를 선정하여 발행하였다.

차. 2009 개정 교육과정기(2009. 12. ~ 2015. 8.)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1월 창의적인 ‘산지식’ 제공과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을 주요 골자로 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국어, 영어, 수학 과목부터 가정에서도 활동 가능한 e-교과서를 기존 서책형(종이) 교과서와 함께 CD 등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보급키로 하였다. 이러한 e-교과서는 CD 등의 형태로 보급할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 책을 두고 가정에서는 e-교과서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무거운 책가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e-교과서의 가격은 기존 서책형 교과서 가격에 포함하여 반영하도록 했으며, 의무교육인 초·중학생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등학생은 저소득층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학생 편의를 고려하여 종전 3권(듣기·말하기, 쓰기, 읽기)인 초등 3학년 국어 교과서를 2권(듣기·말하기·쓰기, 읽기)으로 합본토록 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으로서, 향후 학부모 만족도를 파악하여 향후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합본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둘째, 2011년부터 국정도서 145종(특목고 및 전문계고)과 검정도서 39종(고교 과학, 음·미·체 등)인 184종의 도서가 인정도서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국·검정 위주였던 교과서 체제가 비로소 인정 중심의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2007년 국정 56%, 검정 19%, 인정 25%에서 2010년에는 국정 39%, 검정 16%, 인정 45%로 전환되었다. 2012년까지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과서는 모두 인정 교과서로 전환되었고, 초·중·고 보통 교과의 경우에도 인정 교과서로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로써 향후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학습 자료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서적도 인정 절차만 거치면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어서 지식, 흥미,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준별 맞춤 수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인정도서는 국·검정도서에 비해 개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2년 6개월→6개월) 교과서 개발·채택·수정 등이 보다 유연해지는 장점이 있다. 인정도서는 검정에 속하지 않는 교과서를 말하는 것으로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 있다. 그러나 국·검정도서에 비해 학습자 친화적이며 보다 유연한 인정도서는 비교적 간편한 심사와 채택 절차 등으로 인해 교과서의 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정도서에 대해 최소한의 교과서로서의 품질을 유지하지 위하여 인정도서 과목별로 공모 등을 통해 전문 학술 기관 등을 인정도서 감수 기관으로 지정·운영하였다.

셋째, 검정 교과서 출원 자격을 완화하여 민간 출판사(저작자)뿐만 아니라 학회나 공공 기관의 검정 교과서 출원도 허용하였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기관의 교과서 편찬 참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다 재미있고 다양한 교과서 개발이 확대되었다. 그동안 외부 기관의 교과서 개발 참여는 국정 교과서 공동개발이나 인정 교과서 형태의 개발이 중심이었으나 검정 교과서에 대한 직접적인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넷째, 검정 심사 과정을 종래의 폐쇄형 합숙 심사 위주에서 개방형인 재택 심사 위주로 전환하였으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검정 심사 결과 보고서도 공개하였다. 이는 종전 불투명한 검정 심사 과정의 폐쇄성으로 인해 검정 결과까지도 불신하게 하였던 검정 시스템을 개선하여 개방형 검정으로 전환토록 한

것이다. 그리고 민간 출판사 간 과열 출원 경쟁을 막고 교과서 전문 출판사로의 육성을 위해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개별 출판사는 1종(국어, 영어, 수학은 2종까지)으로만 검정 교과서 출원을 허용하였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과다한 검정 출원(1발행사 과목별 복수 출원)으로 인한 지나친 과열 경쟁으로 출판사의 경영이 악화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합격 중수를 적정화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미래 사회에 대비할 ‘산 지식’을 적시에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합격 유효기간제(5년)’를 폐지하였다. 이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에 따른 교과서 개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섯째, 2011년 검정 출원되는 교과서부터 가격을 사전에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교과서 가격의 조정을 출판사에 권고함으로써 교과서 가격안정화를 도모하였다. 검정도서의 가격을 민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교과서 가격 결정에 대한 시장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된 것이다.

여섯째, 일선 학교에서의 교과서 채택 비리를 근절하고, 교과서 선정 및 채택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국·검정도서를 대폭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국정도서나 검정도서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내용을 즉시 교과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필진의 참여와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하기 쉬운 인정도서 체제가 확대된 것이다. 다만, 국가의 정체성과 이념적 편향성 논란 우려가 있는 교과는 검정 체제를 유지하고,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초등학교 일부 과목은 국정으로 유지하였다.

다음 표 <교과용도서 구분 중수 현황>은 인정도서 확대 정책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구 분	국 정	검 정	인 정	계
제7차 교육과정('97)	721(69%)	187(18%)	134(13%)	1,042
2007 개정 교육과정('11.2)	334(39%)	136(16%)	392(45%)	862
2009 개정 교육과정('11.8.9)	53(9%)	42(7%)	494(84%)	589

*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년군 단위 교과서 체제로 초·중학교 교과용도서의 중수 감소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을 보면 국정도서 9%, 검정도서 7%, 인정도서 84%이다. 인정도서가 확대됨에 따라 시·도 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교과용도서 전담 조직 설치, 인정도서 심사나 개발을 위한 공통 매뉴얼 제공, 시·도 인정도서 협의체 활성화 등의 행·재정적 지원이 추진되었다.

카. 2015 개정 교육과정기(2015. 9. ~)

교육부는 2015년 7월에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교과서 개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선 방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더 꼼꼼하고 깊이 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해 학생, 교사 및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과서, 학생들이 쉽게 활용하고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서로 거듭나도

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도서의 현장 적합성 검토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국정도서는 최종본을 공급하기 전에 현장 검토를 위해 연구 학교를 중심으로 실험본을 시범 적용하였다. 그러나 실험본의 완성도를 높이고, 기존 교과서와 동시 적용함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현장 검토본에 대한 내용 오류 및 표현·표기의 정확성 등에 대한 감수 및 심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 학교 중심의 현장 검토 방식을 개선하여 ‘연구 학교, 교사 연구회, 전문가 검토’를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검정도서를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심사 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검정도서는 집필 기간을 대폭 늘려(최소 1년 이상) 보다 질 좋은 교과서를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 검정도서는 전 교과목을 일시에 집필 후 한꺼번에 심사를 실시하여 부담이 컸으나, 학년과 학기가 구분되는 교과서는 연차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다. 검정심사를 합격한 도서 중에서도 내용 오류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검정심사 중 본심사를 세분화하여 합격 판정 전에 수정·보완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두는 등 보다 엄정한 심사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심사에서 보다 심도 있는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는 전문기관 등에서 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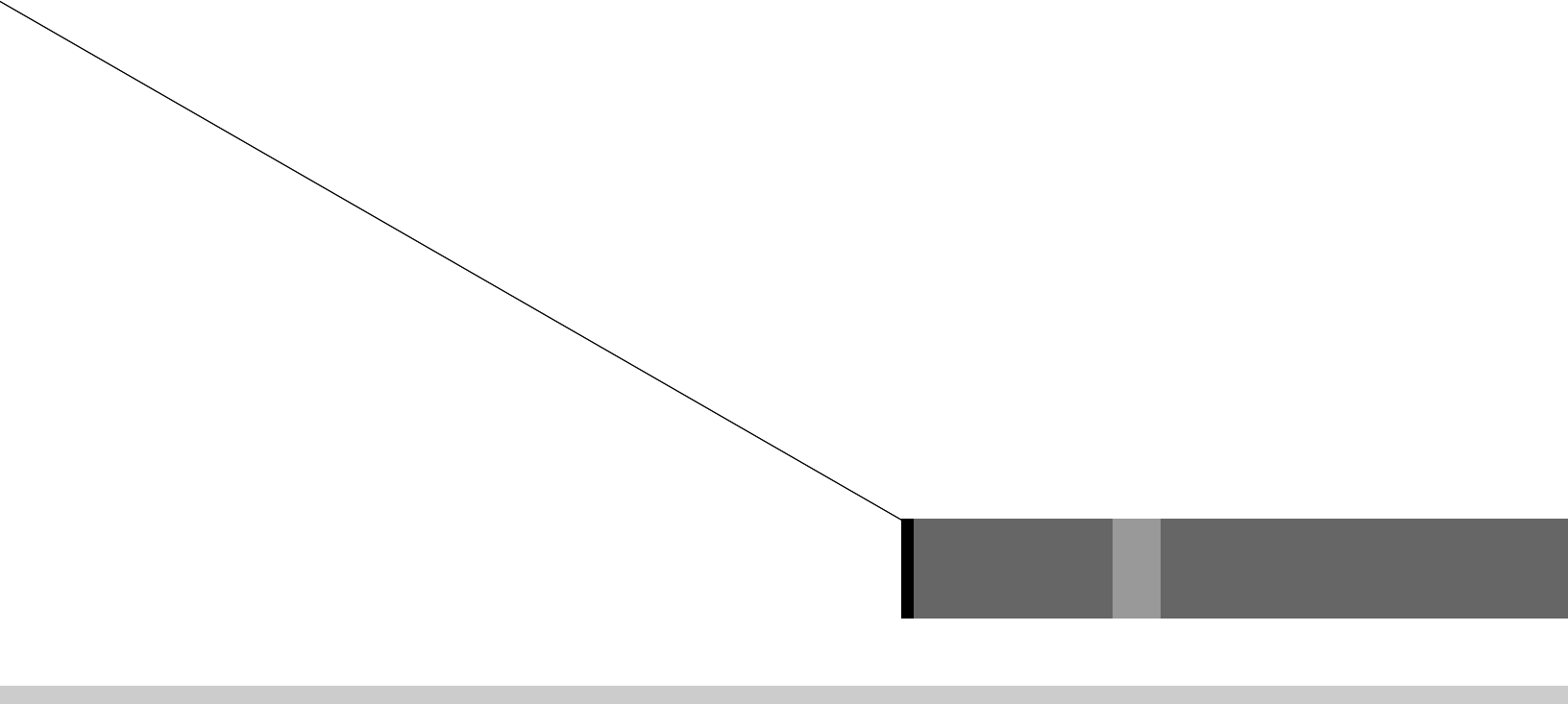
셋째, 인정도서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교과서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인정도서는 그동안 교과목에 한하던 것을 비교과 활동(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의 도서도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인정 신청을 하여 시·도교육감이 인정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과서의 자율적 사용이 요구되는 교과목은 국·검·인정도서 구분에서 제외하여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개발, 선정·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개발한 학습자료를 인정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넷째, 교과용도서 개발을 지원하고 가격 안정화하도록 하였다. 교과용도서 개발 지원을 위해 개발 주체인 출판사와 집필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항의 연혁을 관리하고, 온라인을 통해 상시 안내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여 출판사가 최고 가격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과서 가격을 정하도록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공통)에 따르면 교과용도서의 편찬 방향은 다음과 같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용도서 개발의 기본 방향을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에 적합하며, 핵심역량 함양을 도모하는 실생활 중심의 교과용도서 개발”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는 교과용도서 편찬, 바른 인성과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과용도서 편찬,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용도서 편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부는 2015년 10월에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정도서 구분 고시(제2015-76호)’를 발표하고, 2015년 11월에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도서 구분 고시(제2015-78호)’를 발표하였다. 이

에 따르면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 검·인정도서로 분류되었던 과목 중 일부가 국·검정도서로 전환되었다. 중학교의 경우, 역사 교과서 및 지도서가 검정도서에서 국정도서로 전환되었으며, 수학, 과학, 영어 교과서의 교과용도서가 인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전환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도서에서 국정도서로 전환되었으며, 수학, 과학, 영어 교과서의 일반선택 과목 교과용도서가 인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전환되었다.



Ⅱ.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1. 교육과정의 성격
2.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3.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4.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5.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 다.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 마.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2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2)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을 강화한다.
- 나. 교과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 다.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 라.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 마. 교과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 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한다.

3) 학교 급별 교육 목표

가. 초등학교 교육목표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 (3)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 (4)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나. 중학교 교육 목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 (4)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다. 고등학교 교육 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성숙한 자아의식과 바른 품성을 갖추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 (2)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 (3) 인문·사회·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 (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3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 사항

- 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 나.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 다.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 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습을 강화하고 진로 및 적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과(군)별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의 4개 교과 영역과 전문 교과로 구분하고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 마.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며,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한다.
- 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여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사.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둔다.
- 아.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 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2) 초등학교

가.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나)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다만, 1, 2학년은 체험 활동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포함하여 편성·운영한다.

(2) 시간 배당 기준

구 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 과 (군)	국어	국어 448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학	수학 256	272	272
	과학/실과	바른 생활 128	204	340
	체육	즐거로운 생활 192	204	204
	예술(음악/미술)	즐거로운 생활 384	272	272
	영어		136	204
	소계	1,408	1,768	1,972
창의적 체험활동		336 안전한 생활 (64)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1,744	1,972	2,176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④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 시수에만 포함된 것이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1) 학교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 기초 학습 능력,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2) 학교는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할 교과를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 (3) 학교는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특히 국어 사용 능력과 수리 능력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 (5) 학교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년별, 학기별로 교과 집중 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 (6)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7)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복식 학급을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

- 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8)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년(군)별로 선택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9)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10)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중학교

가.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 (가)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나)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 (다) 선택 교과는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으로 한다.
- (라)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시간 배당 기준

구 분		1~3학년
교 과 (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정보	680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170
	소계	3,060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총 수업 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④ 정보 과목은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운영한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1) 학교는 3년간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 (2)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그에 따른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3)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 (4) 학교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이수 교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
- (5)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6) 학교가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 (7)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8)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및 자유학기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9)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자유학기를 운영한다.
 - (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 (나) 자유학기에는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유학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운영한다.
 - (다) 자유학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 (라) 자유학기에는 협동 학습,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한다.
 - (마) 자유학기에는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식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 (바) 자유학기에는 학교 내외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지원한다.
 - (사) 학교는 자유학기의 운영 취지가 타 학기·학년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10) 학교는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발달시키고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운영한다.
 - (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한다.
 - (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운영하며,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68시간 운영하는 학년에는 34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시간은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한다. 다만,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68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창

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확보할 수 있다.

- (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과 내용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4) 고등학교

가.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 편제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① 보통 교과

㉠ 보통 교과의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 포함)으로 하며,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전문 교과

㉢ 전문 교과는 전문 교과Ⅰ과 전문 교과Ⅱ로 구분한다.

㉣ 전문 교과Ⅰ은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 전문 교과Ⅱ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경영·금융, 보건·복지, 디자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음식 조리, 건설,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섬유·의류,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 가공, 인쇄·출판·공예, 환경·안전, 농림·수산해양, 선박 운항 등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전문 교과Ⅱ의 과목은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으로 구분한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단위 배당 기준

(가)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교과(군)	기초	국어	국어(8)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2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		10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16	
	소계			94	86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공통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 ④ 과학탐구실험은 이수 단위 증감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⑤ 필수 이수 단위의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로 공통 과목 단위 수를 포함한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예술 교과(군)는 5단위 이상, 생활·교양 영역은 12단위 이상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 ⑥ 기초 교과 영역 이수 단위 총합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⑦ 창의적 체험활동의 단위는 최소 이수 단위이며 ()안의 숫자는 이수 단위를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 ⑧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나)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교과(군)	보통 교과	기초	국어	국어(8)	24	학생의 적성·진로와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영어	영어(8)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2		
			과학	통합과학(8)			
		체육·예술	체육		8		
			예술		6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0		
	소계				66		28
	전문 교과Ⅱ	17개 교과(군) 등			86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공통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 ④ 필수 이수 단위의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 ⑤ 창의적 체험활동의 단위는 최소 이수 단위이며 ()안의 숫자는 이수 단위를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 ⑥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 ① 일반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각 과목별로 1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며, 가능한 한 한 학기에 이수하도록 한다.
- ② 기본 과목과 심화 과목의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 ③ 위 표에 제시된 과목 중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의 ‘한국사’는 반드시 이수한다.
- ③ 예술계열 고등학교 이외의 고등학교에서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3) 보통 교과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 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역사/ 도덕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 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 반
	제2외국어		독일어 I 일본어 I 프랑스어 I 러시아어 I 스페인어 I 아랍어 I 중국어 I 베트남어 I	독일어 II 일본어 II 프랑스어 II 러시아어 II 스페인어 II 아랍어 II 중국어 II 베트남어 II
	한문		한문 I	한문 II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 ① 선택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다.
- ② 교양 교과목을 제외한 일반 선택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교양 교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체육 교과는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현장 실습이 있는 학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전문 교과

(가) 전문 교과 I

교과(군)	과목			
과학 계열	심화 수학 I	심화 수학 II	고급 수학 I	고급 수학 II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정보과학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생태와 환경
체육 계열	스포츠 개론	체육과 진로 탐구	체육 지도법	육상 운동
	체조 운동	수상 운동	개인·대인 운동	단체 운동
	체육 전공 실기 기초	체육 전공 실기 심화	체육 전공 실기 응용	
	스포츠 경기 체력	스포츠 경기 실습	스포츠 경기 분석	
예술 계열	음악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음악 전공 실기
	합창	합주	공연실습	
	미술 이론	미술사	드로잉	평면 조형
	입체 조형	매체 미술	미술 전공 실기	
	무용의 이해	무용과 몸	무용 기초 실기	무용 전공 실기
	무용 음악 실습	안무	무용과 매체	무용 감상과 비평
	문예 창작 입문	문학 개론	문장론	문학과 매체
	고전문학 감상	현대문학 감상	시 창작	소설 창작
	극 창작			

교과(군)	과목			
	연극의 이해 연극 감상과 비평 영화 제작 실습 사진의 이해 사진 표현 기법	연기 영화의 이해 영화 감상과 비평 기초 촬영 영상 제작의 이해	무대기술 영화기술 암실 실기 사진 영상 편집	연극 제작 실습 시나리오 중급 촬영 사진 감상과 비평
외국어 계열	심화 영어 회화 I 심화 영어 독해 I 전공 기초 독일어 독일어 독해와 작문 II 전공 기초 프랑스어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 II 전공 기초 스페인어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 II 전공 기초 중국어 중국어 독해와 작문 II 전공 기초 일본어 일본어 독해와 작문 II 전공 기초 러시아어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 II 전공 기초 아랍어 아랍어 독해와 작문 II 전공 기초 베트남어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 II	심화 영어 회화 II 심화 영어 독해 II 독일어 회화 I 독일어 회화 II 독일어권 문화 프랑스어 회화 I 프랑스어권 문화 스페인어 회화 I 스페인어권 문화 중국어 회화 I 중국 문화 일본어 회화 I 일본 문화 러시아어 회화 I 러시아 문화 아랍어 회화 I 아랍 문화 베트남어 회화 I 베트남 문화	심화 영어 I 심화 영어 작문 I 독일어 회화 II 프랑스어 회화 II 스페인어 회화 II 중국어 회화 II 일본어 회화 II 러시아어 회화 II 아랍어 회화 II 베트남어 회화 II	심화 영어 II 심화 영어 작문 II 독일어 독해와 작문 I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 I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 I 중국어 독해와 작문 I 일본어 독해와 작문 I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 I 아랍어 독해와 작문 I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 I
국제 계열	국제 정치 한국 사회의 이해 현대 세계의 변화	국제 경제 비교 문화 사회 탐구 방법	국제법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사회과제 연구	지역 이해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① 전문 교과 I 과목의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② 국제 계열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 계열 과목에서 선택하여 이수한다.

(나) 전문 교과 II

교과(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경영·금융	성공적인 직업생활	상업 경제 기업과 경영 사무 관리 회계 원리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기업 자원 통합 관리 세무 일반 유통 일반 국제 상무 비즈니스 영어 금융 일반 보험 일반 마케팅과 광고 창업 일반 커뮤니케이션 전자 상거래 일반	총무 비서 사무 행정 회계 실무 구매 조달 공정 관리 공급망 관리 수출입 관리 금융 상품 세일즈 증권 거래 업무 보험 모집 고객 관리 매장 판매 노무 관리 인사 예산·자금 세무 실무 자재 관리 품질 관리 물류 관리 창구 사무 카드 영업 무역 금융 업무 손해 사정 전자 상거래 실무 방문 판매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보건·복지		인간 발달	영·유아 놀이 지도 영·유아 교수 방법	보육과

교과(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보육 원리와 보육 교사 보육 과정 아동 생활 지도 아동 복지 보육 실습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복지 서비스의 기초 사회 복지 시설의 이해 공중 보건 간호의 기초 보건 간호 기초 간호 임상 실무	영·유아 건강·안전·영양 지도 사회 복지 시설 실무 대인 복지 서비스	사회복지과 보건간호과
디자인· 문화 콘텐츠		디자인 제도 디자인 일반 조형 색채 관리 컴퓨터 그래픽 미디어 콘텐츠 일반 문화 콘텐츠 산업 일반 영상 제작 기초	시각 디자인 실내 디자인 영화 콘텐츠 제작 광고 콘텐츠 제작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캐릭터 제작 제품 디자인 방송 콘텐츠 제작 음악 콘텐츠 제작 게임 콘텐츠 제작 만화 콘텐츠 제작 스마트 문화 앱 콘텐츠	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미용·관광· 레저		미용의 기초 미용 안전·보건 관광 일반 관광 사업 관광 서비스 관광 영어 관광 일본어 관광 중국어	헤어 미용 메이크업 여행 서비스 실무 호텔 식음료 서비스 실무 피부 미용 네일 미용 호텔 객실 서비스 실무 카지노·유원 시설 서비스	미용과 관광·레저과
음식 조리		식품과 영양 급식 관리	한국 조리 중식 조리 소믈리에 바텐더 서양 조리 일식 조리 바리스타	조리·식음료과
건설		공업 일반 기초 제도 토목 일반 토목 도면 해석과 제도 토목 기초 실습 건축 일반 건축 도면 해석과 제도 건축 기초 실습 조경	토공·포장 시공 지적 건축 목공 시공 창호 시공 철근 콘크리트 시공 조경 시공 조경 설계 측량 공간 정보 구축 건축 도장 시공 단열·수장 시공 건축 마감 시공 조경 관리	토목과 건축시공과 조경과
기계		기계 제도 기계 기초 공작 전자 기계 이론 기계 일반 자동차 일반 냉동 공조 일반 유체 기계 자동차 기관 자동차 채시 자동차 전기·전자 제어 선체 도면 독도와 제도	기계요소 설계 선반 가공 연삭 가공 측정 방전 가공 워터젯 가공 사출 금형 설계 사출 금형 품질 관리 프레스 금형 설계 프레스 금형 품질 관리 기계 수동 조립 기계 제어 설계 밀링 가공 컴퓨터 활용 생산 성형 가공 레이저 가공 플라스마 가공 사출 금형 제작 사출 금형 조립 프레스 금형 제작 프레스 금형 조립 운반 하역 기계	기계과 냉동공조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교과(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선박 이론 선박 구조 선박 건조 항공기 일반 항공기 실무 기초	설치·정비 건설 광산 기계 설치·정비 섬유 기계 설치·정비 공작 기계 설치·정비 고무 플라스틱 기계 설치·정비 농업용 기계 설치·정비 승강기 설치·정비 냉동 공조 설계 냉동 공조 설치 냉동 공조 유지·보수 관리 자동차 전기·전자 장치 정비 자동차 엔진 정비 자동차 새시 정비 자동차 차체 정비 자동차 도장 자동차 정비 검사 선체 가공 선박 도장 선체 조립 선체 품질 관리 기장 생산 전장 생산 선장 생산 선체 생산 설계 항공기 기체 제작 항공기 엔진·프로펠러 제작 항공기 전기·전자 장비 제작 항공기 기체 정비 항공기 가스 터빈 엔진 정비 항공기 왕복 엔진 정비 항공기 프로펠러 정비 항공기 계통 정비 항공기 전기·전자 장비 정비 헬리콥터 정비 항공기 정비 관리	
재료		재료 시험 세라믹 재료 세라믹 원리·공정 재료 일반 산업 설비	주조 제강 금속 재료 가공 압연 도금·도장 광학 재료 생체 세라믹 재료 내화물 도자기 탄소 제품 배관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선 금속 열처리 금속 재료 신뢰성 시험 비철 금속 제련 전기·전자 재료 내열 구조 재료 유리·법랑 연삭재 시멘트 판금 제관 피복 아크 용접 이산화탄소·가스 메탈 아크 로봇 용접	금속재료과 세라믹과 산업설비과
화학 공업		공업 화학 제조 화학 단위 조작	화학 분석 공정 제어 고분자 제품 제조 정밀 화학제품 제조 플라스틱 성형과 가공 관리 화학 물질 관리 석유 화학제품 무기 공업 화학 바이오 화학제품 제조 생산 품질 관리와 설비	화학공업과
섬유·의류		섬유 재료 섬유 공정 염색·가공 기초 의류 재료 관리 패션 디자인의 기초 의복 구성의 기초 패션 마케팅	방직 제포 텍스타일 디자인 생산 현장 관리 패턴 메이킹 서양 의복 구성과 생산 니트 의류 생산 가족·모피 디자인과 생산 패션 소품 디자인과 생산 한국 의복 구성과 생산 패션 상품 유통 관리	섬유과 의류과
전기·전자		전기 회로	수력 발전 설비 운용 화력 발전 설비 운용	전기과

교과(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전기 기기 전기 설비 자동화 설비 전기·전자 기초 전자 회로 전기·전자 측정 디지털 논리 회로	원자력 발전 설비 운용 전기 기기 제작 외선 공사 자동 제어 시스템 운용 철도 신호 제어 시공 운용 전자 부품 개발 전자 기기 개발 정보 통신 기기 개발 정보 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반도체 제조 디스플레이 생산 로봇 하드웨어 개발	송변전 배전 설비 운용 내선 공사 자동 제어 기기 제작 전기 철도 시공 운용 전자 부품 생산 전자 기기 소프트웨어 정보 통신 기기 개발 반도체 개발 반도체 재료 제조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과
정보·통신		통신 일반 통신 시스템 정보 통신 방송 일반 정보 처리와 관리 컴퓨터 구조 프로그래밍 자료 구조 컴퓨터 시스템 일반 컴퓨터 네트워크	무선 통신 구축·운용 초고속망 서비스 관리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컴퓨터 보안 소프트웨어 구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유선 통신 구축·운용 방송 제작 시스템 운용 시스템 운영 및 네트워크 시스템 프로그래밍 응용 프로그래밍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식품 가공		식품 과학 식품 위생 식품 가공 기술 식품 분석	곡물 가공 수산 식품 가공 두류 식품 가공 건강 기능 식품 가공 김치·반찬 가공 제과	식품 품질 관리 면류 식품 가공 축산 식품 가공 유제품 가공 음료·주류 가공 제빵	식품가공과
인쇄·출판 ·공예		인쇄 일반 디지털 이미지 재현 출판 일반 공예 일반 공예 재료와 도구	프리프레스 특수 인쇄 출판 편집 도자기 공예 석공예 보석 감정	평판 인쇄 후가공 금속 공예 목공예 섬유 공예 보석 디자인	인쇄·출판과 공예과
환경·안전		환경 화학 기초 인간과 환경 산업 안전 보건 기초	환경 보건 관리 환경 생태 관리 환경 측정 관리 전기 안전 관리 화공 안전 관리	환경 공정 관리 생활 환경 관리 기계 안전 관리 건설 안전 관리 비파괴 검사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농림·수산 해양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경영 재배 농촌과 농지 개발 농산물 유통 농산물 유통 관리 농산물 거래 관광 농업 환경 보전 친환경 농업 생명 공학 기술	수도작 재배 종자 생산 농촌 체험 상품 개발 채소 재배 화훼 재배 임업 종묘 산림 이용 임산물 생산 펄프 제조 가금 사육 한우 사육 말 사육	전특작 재배 농업 환경 개선 농촌 체험 시설 운영 과수 재배 화훼 장식 산림 조성 산림 보호 버섯 재배 목재 가공 젖소 사육 돼지 사육 종축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교과(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농업 정보 관리 농산 식품 가공 원예 생산 자재 조경 식물 관리 화훼 장식 기초 산림 휴양 산림 자원 임산 가공 동물 자원 반려동물 관리 실험 동물과 기타 가축 농업 기계 농업 기계 공작 농업 기계 운전·작업 농업과 물 농업 토목 제도·설계 농업 토목 시공·측량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해양 생산 일반 해양 정보 관리 해양 오염·방제 전자 통신 기초 전자 통신 운용 수산 일반 수산 생물 수산 양식 일반 수산 경영 수산물 유통 양식 생물 질병 해양 환경과 자원 해양 레저 관광 요트 조종 잠수 기술	사료 생산 연안 어업 원양 어업 염 생산 어업 환경 개선 내수면 양식 수산 생물 질병 관리 어촌 체험 상품 개발 동물 약품 제조 근해 어업 내수면 어업 어업 자원 관리 해면 양식 수산 종묘 생산 어촌 체험 시설 운영 수상 레저 기구 조종	
선박 운항		항해 기초 해사 일반 해사 법규 선박 운용 선화 운송 항만 물류 일반 해사 영어 항해사 직무 해운 일반 열기관 선박 보조 기계 선박 전기·전자 기관 실무 기초 기관 직무 일반	항해 선박 기관 운전 선박 통신 선박 감판 관리	항해과 기관과

① 전문 교과Ⅱ 과목의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은 모든 교과(군)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공통 사항

-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군)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408시간)로 나누어 편성한다.
- (나) 학교는 3년간 이수해야 할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 (다) 학교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한다. 단, 과학탐구실험, 체육·예술·교양 교과목, 진로 선택 과목, 실기·실습 과목은 이수 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라) 과목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바)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 (아)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자)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차)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카)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를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군)의 과목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 (타)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학생의 진로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파)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와 연계하여 선택 과목 이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2) 일반계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 (가)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94단위 이상으로 한다.
- (나) 학교는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군)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다) 학교는 학생이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모든 학생이 보통 교과(군)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라) 학교가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마)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 편성 단위의 50% 이상을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 (바)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 사회 학습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사) 학교는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3)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 (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는 85단위 이상 편성하며, 전공 관련 전문 교과 I 을 72단위 이상 편성한다.
- (나)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이와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전문 교과 I 의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다)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I 의 총 이수 단위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를 포함한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 I 의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 (라) 국제 계열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 I 의 국제 계열 과목과 외국어 계열 과목을 72단위 이상 이수 하되, 국제 계열 과목을 50% 이상 편성한다.
- (마)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가)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① 학교는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를 66단위 이상, 전문 교과Ⅱ를 86단위 이상 편성한다.
 - ② 학교는 두 개 이상의 교과(군)의 과목을 선택하여 전문 교과Ⅱ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실무 과목을 편성할 경우, 해당 과목의 내용 영역(능력단위)을 기준으로 학년별, 학기별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④ 실무 과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성취기준에 적합하게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나) 학과는 필요한 경우 세부 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세부 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별로 전문 교과를 편성할 수 있다.
- (다) 전문 교과Ⅱ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 (라)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 I 의 과목을 전문 교과Ⅱ의 과목으로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마)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중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는 해당 교과(군)의 공통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배) 학교는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 교과Ⅱ의 교과 내용에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단,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내용 영역(능력단위)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세)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 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학교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 ② 현장 실습은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애) 학교는 실습 관련 과목을 지도할 경우 사전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 장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취한다.
- (재)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진로 및 경력 개발, 인성 계발, 취업 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차)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교과(군)의 교육과정은 유사한 교과(군)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교과(군)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캐)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실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와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교육과정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페)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 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편성·운영 기준에 따른다.

5)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 다.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1시간의 수업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2)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재외한국학교 등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재외한국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
- 사.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기본 사항

- 가.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나.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군)별 교육과정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다.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한다.
- 라.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산업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 마.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군별 목표 달성을 위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 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 아. 학교는 학생의 요구, 학교의 실정 및 특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활동,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자.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다.
- 차.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카. 학교는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하여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타.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파.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2) 교수·학습

- 가. 학교는 교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1) 교과의 학습은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 (2) 각 교과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및 기능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폭과 깊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
 - (3) 학생의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교과 내,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 (4)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조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5) 개별 학습 활동과 함께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학습 경험을 충분히 제공한다.
 - (6)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토의·토론 학습을 활성화한다.
 - (7)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실제적 맥락 속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 (8)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나. 학교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 (1)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 (2)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도록 한다.
 - (3) 학교는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운영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4)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한다.
 - (5) 학교는 교과용도서 이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6) 실험 실습 및 실기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및 기계 기구,약품, 용구 사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3) 평가

- 가.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1) 학교는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학생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나.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며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1)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 (2)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3) 학교는 학생의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다. 학교는 교과와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 (1)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 (2)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3)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4) 창의적 체험활동은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결정하여 평가한다.
 - (5) 전문 교과Ⅱ의 실무 과목은 성취 평가제와 연계하여 내용 요소를 구성하는 ‘능력단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 가.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종교, 이진 거주지, 인종, 민족 등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나.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 다.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특수 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라.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 마.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중립 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

5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국가 수준의 지원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가.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나.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1) 교과별, 학년(군)별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학력의 질 관리와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 및 개선에 활용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 학력과 평생 학습 역량의 강화를 위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기초 학력과 직업 기초 능력의 향상,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계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다. 학교에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1) 교과별로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을 개발·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라.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기준 학과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이나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관련 교과용도서와 교수·학습 자료 개발, 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바. 이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수준의 교원 연수와 전국 단위의 교과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사.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및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가. 시·도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1) 이 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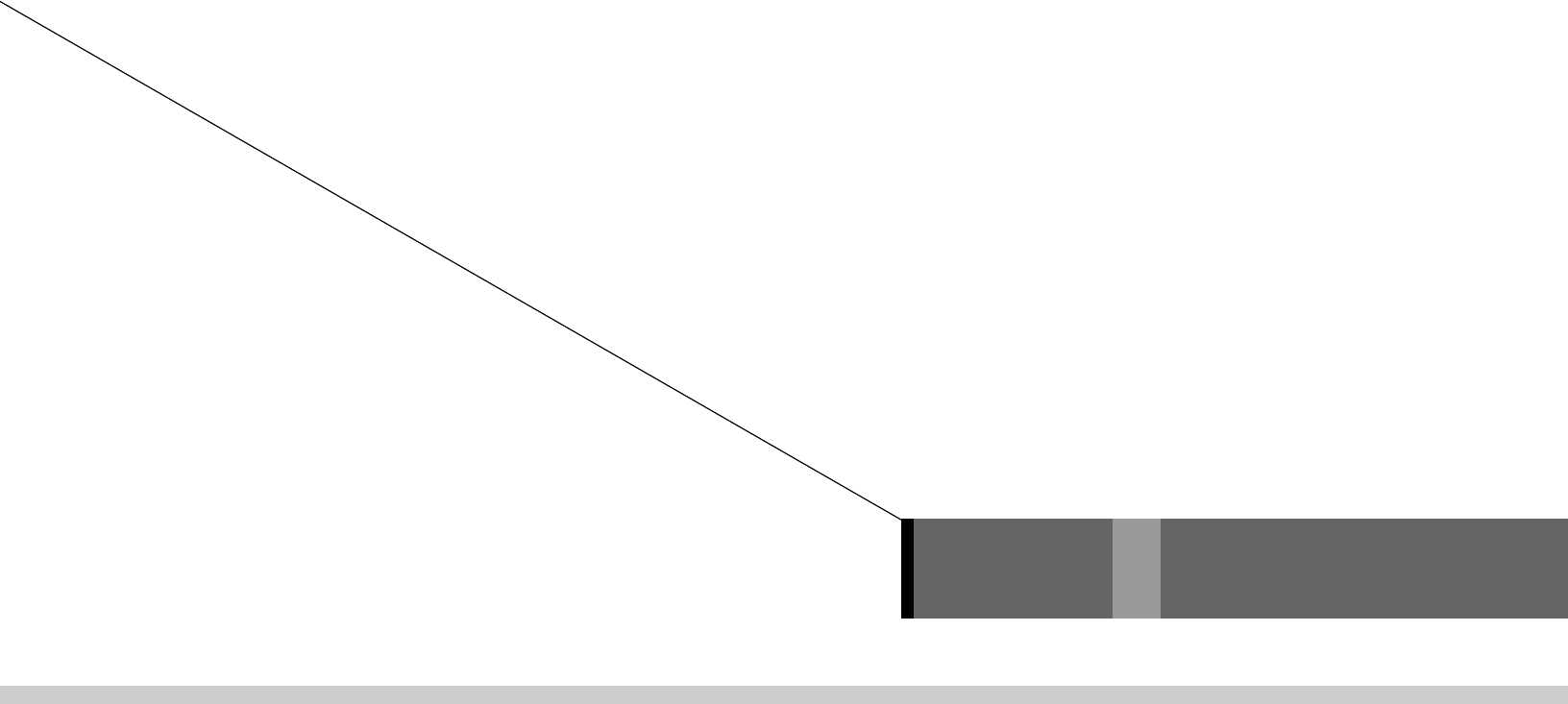
- (2)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산 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나.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청 단위의 교육 중 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도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 다.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 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과용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 마.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포함된 자유학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 사.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아.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수급 및 순회,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과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교육지원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 자.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와 고등학교 공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 차.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 카.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 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교육과정 컨설팅, 연구학교 운영 및 연구회 활동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1)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2)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 지원 기구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3)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과 수업 개선을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연구 교사제 및 교과별 연구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파. 학교가 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2)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 수급, 시설 확보,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3)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4)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결손 보충이 가능하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5)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6) 개별 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내 학교 간 개설할 집중 과정을 조정하고, 그 편성·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 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7)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읽기 능력 함양을 위해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 (8)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 과목을 편성·운영할 경우, 학생의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하.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시한다.

- (1)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 (3)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대한 자체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에 대한 점검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Ⅲ. 교과용도서의 편찬

1. 교과용도서 정책 방향
2. 교과용도서의 편찬 방향
3. 국정도서의 편찬
4. 검정도서의 편찬
5. 인정도서의 편찬

1 교과용도서 정책 방향

- 교과용도서 정의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959호, 2015.1.6.) 제2조(정의) 근거
- 교과용도서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함.
 - 교과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함.
 - 지도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함.
 - 교과용도서는 국정, 검정, 인정도서로 구분됨(<표 1> 참조).
 -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함.
 - 검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함.
 - 인정도서는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함(시·도교육감에게 위임)

<표 III-1> 국·검·인정도서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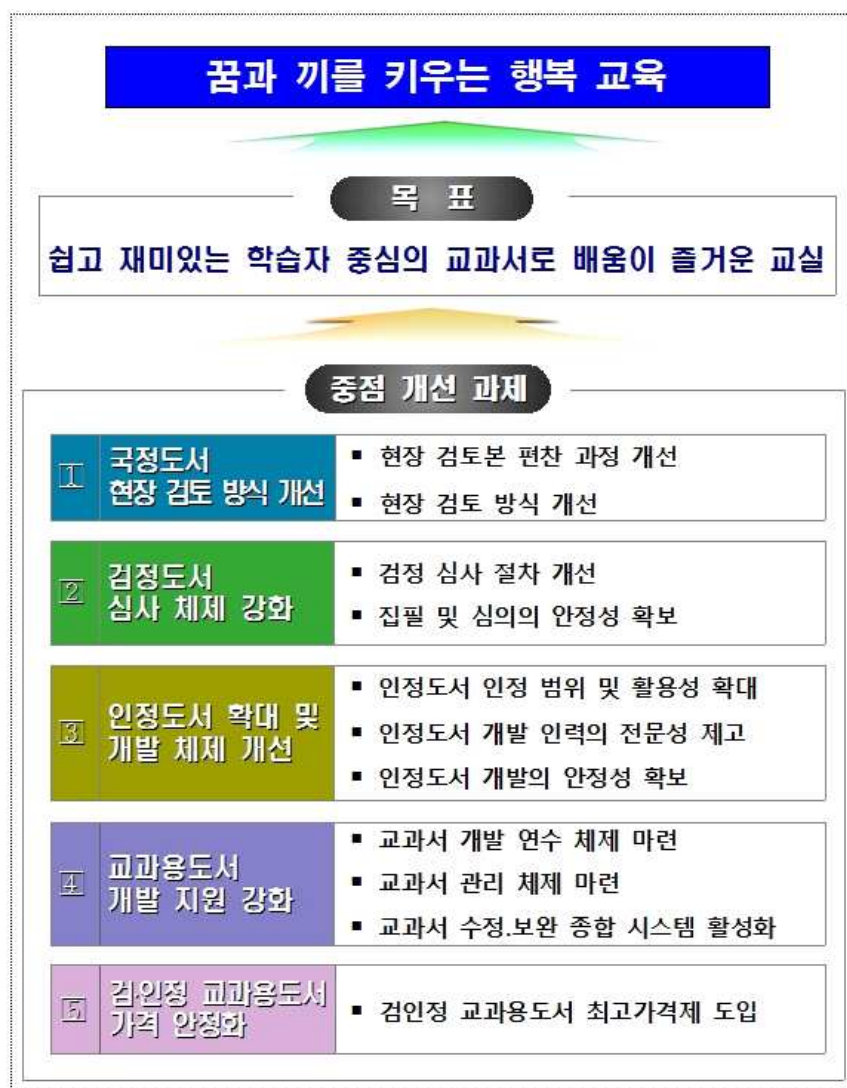
구분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정의	·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	·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심의권자	· 장관(심의위원 위촉)	· 장관(검정심사기관에게 위탁)	· 장관(시도교육감에게 위임)
절차	· 편찬→심의	· 개발→심의→선정	· 개발→신청→심의→선정
저작자(발행권자)	· 교육부장관	· 저작자(발행사)	· 저작자(발행사)
과목	· 초·중등 교과용도서 국·검·인정도서 구분 고시에 따름	· 좌동	· 국·검정도서 이외의 교과용도서

- 정부는 2013년 5월 23일 ‘창의교육-박근혜정부 국정과제’를 통해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마련’이라는 교과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 현행 교육과정을 토대로 핵심역량(성취기준)을 개발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등을 유도하기 위해 교과서 개선 및 지원 강화를 추진함.
 - 서책형 교과서와 연계한 디지털교과서(교수학습자료)의 개발로 언제, 어디서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중심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2015년 7월 30일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을 통해 ‘교과용도서 집필 및 심사 체제 등의 개

발 체제 전반의 개선을 통한 양질의 교과서 개발·활용으로 배움이 즐거운 교실 수업의 변화 주도' 하는 방안을 발표함.

- 국정도서는 현장 적합성 검토 이전 단계의 편찬 과정을 개선하여 현장검토본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연구학교와 함께 현장 교사 및 전문가 중심의 현장적합성 검토를 병행하고자 함.
- 검정도서는 교과용도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정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인정도서는 인정도서 질 제고와 교과서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과목 외의 비교과 활동 등의 도서도 인정·사용하도록 인정도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이와 함께 인정도서 개발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인정도서 개발 기간과 심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그림 III-1]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 출처: 교육부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 보도자료(2015.7.30.) p.2

■ 2015년 10월 21일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정도서 구분 고시(제2015-76호)’와 2015년 11월 3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도서 구분 고시(제2015-78호)’에 따르면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 검·인정도서로 분류되었던 과목 중 일부가 국·검정도서로 전환되었음.

- 중학교 : 역사 교과서 및 지도서가 검정도서에서 국정도서로 전환되었으며, 수학, 과학, 영어 교과서의 교과용도서가 인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전환되었음.
- 고등학교 :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도서에서 국정도서로 전환되었으며, 수학, 과학, 영어 교과서의 일반선택 과목 교과용도서가 인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전환되었음.

<표 III-2> 국·검·인정도서 대상 과목수 변화(7차 교육과정 이후)

(단위: 종, %)

구 분	국 정	검 정	인 정	계
제7차 교육과정('97)	721 (69.2)	187 (17.9)	134 (12.9)	1,042 (100.0)
2007 개정 교육과정('07)	537 (56.1)	181 (18.9)	239 (25.0)	957 (100.0)
2009 개정 교육과정('09)*	334 (39.2)	136 (16.0)	382 (44.8)	852 (100.0)
2009 개정 교육과정('11)**	53 (9.0)	42 (7.0)	494 (84.0)	589 (100.0)
2015 개정 교육과정('15)	138 (14.8)	107 (11.5)	685 (73.7)	930 (100.0)

※ * : 총론개정, ** : 각 교과 개정

■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정도서 구분 고시(제2015-76호)

【국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주제별 교과서 8책 【8책】	학기별 지도서 4책 (전자저작물 CD 포함) 【4책】
국어	국어(1~2학년군) 1-1, 1-2, 2-1, 2-2 국어(3~4학년군) 3-1, 3-2, 4-1, 4-2 국어(5~6학년군) 5-1, 5-2, 6-1, 6-2 국어활동(1~2학년군) 1-1, 1-2, 2-1, 2-2 국어활동(3~4학년군) 3-1, 3-2, 4-1, 4-2 【20책】	국어(1~2학년군) 1-1, 1-2, 2-1, 2-2 국어(3~4학년군) 3-1, 3-2, 4-1, 4-2 국어(5~6학년군) 5-1, 5-2, 6-1, 6-2 (전자저작물 CD 포함) 【12책】
사회/도덕	사회(3~4학년군) 3-1, 3-2, 4-1, 4-2 사회(5~6학년군) 5-1, 5-2, 6-1, 6-2 사회과 부도 5~6 【9책】	사회(3~4학년군) 3-1, 3-2, 4-1, 4-2 사회(5~6학년군) 5-1, 5-2, 6-1, 6-2 (전자저작물 CD 포함) 【8책】
	도덕(3~4학년군) 3, 4 도덕(5~6학년군) 5, 6 【4책】	도덕(3~4학년군) 3, 4 도덕(5~6학년군) 5, 6 (전자저작물 CD 포함) 【4책】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수학	수학(1~2학년군) 1-1, 1-2, 2-1, 2-2 수학(3~4학년군) 3-1, 3-2, 4-1, 4-2 수학(5~6학년군) 5-1, 5-2, 6-1, 6-2 수학익힘(1~2학년군) 1-1, 1-2, 2-1, 2-2 수학익힘(3~4학년군) 3-1, 3-2, 4-1, 4-2 수학익힘(5~6학년군) 5-1, 5-2, 6-1, 6-2 【24책】	수학(1~2학년군) 1-1, 1-2, 2-1, 2-2 수학(3~4학년군) 3-1, 3-2, 4-1, 4-2 수학(5~6학년군) 5-1, 5-2, 6-1, 6-2 (전자저작물 CD 포함) 【12책】
과학	과학(3~4학년군) 3-1, 3-2, 4-1, 4-2 과학(5~6학년군) 5-1, 5-2, 6-1, 6-2 실험관찰(3~4학년군) 3-1, 3-2, 4-1, 4-2 실험관찰(5~6학년군) 5-1, 5-2, 6-1, 6-2 【16책】	과학(3~4학년군) 3-1, 3-2, 4-1, 4-2 과학(5~6학년군) 5-1, 5-2, 6-1, 6-2 (전자저작물 CD 포함) 【8책】
창의적 체험활동	안전한 생활(1~2학년군) 1, 2 【2책】	안전한 생활(1~2학년군) 1, 2 (전자저작물 CD 포함) 【2책】
총계	83책	50책

【검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예술 (음악/미술)	음악(3~4학년군) 3, 4 음악(5~6학년군) 5, 6 【4책】	음악(3~4학년군) 3~4 음악(5~6학년군) 5~6 (전자저작물 CD 포함) 【2책】
	미술(3~4학년군) 3, 4 미술(5~6학년군) 5, 6 【4책】	미술(3~4학년군) 3~4 미술(5~6학년군) 5~6 【2책】
실과	실과(5~6학년군) 5, 6 【2책】	실과(5~6학년군) 5, 6 【2책】
체육	체육(3~4학년군) 3, 4 체육(5~6학년군) 5, 6 【4책】	체육(3~4학년군) 3, 4 체육(5~6학년군) 5, 6 【4책】
영어	영어(3~4학년군) 3, 4 영어(5~6학년군) 5, 6 【4책】	영어(3~4학년군) 3, 4 영어(5~6학년군) 5, 6 (전자저작물 CD 포함) 【4책】
총계	18책	14책

■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도서 구분 고시(제2015-78호)

1. 중학교

【국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사회(역사/도덕 포함)	역사 ①/② 【2책】	역사①/② 【2책】
총계	2책	2책

【검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국어	국어 1-1, 1-2, 2-1, 2-2, 3-1, 3-2 【6책】	국어 1, 2, 3 【3책】
사회(역사/도덕 포함)	사회 ①/② 사회과 부도 역사 부도 도덕 ①/② 【6책】	사회 ①/② 도덕 ①/② 【4책】
수학	수학 1, 2, 3 【3책】	수학 1, 2, 3 【3책】
과학/ 기술·가정/정보	과학 1, 2, 3 【3책】	과학 1, 2, 3(전자저작물 CD 포함) 【3책】
영어	영어 1, 2, 3 【3책】	영어 1, 2, 3(전자저작물 CD 포함) 【3책】
총계	21책	16책

【인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과학/ 기술·가정/정보	기술·가정 ①/② 【2책】	기술·가정 ①/② 【2책】
	정보 【1책】	정보 【1책】
체육	체육 ①/② 【2책】	체육 ①/② 【2책】
예술 (음악/미술)	음악 ①/② 【2책】	음악 ①/② 【2책】
	미술 ①/② 【2책】	미술 ①/② 【2책】
선택	한문 【1책】	한문 【1책】
	환경 【1책】	환경 【1책】
	생활 독일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독일어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생활 프랑스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스페인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중국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일본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러시아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아랍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베트남어(전자저작물 CD 포함) 【8책】	생활 프랑스어 생활 스페인어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 생활 러시아어 생활 아랍어 생활 베트남어 【8책】
	보건 【1책】	보건 【1책】
	진로와 직업 【1책】	진로와 직업 【1책】
총계	21책	21책

3. 고등학교

【국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한국사	한국사 【1책】
총계	1책

【검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국어	국어 / 화법과 작문 / 독서 / 언어와 매체 / 문학 【5책】
수학	수학 / 수학Ⅰ / 수학Ⅱ / 미적분 / 확률과 통계 / 기하 【6책】
영어	영어 / 영어 회화 / 영어Ⅰ / 영어 독해와 작문 / 영어Ⅱ 【5책】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 / 한국지리 / 세계지리 / 세계사 / 동아시아사 / 경제 / 정치와 법 / 사회·문화 / 생활과 윤리 / 윤리와 사상 / 지리 부도 / 역사 부도 【12책】
과학	통합과학 / 과학탐구실험 / 물리학Ⅰ / 화학Ⅰ / 생명과학Ⅰ / 지구과학Ⅰ / 물리학Ⅱ / 화학Ⅱ / 생명과학Ⅱ / 지구과학Ⅱ 【10책】
총계	38책

【인정도서】

- 보통교과

교과(군)	교과서
국어	실용 국어 / 심화 국어 【2책】
수학	실용 수학 / 경제 수학 【2책】
영어	실용 영어 / 영어권 문화 / 진로 영어 【3책】
사회 (역사/도덕 포함)	여행지리 / 사회문제 탐구 / 고전과 윤리 【3책】
과학	과학사 / 생활과 과학 / 융합과학 【3책】
체육	체육 / 운동과 건강 / 스포츠 생활 / 체육 탐구 【4책】
예술 (음악/미술 등)	음악/ 미술 / 연극 / 음악 연주 / 음악 감상과 비평 / 미술 창작 / 미술 감상과 비평 【7책】
기술·가정	기술·가정 / 정보 / 농업 생명 과학 / 공학 일반 / 창의 경영 / 해양/ 문화와 기술 / 가정과학 / 지식 재산 일반 【8책】
제2외국어	독일어 I / 프랑스어 I / 스페인어 I / 중국어 I / 일본어 I / 러시아어 I / 아랍어 I / 베트남 어 I/ 독일어II / 프랑스어II / 스페인어II / 중국어II / 일본어II / 러시아어II / 아랍어II / 베 트남어II 【16책】
한문	한문I / 한문II 【2책】
교양	철학 / 논리학 / 심리학 / 교육학 / 종교학 / 진로와 직업 / 보건 / 환경 / 실용 경제 / 논술 【10책】
총계	60책

- 전문교과 I

교과(군)	교과서
과학계열	심화 수학I / 심화 수학II / 고급 수학I / 고급 수학II / 고급 물리학 / 고급 화학 / 고급 생명과학 / 고급 지구과학 / 물리학 실험 / 화학 실험 / 생명과학 실험 / 지구과학 실험 / 정보과학 / 생태와 환경 【14책】
체육계열	스포츠 개론 / 체육과 진로 탐구 / 체육 지도법 / 육상 운동 / 체조 운동 / 수상 운동 / 개인·대인 운동 / 단체 운동/ 스포츠 경기 체력 / 스포츠 경기 분석 【10책】
예술계열	음악이론 / 음악사/ 시청 · 청음 / 미술 이론 / 미술사 / 무용의 이해 / 무용과 몸 /무용과 매체 / 무용 감상과 비평 / 문예 창작 입문 / 문학 개론 / 고전문학 감상 / 현대문학 감상 / 연극의 이해 / 연기 / 연 극 감상과 비평 / 영화의 이해 / 시나리오 / 영화 감상과 비평 / 사진의 이해 / 영상 제작의 이해 / 【21책】

교과(군)	교과서
외국어계열	<p>심화 영어 회화 I / 심화 영어 회화 II / 심화 영어 I / 심화 영어 II / 심화 영어 독해 I / 심화 영어 독해 II / 심화 영어 작문 I / 심화 영어 작문 II / 전공 기초 독일어 / 독일어 회화 I / 독일어 회화 II / 독일어 독해와 작문 I / 독일어 독해와 작문 II / 독일어권 문화 / 전공 기초 프랑스어 / 프랑스어 회화 I / 프랑스어 회화 II /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 I /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 II / 프랑스어권 문화 / 전공 기초 스페인어 / 스페인어 회화 I / 스페인어 회화 II /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 I /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 II / 스페인어권 문화 / 전공 기초 중국어 / 중국어 회화 I / 중국어 회화 II / 중국어 독해와 작문 I / 중국어 독해와 작문 II / 중국 문화 / 전공 기초 일본어 / 일본어 회화 I / 일본어 회화 II / 일본어 독해와 작문 I / 일본어 독해와 작문 II / 일본 문화 / 전공 기초 러시아어 / 러시아어 회화 I / 러시아어 회화 II /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 I /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 II / 러시아 문화 / 전공 기초 아랍어 / 아랍어 회화 I / 아랍어 회화 II / 아랍어 독해와 작문 I / 아랍어 독해와 작문 II / 아랍 문화 / 전공 기초 베트남어 / 베트남어 회화 I / 베트남어 회화 II /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 I /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 II / 베트남 문화</p> <p style="text-align: right;">【56책】</p>
국제계열	<p>국제 정치 / 국제 경제 / 국제법 / 지역 이해 / 한국 사회의 이해 / 비교 문화 /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 현대 세계의 변화 / 사회 탐구 방법</p> <p style="text-align: right;">【10책】</p>
총계	111책

- 전문교과 II

교과(군)	교과서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
경영·금융	<p>성공적인 직업생활 【1책】</p>	<p>상업 경제 / 기업과 경영 / 사무 관리 / 회계 원리 /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 기업 자원 통합 관리 / 세무 일반 / 유통 일반 / 국제 상무 / 비즈니스 영어(전자저작물 CD 포함) / 금융 일반 / 보험 일반 / 마케팅과 광고 / 창업 일반 / 커뮤니케이션 / 전자 상거래 일반</p> <p style="text-align: right;">【16책】</p>	<p>총무 / 노무 관리 / 비서 / 인사 / 사무 행정 / 예산·자금 / 회계 실무 / 세무 실무 / 구매 조달 / 자재 관리 / 공정 관리 / 품질 관리 / 공급망 관리 / 물류 관리 / 수출입 관리 / 창구 사무 / 금융 상품 세일즈 / 카드 영업 / 증권 거래 업무 / 무역 금융 업무 / 보험 모집 / 손해사정 / 고객 관리 / 전자 상거래 실무 / 매장 판매 / 방문 판매</p> <p style="text-align: right;">【26책】</p>
보건·복지		<p>인간 발달 / 보육 원리와 보육 교사 / 보육 과정 / 아동 생활 지도 / 아동 복지 / 보육 실습 /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 복지 서비스의 기초 / 사회 복지 시설의 이해 / 공중 보건 / 간호의 기초 / 보건 간호 / 기초 간호 임상 실무</p> <p style="text-align: right;">【13책】</p>	<p>영·유아 놀이 지도 / 영·유아 교수 방법 / 영·유아 건강·안전·영양 지도 / 대인 복지 서비스 / 사회 복지 시설 실무</p> <p style="text-align: right;">【5책】</p>
디자인·문화콘텐츠		<p>디자인 제도 / 디자인 일반 / 조형 색채 관리 / 컴퓨터 그래픽 / 미디어 콘텐츠 일반 / 문화 콘텐츠 산업 일반 / 영상 제작 기초</p> <p style="text-align: right;">【8책】</p>	<p>시각 디자인 / 제품 디자인 / 실내 디자인 / 방송 콘텐츠 제작 / 영화 콘텐츠 제작 / 음악 콘텐츠 제작 / 광고 콘텐츠 제작 / 게임 콘텐츠 제작 /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 만화 콘텐츠 제작 / 캐릭터 제작 / 스마트 문화 앱 콘텐츠</p>

교과(군)	교과서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
			제작 【12책】
미용·관광·레저		미용의 기초 / 미용 안전·보건 / 관광 일반 / 관광 사업 / 관광 서비스 / 관광 영어(전자저작물 CD 포함) / 관광 일본어(전자저작물 CD 포함) / 관광 중국어(전자저작물 CD 포함) 【8책】	헤어 미용 / 피부 미용 / 메이크업 / 네일 미용 / 여행 서비스 실무 / 호텔 객실 서비스 실무 / 호텔 식음료 서비스 실무 / 카지노·유원 시설 서비스 실무 【8책】
음식조리		식품과 영양 / 급식 관리 【2책】	한국 조리 / 서양 조리 / 중식 조리 / 일식 조리 / 소믈리에 / 바리스타 / 바텐더 【7책】
건설		공업 일반 / 기초 제도 / 토목 일반 / 토목 도면 해석과 제도 / 토목 기초 실습 / 건축 일반 / 건축 도면 해석과 제도 / 건축 기초 실습 / 조경 【9책】	토공·포장 시공 / 측량 / 지적 / 공간 정보 구축 / 건축 목공 시공 / 건축 도장 시공 / 창호 시공 / 단열·수장 시공 / 철근 콘크리트 시공 / 건축 마감 시공 / 조경 시공 / 조경 관리 / 조경 설계 【13책】
기계		기계 제도 / 기계 기초 공작 / 전자 기계 이론 / 기계 일반 / 자동차 일반 / 냉동 공조 일반 / 유체 기계 / 자동차 기관 / 자동차 배기 / 자동차 전기·전자 제어 / 선체 도면 독도와 제도 / 선박 이론 / 선박 구조 / 선박 건조 / 항공기 일반 / 항공기 실무 기초 【16책】	기계요소 설계 / 기계 제어 설계 / 선반 가공 / 밀링 가공 / 연삭 가공 / 컴퓨터 활용 생산 / 측정 / 성형 가공 / 방전 가공 / 레이저 가공 / 워터젯 가공 / 플라즈마 가공 / 사출 금형 설계 / 사출 금형 제작 / 사출 금형 품질 관리 / 사출 금형 조립 / 프레스 금형 설계 / 프레스 금형 제작 / 프레스 금형 품질 관리 / 프레스 금형 조립 / 기계 수동 조립 / 운반 하역 기계 설치·정비 / 건설 광산 기계 설치·정비 / 섬유 기계 설치·정비 / 공작 기계 설치·정비 / 고무 플라스틱 기계 설치·정비 / 농업용 기계 설치·정비 / 승강기 설치·정비 / 냉동 공조 설계 / 냉동 공조 설치 / 냉동 공조 유지·보수 관리 / 자동차 전기·전자 장치 정비 / 자동차 엔진 정비 / 자동차 배기 정비 / 자동차 차체 정비 / 자동차 도장 / 자동차 정비 검사 / 선체 가공 / 선체 조립 / 선박 도장 / 선체 품질 관리 / 기장 생산 / 전장 생산 / 선장 생산 / 선실 의장 생산 / 선체 생산 설계 / 항공기 기체 제작 / 항공기 엔진·프로펠러 제작 / 항공기 전기·전자 장비 제작 / 항공기 기체 정비 / 항공기 가스 터빈 엔진 정비 / 항공기 왕복 엔진 정비 / 항공기 프로펠러 정비 / 항공기 계통 정비 / 항공기 전기·전자 장비 정비 / 헬리콥터 정비 / 항공기 정비 관리 【57책】

교과(군)	교과서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
재료		재료 시험 / 세라믹 재료 / 세라믹 원리·공정 / 재료 일반 / 산업 설비 【5책】	주조 / 제선 / 제강 / 금속 열처리 / 금속 재료 가공 / 금속 재료 신뢰성 시험 / 압연 / 비철 금속 제련 / 도금·도장 / 전기·전자 재료 / 광학 재료 / 내열 구조 재료 / 생체 세라믹 재료 / 유리·범랑 / 내화물 / 연삭재 / 도자기 / 시멘트 / 탄소 제품 / 판금 제관 / 배관 / 피복 아크 용접 /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 이산화탄소·가스 메탈 아크 용접 /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 로봇 용접 【26책】
화학공업		공업 화학 / 제조 화학 / 단위 조작 【3책】	화학 분석 / 화학 물질 관리 / 공정 제어 / 석유 화학 제품 / 고분자 제품 제조 / 무기 공업 화학 / 정밀 화학제품 제조 / 바이오 화학제품 제조 / 플라스틱 성형과 가공 / 생산 품질 관리와 설비 관리 【10책】
섬유·의류		섬유 재료 / 섬유 공정 / 염색·가공 기초 / 의류 재료 관리 / 패션 디자인의 기초 / 의복 구성의 기초 / 패션 마케팅 【7책】	방직 / 방사·사가공 / 제포 / 염색·가공 / 텍스타일 디자인 / 구매 생산 관리 / 생산 현장 관리 / 패션 디자인의 실제 / 패턴 메이킹 / 비주얼 머천다이징 / 서양 의복 구성과 생산 / 니트 의류 생산 / 가죽·모피 디자인과 생산 / 패션 소품 디자인과 생산 / 한국 의복 구성과 생산 / 패션 상품 유통 관리 【16책】
전기·전자		전기 회로 / 전기 기기 / 전기 설비 / 자동화 설비 / 전기·전자 기초 / 전자 회로 / 전기·전자 측정 / 디지털 논리 회로 【8책】	수력 발전 설비 운용 / 화력 발전 설비 운용 / 원자력 발전 설비 운용 / 송변전 배전 설비 운용 / 전기 기기 제작 / 내선 공사 / 외선 공사 / 자동 제어 기기 제작 / 자동 제어 시스템 운용 / 전기 철도 시공 운용 / 철도 신호 제어 시공 운용 / 전자 부품 생산 / 전자 부품 개발 / 전자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 전자 기기 개발 / 정보 통신 기기 개발 / 정보 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 반도체 개발 / 반도체 제조 / 반도체 재료 제조 / 디스플레이 생산 /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개발 / 로봇 하드웨어 개발 / 로봇

교과(군)	교과서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
			소프트웨어 개발 【24책】
정보·통신		통신 일반 / 통신 시스템 / 정보 통신 / 방송 일반 / 정보 처리와 관리 / 컴퓨터 구조 / 프로그래밍 / 자료 구조 / 컴퓨터 시스템 일반 / 컴퓨터 네트워크 【10책】	무선 통신 구축·운용 / 유선 통신 구축·운용 / 초고속망 서비스 관리 운용 / 방송 제작 시스템 운용 /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 시스템 운영 및 네트워크 운영 / 컴퓨터 보안 / 시스템 프로그래밍 / 소프트웨어 구조 / 응용 프로그래밍 /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11책】
식품가공		식품 과학 / 식품 위생 / 식품 가공 기술 / 식품 분석 【4책】	곡물 가공 / 식품 품질 관리 / 수산 식품 가공 / 면류 식품 가공 / 두류 식품 가공 / 축산 식품 가공 / 건강 기능 식품 가공 / 유제품 가공 / 김치·반찬 가공 / 음료·주류 가공 / 제과 / 제빵 【12책】
인쇄·출판·공예		인쇄 일반 / 디지털 이미지 재현 / 출판 일반 / 공예 일반 / 공예 재료와 도구 【5책】	프리프레스 / 평판 인쇄 / 특수 인쇄 / 후가공 / 출판 편집 / 금속 공예 / 도자기 공예 / 목공예 / 석공예 / 섬유 공예 / 보석 감정 / 보석 디자인 【12책】
환경·안전		환경 화학 기초 / 인간과 환경 / 산업 안전 보건 기초 【3책】	환경 보건 관리 / 환경 공정 관리 / 환경 생태 관리 / 생활 환경 관리 / 환경 측정 관리 / 기계 안전 관리 / 전기 안전 관리 / 건설 안전 관리 / 화공 안전 관리 / 비파괴 검사 【10책】
농림·수산업		농업 이해 / 농업 기초 기술 / 농업 경영 / 재배 / 농촌과 농지 개발 / 농산물 유통 / 농산물 유통 관리 / 농산물 거래 / 관광 농업 / 환경 보전 / 친환경 농업 / 생명 공학 기술 / 농업 정보 관리 / 농산 식품 가공 / 원예 / 생산 자재 / 조경 식물 관리 / 화훼 장식 기초 / 산림 휴양 / 산림 자원 / 임산 가공 / 동물 자원 / 반려동물 관리 / 실험 동물과 기타 가축 / 농업 기계 / 농업 기계 공작 / 농업 기계 운전·작업 / 농업과 물 / 농업 토목 제도·설계 / 농업 토목 시공·측량 / 해양의 이해 / 수	수도작 재배 / 전특작 재배 / 종자 생산 / 농업 환경 개선 / 농촌 체험 상품 개발 / 농촌 체험 시설 운영 / 채소 재배 / 과수 재배 / 화훼 재배 / 화훼 장식 / 임업 종묘 / 산림 조성 / 산림 이용 / 산림 보호 / 임산물 생산 / 버섯 재배 / 펄프 제조 / 목재 가공 / 가금 사육 / 젓소 사육 / 한우 사육 / 돼지 사육 / 말 사육 / 중축 / 사료 생산 / 동물 약품 제조 / 연안 어업 / 근해 어업 / 원양 어업 / 내수면 어업 / 염 생산 / 어업 자원 관리 / 어업 환경 개선 / 해면 양식 / 내수면 양식 / 수산 종묘 생산 / 수산 생물 질병 관리 / 어촌 체험 시설 운영 / 어촌 체험 상품 개발 / 수상 레저 기구 조종

교과(군)	교과서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
		산·해운 산업 기초 / 해양 생산 일반 / 해양 정보 관리 / 해양 오염·방제 / 전 자 통신 기초 / 전자 통신 운용 / 수산 일반 / 수산 생물 / 수산 양식 일반 / 수산 경영 / 수산물 유통 / 양식 생물 질병 / 해양 환경과 자원 / 해양 레저 관광 / 요트 조종 / 잠수 기술 【47책】	【40책】
선박운항		항해 기초 / 해사 일반 / 해사 법규 / 선박 운용 / 선화 운송 / 항만 물류 일 반 / 해사 영어(전자저작물 CD 포함) / 항해사 직무 / 해운 일반 / 열기관 / 선박 보조 기계 / 선박 전기·전자 / 기 관 실무 기초 / 기관 직무 일반 【14책】	항해 / 선박 통신 / 선박 기관 운전 / 선박 갑 판 관리 【4책】
총계	472책		

2 교과용도서의 편찬 방향

가.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

(1) 목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적합하며, 핵심역량 함양을 도모하는 실생활 중심의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을 통한 학교 교육의 내실화

(2) 기본 방향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적합하며, 핵심역량 함양을 도모하는 실생활 중심의 교과용도서 개발

-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는 교과용도서
- 바른 인성과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과용도서
-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용도서

(3) 주요 내용

(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는 교과용도서 편찬

(1) 추구하는 인간상

-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2) 교과 교육과정의 구현

- 교과 목표, 내용의 영역과 성취기준을 충실히 구현
-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평가 방법 적용
-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내용 수준과 학습량을 적정화
- 교과 교육과정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의 개별화가 가능한 학습 자료 제공
-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화

(나) 바른 인성과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과용도서 편찬

(1) 바른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교과용도서 편찬

- 존중, 공감, 소통, 협력, 참여, 정의, 배려 등의 인성 요소를 중심으로 인성 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개발
- 교과 특성에 따라 교실 수업 단위에서 인성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 내용 제시
- 학생 참여와 협력 및 체험 학습이 강화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제시

(2) 지식의 창조 및 융합 능력을 신장하는 교과용도서 편찬

-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
- 교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제시
- 융·복합적 사고력과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제시

(다)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용도서 편찬

(1)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도록 편찬

- 교과의 핵심적이며 필수적인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발
-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제시
-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제시

(2)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으며 실생활과 연계되도록 편찬

- 학생의 생활 경험을 반영한 내용으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도록 개발
- 실생활에 응용 가능하도록 실용성 및 유용성을 고려하여 개발
- 다양한 현상과 사례 및 직·간접적 체험 중심의 교육 내용,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 제시

나.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1) 헌법 및 관련 법령의 준수

-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교육의 중립성 유지

- 교육 내용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고,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교육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교육 내용은 특정 정당, 종교, 인물, 인종, 상품, 기관 등을 선전하거나 비방해서는 아니 되며, 남녀의 역할, 장애, 직업 등에 대한 편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적 약자를 비방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 무능력하거나 의존적이라는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한다.

(3) 지식 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표시와 같은 최신의 관련 법령을 따른다.

(4) 교육과정의 구현 및 목표 진술

-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간상, 구성 방침, 교육 목표 및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을 충실히 구현하여야 한다.
- 해당 교과 학습을 통하여 학생이 궁극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학습 목표를 학습자 관점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하위 목표는 학생이 학습 후 도달해야 할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5) 내용의 선정 및 조직

- 해당 교과의 목표, 내용의 영역과 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에 제시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야 한다.
- 내용의 수준과 범위, 학습량 등의 적정화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고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주제, 제재, 소재 등을 선정한다.
- 일상생활과 연계되거나 실생활에 적용하기 용이한 주제, 제재, 소재 등을 선정한다.
- 교육 내용은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 시간 또는 단위 배당 기준에 맞추어 학습 내용을 조직한다.
- 상·하위 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을 학년 간, 학기 간의 계열성과 교과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조직하되, 지나친 학습 내용의 중복이나 내용 전개상의 논리적인 비약이 없도록 유의한다.
- 교과서의 단원은 교수·학습 과정을 고려하여 교과의 특성과 단원의 성격에 적합하게 구성한다.
- 교과서의 단원은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유지하도록 구성하며, 학습 목표에 따라 계획, 조절, 점검, 성찰할 수 있는 학습 활동 등으로 구성한다.

(6) 표기와 인용의 정확성

- 주요 개념은 관련 학계에서 통설로 인정하는 최근의 것으로서 보편화된 것이어야 한다.
- 사진, 삽화, 통계, 도표 및 각종 자료 등은 공신력 있는 최근의 것으로서 교과 내용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고, 인용한 모든 자료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힌다.
- 교과용도서의 표기·표현은 최신 어문 규정 및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신 어문 규정 및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없는 표기·표현은 편수 자료를 따른다.
- 인명, 지명, 각종 용어, 통계 도표, 지도 등의 기타 모든 자료는 최신 어문 규정,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교육부 발행 최신 편수 자료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을 활용하되, 이들 자료에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도서 내에서는 하나의 자료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한다.
- 지도를 제시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인 ‘지도 도식 규칙’을 따른다. 우리나라 지도를 제시할 때는 ‘울

릉도' 및 '독도'가 포함되고, '동해' 용어 표기가 바르게 기술된 지도를 사용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바르게 그려진 태극기의 그림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계량 단위 등은 국가 표준 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병기 할 수 있다.

(7) 범 교과 학습 내용의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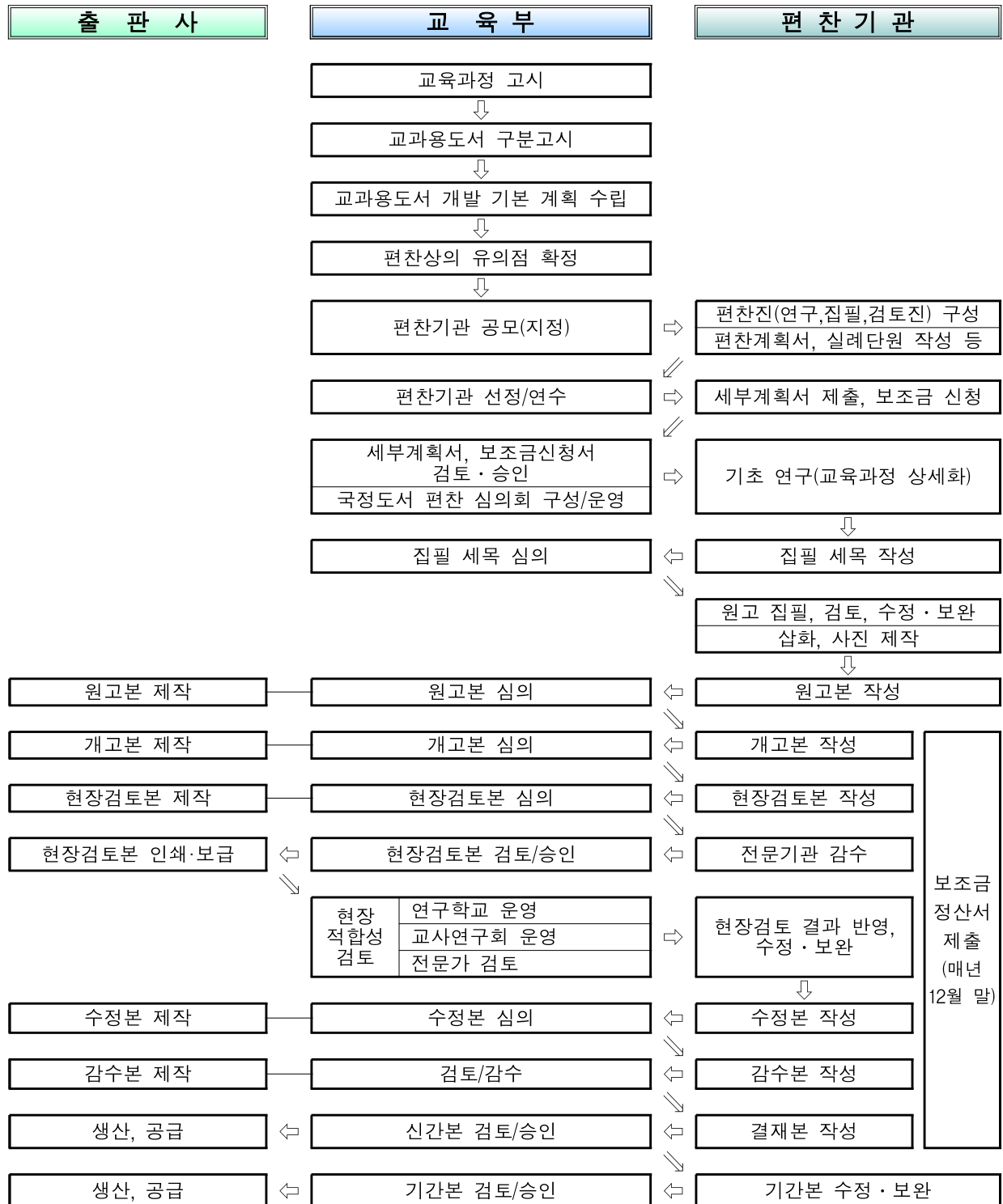
-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을 관련 교과목의 내용에 따라 포함되도록 한다.

(8) 기타사항

- 연계 도서의 경우 교육 내용이 서로 유기적으로 구성되도록 교과용도서를 개발한다.
- 판형, 지질, 색도 등 외형체제는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본문 용지는 기존 교과서 용지(75g±3g)로 한정한다. 교과 내용과 부합되는 양질의 사진·삽화를 사용하고 다양한 편집디자인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높이도록 한다.
- 미술, 사회과 부도, 지리 부도, 역사 부도 과목의 본문 용지는 S/W 120g/m²를 사용할 수 있으며, 활동지나 부록으로 사용하는 용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일반)교과목의 활동지나 부록의 활용은 최소화하되, 교과 및 학년 특성을 고려 한다.
- 멀티미디어, 인터넷 웹 주소 등을 활용할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다양하게 활용하되, 공공 기관이나 단체에서 개설한 웹 사이트 등을 활용한다.
- 교과서의 집필 기준이 있는 교과목(국어, 도덕, 역사, 경제 등)은 집필 기준을 참고하여 내용 수준을 정하고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 집필진과의 대화 통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집필자 실명제를 시행하고, 집필자 명단을 단위별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국정도서의 편찬

가. 국정도서 개발 절차



나. 국정 개발 대상 도서

(1) 초등학교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주제별 교과서 8책 【8책】	학기별 지도서 4책 (전자저작물 CD 포함) 【4책】
국어	국어(1~2학년군) 1-1, 1-2, 2-1, 2-2 국어(3~4학년군) 3-1, 3-2, 4-1, 4-2 국어(5~6학년군) 5-1, 5-2, 6-1, 6-2 국어활동(1~2학년군) 1-1, 1-2, 2-1, 2-2 국어활동(3~4학년군) 3-1, 3-2, 4-1, 4-2 【20책】	국어(1~2학년군) 1-1, 1-2, 2-1, 2-2 국어(3~4학년군) 3-1, 3-2, 4-1, 4-2 국어(5~6학년군) 5-1, 5-2, 6-1, 6-2 (전자저작물 CD 포함) 【12책】
사회/도덕	사회(3~4학년군) 3-1, 3-2, 4-1, 4-2 사회(5~6학년군) 5-1, 5-2, 6-1, 6-2 사회과 부도 5~6 【9책】	사회(3~4학년군) 3-1, 3-2, 4-1, 4-2 사회(5~6학년군) 5-1, 5-2, 6-1, 6-2 (전자저작물 CD 포함) 【8책】
	도덕(3~4학년군) 3, 4 도덕(5~6학년군) 5, 6 【4책】	도덕(3~4학년군) 3, 4 도덕(5~6학년군) 5, 6 (전자저작물 CD 포함) 【4책】
수학	수학(1~2학년군) 1-1, 1-2, 2-1, 2-2 수학(3~4학년군) 3-1, 3-2, 4-1, 4-2 수학(5~6학년군) 5-1, 5-2, 6-1, 6-2 수학익힘(1~2학년군) 1-1, 1-2, 2-1, 2-2 수학익힘(3~4학년군) 3-1, 3-2, 4-1, 4-2 수학익힘(5~6학년군) 5-1, 5-2, 6-1, 6-2 【24책】	수학(1~2학년군) 1-1, 1-2, 2-1, 2-2 수학(3~4학년군) 3-1, 3-2, 4-1, 4-2 수학(5~6학년군) 5-1, 5-2, 6-1, 6-2 (전자저작물 CD 포함) 【12책】
과학	과학(3~4학년군) 3-1, 3-2, 4-1, 4-2 과학(5~6학년군) 5-1, 5-2, 6-1, 6-2 실험관찰(3~4학년군) 3-1, 3-2, 4-1, 4-2 실험관찰(5~6학년군) 5-1, 5-2, 6-1, 6-2 【16책】	과학(3~4학년군) 3-1, 3-2, 4-1, 4-2 과학(5~6학년군) 5-1, 5-2, 6-1, 6-2 (전자저작물 CD 포함) 【8책】
창의적 체험활동	안전한 생활(1~2학년군) 1, 2 【2책】	안전한 생활(1~2학년군) 1, 2 (전자저작물 CD 포함) 【2책】
총계	83책	50책

(2) 중학교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사회(역사/도덕 포함)	역사 ①/② 【2책】	역사①/② 【2책】
총계	2책	2책

(3) 고등학교

교과(군)	교과서
한국사	한국사 【1책】
총계	1책

다. 국정도서 편찬기관 공모

국정도서 편찬기관 공모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1~2학년군 국정도서 편찬기관 공모
- 통합(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국어 -

1. 근거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2. 목적

○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신장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용도서 개발

○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교과서 개발 능력을 갖춘 기관 발굴

3. 개발 대상도서

교과	교과서	지도서
바른 생활	주제별 교과서 8책 【8책】	학기별 지도서 4책 (전자저작물CD 포함) 【4책】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국어	국어(1~2학년군) 1-1, 1-2, 2-1, 2-2 국어활동(1~2학년군) 1-1, 1-2, 2-1, 2-2 【8책】	국어(1~2학년군) 1-1, 1-2, 2-1, 2-2 (전자저작물CD 포함) 【4책】
계	총 24책(교과서 16책, 지도서 8책)	

4. 공모대상 기관

○ 고등교육기관, 관련 학회, 관련 연구기관, 교과교육연구회 등

- 공모 시 연구·개발기관 외의 인사도 연구·집필·검토 위원 참여 가능
 - 국·공립 대학(교)의 경우는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학교에 한함
 - 연구·개발기관 공모 시, 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 가능
 - 초·중등 교원만으로 구성된 교과교육연구회는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대학 교수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 가능
- ※ 개발비는 학회 또는 연구회에 지급이 불가하며, 교과교육연구회는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에 등록된 연구회에 한함

5. 연구·집필·검토진 구성 및 자격

○ 응모 기관은 연구·집필진 구성 시 실제 편찬에 필요한 인원 확보

※ 실제 연구·집필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집필·검토진 구성 시 약정서(계약서)를 갖추어야 함

○ 구성 기준

- (인원) 30~70명

※ 연구·집필진 등은 원칙적으로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추가 승인 절차 필요

- (구분) 연구진, 집필진, 검토진, 연구보조원

※ 연구진은 집필을 겸할 수 있으나, 검토진은 집필을 겸할 수 없음

- (구성) 현장 교사 40% 이상, 각 교과별 세부 영역 전공자 고루 포함

○ 자격 기준: 해당 선택 과목 관련 학계의 전문가와 현장 교원

1. 연구진, 검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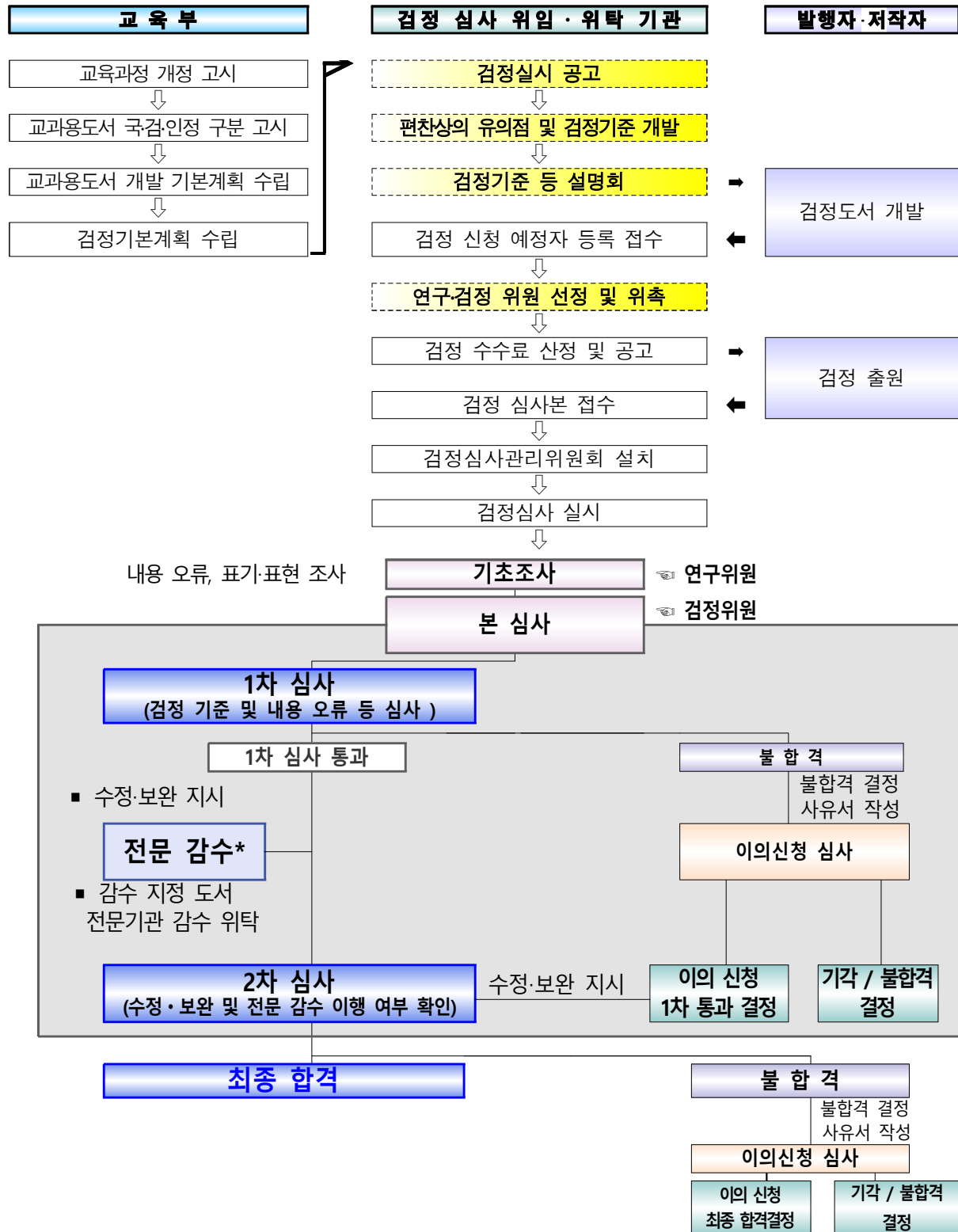
- 해당 교과 관련 교육경력 12년 이상 교원 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
 - －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육전문직 및 교과교육연구회·교육과정연구회 3년 이상 활동 교원
 - － 해당 교과 관련 학회 논문 최근 3년간 3편 이상 저작한 교원
 - － 교과서 집필 및 심의 경력 3년 이상 참여 교원
- 전문연구기관 연구원 경력 5년 이상인 자
- 해당 교과의 교과내용학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활동 경력이 있는 자
- 교과교육학이나 일반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활동 경력이 있는 자
-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분야에 연구활동 경력이 있는 자
 - － 안전, 성교육, 자살예방, 인권, 인성, 아동문학 등

2. 집필진

-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로 다음에 해당되는 자
 - － 교과내용학 및 교육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교과서 보완교재, 보충교재, 계기교육자료, 지역화교재, 사이버컨텐츠 등의 집필 경력자

4 검정도서의 편찬

가. 검정도서 개발 절차



나. 검정 개발 대상 도서

(1) 초등학교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예술 (음악/미술)	음악(3~4학년군) 3, 4 음악(5~6학년군) 5, 6 【4책】	음악(3~4학년군) 3~4 음악(5~6학년군) 5~6 (전자저작물 CD 포함) 【2책】
	미술(3~4학년군) 3, 4 미술(5~6학년군) 5, 6 【4책】	미술(3~4학년군) 3~4 미술(5~6학년군) 5~6 【2책】
실과	실과(5~6학년군) 5, 6 【2책】	실과(5~6학년군) 5, 6 【2책】
체육	체육(3~4학년군) 3, 4 체육(5~6학년군) 5, 6 【4책】	체육(3~4학년군) 3, 4 체육(5~6학년군) 5, 6 【4책】
영어	영어(3~4학년군) 3, 4 영어(5~6학년군) 5, 6 【4책】	영어(3~4학년군) 3, 4 영어(5~6학년군) 5, 6 (전자저작물 CD 포함) 【4책】
총계	18책	14책

(2) 중학교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국어	국어 1-1, 1-2, 2-1, 2-2, 3-1, 3-2 【6책】	국어 1, 2, 3 【3책】
사회(역사/도덕 포함)	사회 ①/② 사회과 부도 역사 부도 도덕 ①/② 【6책】	사회 ①/② 도덕 ①/② 【4책】
수학	수학 1, 2, 3 【3책】	수학 1, 2, 3 【3책】
과학/ 기술·가정/정보	과학 1, 2, 3 【3책】	과학 1, 2, 3(전자저작물 CD 포함) 【3책】
영어	영어 1, 2, 3 【3책】	영어 1, 2, 3(전자저작물 CD 포함) 【3책】
총계	21책	16책

(3) 고등학교

교과(군)	교과서
국어	국어 / 화법과 작문 / 독서 / 언어와 매체 / 문학 【5책】
수학	수학 / 수학 I / 수학 II / 미적분 / 확률과 통계 / 기하 【6책】
영어	영어 / 영어 회화 / 영어 I / 영어 독해와 작문 / 영어 II 【5책】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 / 한국지리 / 세계지리 / 세계사 / 동아시아사 / 경제 / 정치와 법 / 사회·문화 / 생활과 윤리 / 윤리와 사상 / 지리 부도 / 역사 부도 【12책】
과학	통합과학 / 과학탐구실험 / 물리학 I / 화학 I / 생명과학 I / 지구과학 I / 물리학 II / 화학 II / 생명과학 II / 지구과학 II 【10책】
총계	38책

다. 검정 위탁 기관

(1) 근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7항, 제45조제3항, 제4항, 제10항

(2) 기관별 대상 도서

기관명	위임·위탁 도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학, 과학, 경제 외 교과
한국과학창의재단	수학, 과학 교과
국사편찬위원회	역사*
한국개발연구원	경제 교과

*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한 검정도서(역사 부도, 동아시아사, 세계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위탁하기 위해 법령 개정 중

라. 검정 시기

(1) 학년군별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일괄 검정심사를 실시하고, 적용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교과용 도서는 분할검정 실시

학교급	검정시기	교과서	지도서
초등학교	'17년도	음악(3~4학년군) 3, 4 미술(3~4학년군) 3, 4 체육(3~4학년군) 3, 4 영어(3~4학년군) 3, 4	음악(3~4학년군) 3~4(전자저작물 CD포함) 미술(3~4학년군) 3~4 체육(3~4학년군) 3, 4 영어(3~4학년군) 3, 4(전자저작물 CD 포함)
	'18년도	실과(5~6학년군) 5, 6 체육(5~6학년군) 5, 6 음악(5~6학년군) 5, 6 미술(5~6학년군) 5, 6 영어(5~6학년군) 5, 6	실과(5~6학년군) 5, 6 체육(5~6학년군) 5, 6 음악(5~6학년군) 5~6(전자저작물 CD포함) 미술(5~6학년군) 5~6 영어(5~6학년군) 5, 6(전자저작물 CD 포함)
중학교	'17년도	국어(1-1, 1-2) 사회①/② 도 덕①/② 수학1 과학1 영어1 사회과 부도 역사 부도	국어1 사회①/② 도덕①/② 수학1 과학1(전자저작물 CD 포함) 영어1(전자저작물 CD 포함)
	'18년도	국어(2-1, 2-2) 수학2 과학2 영어2	국어2 수학2 과학2(전자저작물 CD 포함) 영어2(전자저작물 CD 포함)
	'19년도	국어(3-1, 3-2) 수학3 과학3 영어3	국어3 수학3 과학3(전자저작물 CD 포함) 영어3(전자저작물 CD 포함)
고등학교	'17년도	국어, 수학, 수학 I, 수학 II,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통합사회,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지리 부도, 역사 부도,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18년도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영어 II, 세계지리, 경제,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2) 당해 연도 검정심사 시, 동일 학년군에 하나의 교과목의 검정 교과용도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지도서 포함)되는 경우, 모두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최종 합격결정

※ 1개라도 부적합하면 모두 불합격 결정 함

(3) 디지털교과서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사용하게 될 검정 디지털교과서는 추후 별도 고시하여 추진할 예정('16년 상반기)
- 재검정 기회 부여
 - 검정심사에 탈락한 도서는 보완하여 차기년도에 1회에 한하여 재검정기회 부여

마. 검정 신청 자격

(1) 신청주체

-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 공동으로 신청
- 도서명이 동일한 경우 발행자 또는 저작자는 1종만 출원 가능
- ※ 단,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경우 '2종 이내' 출원 허용

(2) 발행자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검정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저작자와 약정을 맺고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검정에 합격한 발행자(저작자)는 수정·보완, 적기 공급,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행하는 제반 행정조치를 이행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검정 신청일 기준 교과별 편집인력 및 출판실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해당 교과목	편집인력 기준	출판실적 기준
국어, 영어, 수학	검정출원 교과 관련 편집인력 2명 이상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2책 이상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	검정출원 교과 관련 편집인력 1명 이상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1책 이상

- ※ 편집 인력은 해당 교과 관련 전공자로서 해당 교과용도서 편집을 담당한 출판사 소속 인력(계약직 포함)임
- 검정심사에 합격한 도서는 추후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야 함

(3) 저작자 요건

- 검정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발행자와 약정을 맺고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 임기 중이 아닌 자
- 2인 이상이 공동 저작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 저자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한정함
- 연계결정 대상 도서의 경우 그 저작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 검정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발행자와 약정을 맺고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에서 개발하고 저작권이 해당 공공기관에 귀속되는 도서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당연직으로서 저작자 대표가 될 수 있음
 - 당연직으로서 저작자 대표가 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저작자에 대한 인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 ‘공공기관’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임

바.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 검정심사 위임·위탁기관에서는 교육부에서 연구 개발한 편찬상의 유의점과 검정기준을 활용하여 검정실시 공고와 함께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을 발표하여야 하고,
 - 검정실시 공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을 안내하고, 발행자 및 저작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 검정기준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위탁기관에서 교과군 또는 과목별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정하되, 아래의 과목에 대해서는 검정기준에 집필기준 관련 심사항목 반영

집필기준	학년군별	과목명
국어과	중학교	국어
	고등학교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도덕과	중학교	도덕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경제	중학교	사회(경제분야)
	고등학교	경제
역사과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세계사

※ 집필기준은 이념적 균형성과 내용의 정확성이 강조되는 국어, 도덕, 경제, 역사 교과서의 내용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과용도서 집필의 길잡이

- 위임·위탁기관에서는 사건, 인명, 지명 등의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편수 자료를 발행자 및 저작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함

<편수 자료 구성>

구분	편수 자료 I	편수 자료 II	편수 자료 III	편수 자료 IV
교과목	공통 (표기·표현 사례)	인문·사회과학 체육·음악·미술	기초과학	응용과학

사. 검정 심사 절차 및 방법

(1) 기초 조사

- 내용 및 표기·표현 오류 조사
 - 검정 신청 도서별 연구위원이 해당 도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내용 오류, 표현·표기 오류 등을 조사·연구함
 - 영어 어휘 수 분석 : 기본 어휘 지침, 편찬상의 유의점에 따른 어휘 사용 여부를 조사·분석함

(2) 본심사

- 검정기준에 의한 심사
 - 검정위원은 기초조사 보고서를 참고하고, 본심사를 1·2차로 구분하여 1차는 검정기준에 따른 심사, 2차는 수정·보완 및 감수 지시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함
 - 위임·위탁기관장은 심사 영역 및 항목, 영역 또는 항목별 배점, 심사관점 등을 검정기준 설명회 등을 통하여 검정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 심사 영역에 ‘교육과정의 준수’,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내용의 선정 및 조직’,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포함하되, 영역 및 항목 수는 위임·위탁기관장이 결정할 수 있음

(가) 1차 심사

- 공통기준에 의한 심사
 - 공통 기준상의 각 심사관점에 대하여 검정위원이 개별적으로 “있음” 또는 “없음”으로 판정
 - 검정위원 1인이라도 “있음”으로 평정한 심사관점에 대하여는 교과용도서(검정)심의회를 거쳐 심사 결과 확정
 - 심의회 심의 결과 심사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있음”으로 평정된 도서는 불합격으로 판정
- 교과별 기준에 의한 심사
 - 심사 영역 내 심사 항목의 가중치, 배점, 심사 관점은 검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본심사 이전에 결정함

- 검정위원별로 심사 항목별 점수를 평균 내어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심사 영역별 최종 점수를 산정함
 - ※ 점수 산정 시 필요한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단, 심사 영역별 심의회 최종 점수가 배점 기준의 “60% 이상” 경우 검정위원 1인이더라도 “60% 미만”로 평정한 심사 영역에 대하여는 교과용도서(검정)심의회를 거친 후 심사 영역별 최종 점수 산정함
- 1차 심사 통과·불합격 결정
 - 1차 심사 통과 결정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도서
 - 공통기준 모든 심사 영역에서 “없음”으로 결정
 - 교과기준 심사 영역별 심의회 최종 점수가 해당 배점의 60% 이상
 - 교과기준 심사 영역별 심의회 최종 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가 80점 이상(100점 만점)인 도서
 - 불합격 결정 : 1차 심사 통과 도서 이외의 도서
 - 불합격 결정 사유서에 공통 또는 교과기준에 미달된 영역 및 사유 표기
- 이의신청 심사
 - 1차 심사 불합격 결정 도서의 이의신청 심사를 한 후, 이의신청 1차 통과 결정 및 기각·불합격 결정을 함
- 수정·보완 지시
 - 1차 심사 통과 및 이의 신청 1차 통과 결정 도서에 대하여 수정·보완 사항을 항목별로 적시하여 지시
- 감수 도서 선정 및 반영 여부 지시
 - 전문 감수가 필요한 교과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내용 감수 및 자문 요청
 - 감수 기관은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선정
 - 감수 결과의 반영 여부를 검정위원의 합의하에 결정하고, 감수 결과를 항목별로 적시하여 지시

(나) 2차 심사

- 수정·보완 및 감수 이행 여부 심사
 - 수정·보완을 지시한 각 항목에 대하여 검정위원의 합의하에 그 이행 여부 및 수정·보완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판정
 - 감수를 지시한 각 항목에 대하여 검정위원의 합의하에 그 이행 여부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판정
- 2차 심사 통과·불합격 결정
 - 2차 심사 통과 결정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도서
 - 수정·보완 항목을 모두 이행한 도서
 - 전문기관의 감수를 받고 감수 이행 여부를 모두 이행한 도서
 - 불합격 결정 : 합격 결정된 도서 이외의 도서
 - 불합격 결정 사유서에 수정·보완 및 감수 결과 미 이행 여부 표기

○ 결과 통지

- 위임·위탁기관에서는 본심사 결과 합격결정을 받은 도서에 한해 검정 신청자에게 합격 결정을 통지하여야 함
- 위임·위탁기관에서는 본심사 결과에 대해 아래 사항을 안내 하여야 함
 -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검정도서에 대해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
 -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안내

(3) 이의심청 심사

○ 이의신청 심사 절차

- 본심사 결과 불합격 판정 통지 시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정하여 안내하여야 함. 단, 이의신청 기간 마지막 일이 불합격 통지일로 부터 1개월 이내가 되도록 정해야 함
- 위임·위탁기관은 불합격 통지를 받은 검정 신청자가 이의신청 접수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이의신청 내용이 '이유 있음'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이의신청 내용이 '이유 없음'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의신청 기각
- 위임·위탁기관장은 이의신청 심사에 드는 비용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음

(4) 견본 검수

○ 대상도서 : 본심사 또는 이의신청 심사에서 합격 판정 받은 도서

※ 본심사 또는 이의신청 심사 합격본 발표 시 견본 제출 안내

○ 검수 내용

- 심사본과의 일치 여부
 - ※ 심사본을 수정·보완하여 견본을 제출한 경우 수정·보완 대조표와의 일치 여부 등
- 합격 공고문 내용과의 일치 여부
 - ※ 검정도서명, 검정연월일과 검정번호, 책수·판형·쪽수, 종류·수량·용량 및 사용 환경 등

(5) 최종합격 공고

○ 대상 : 본심사 또는 이의신청 심사에서 합격 결정을 받고, 견본을 제출하여 위임·위탁기관의 검수를 받은 도서

○ 합격 공고

- 시기 : 2017년 9월 말, 2018년 9월 말, 2019년 9월 말
- 내용 : 검정도서명, 검정연월일과 검정번호, 책수·판형·쪽수, 종류·수량·용량 및 사용 환경(음반·영상·전자저작물의 경우)
- 방법 : 관보 및 위임·위탁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관보 게재일 1주일 전까지 교육부에 협조 의뢰하여야 함

(6) 합격공고 후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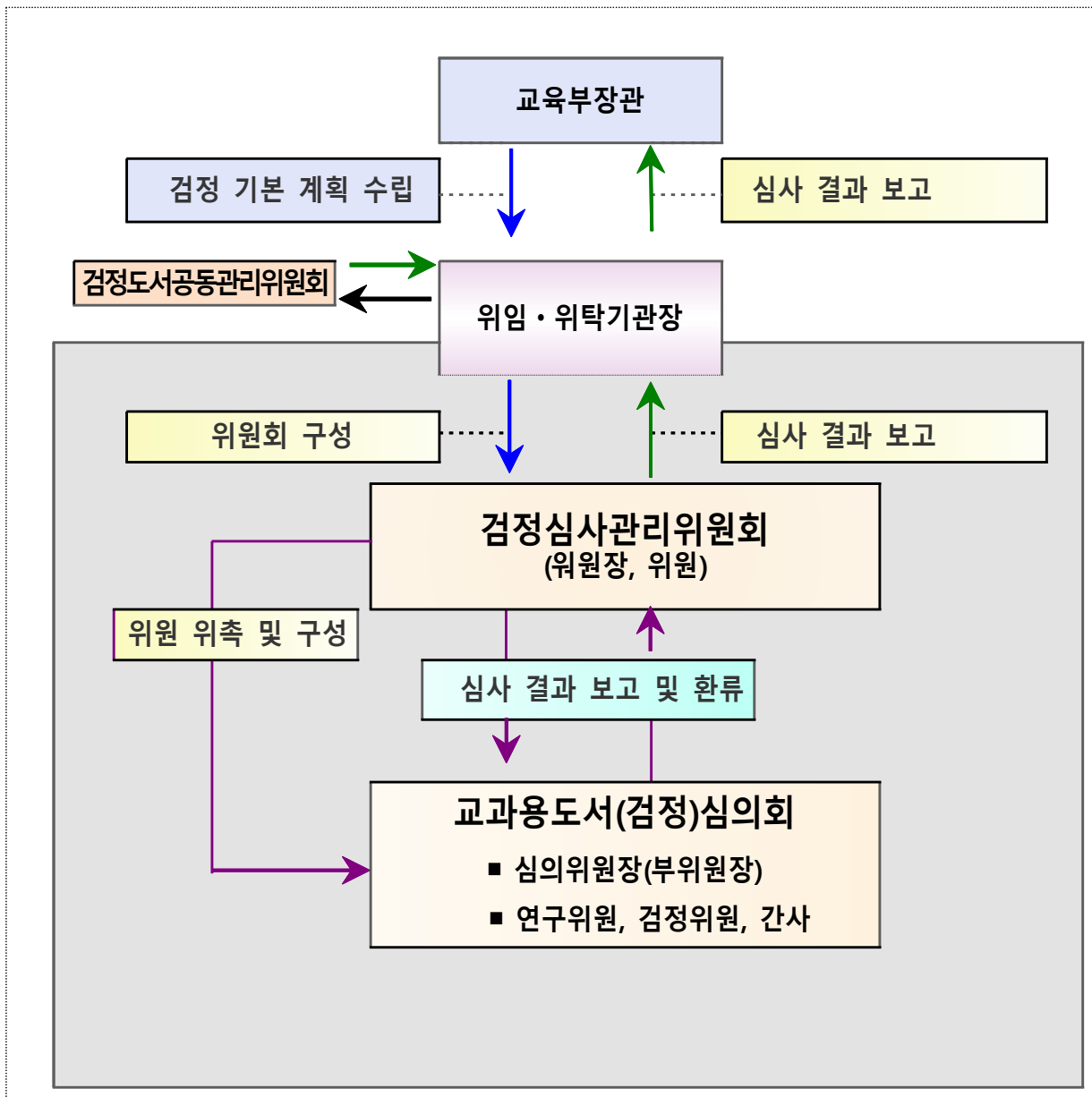
- 심사 결과 공개
 - 공개 시기 : 최종 합격 공고 이후
 - 공개 범위 : 최종 합격도서 심사본의 내용 등
 - 공개 방법 : 위임·위탁기관에서 열람 기간 및 장소를 정하여 공개하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여야 함
- 교과용도서(검정)심의회 명단 공개
 - 공개 범위 : 검정심의회 위원 전원(위원장, 연구위원 포함)의 성명 및 소속기관
 - ※ 감수위원도 공개 대상이나, 판권에는 게재하지 않음
 - 공개 방법 : 위임·위탁기관, (사)한국검인정교과서 홈페이지에 명단 게재교과서(지도서) 판권란에 명단 게재

아. 검정 기구 구성

(1) 검정기구 구성

- 위임·위탁기관은 검정도서공동관리위원회, 검정심사관리위원회, 교과용도서(검정) 심의회를 구성하고,
 - 위원은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정심사를 운영하여야 함

<검정심사 체계도>



자. 교과용도서의 선정

* 본 절의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정책 연수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을 발췌한 것임.

(1) 교과용도서 선정의 개념 및 중요성

■ 교과용도서 선정의 개념

교과서는 본질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편찬한 도서로서, 교육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을 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주교재이다. 교과서에는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목표와 내용이 구체화되어 담겨있다. 즉 교과서에는 교육과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와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되며, 내용을 안내하며, 실험·실습 가이드를 제시하고, 심화·보충을 이루게 함은 물론, 적용을 확대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자료이다.

교과용도서 선정이란 각 학교가 그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검정 교과서가 그 대상이 된다. 교과용도서 선정 과정은 교과협의회 및 학년별 협의회의 추천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확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뜻한다. 교과서 선정은 해당 학교의 특성과 요구를 바탕으로, 교사의 교수·학습방법과 학생들의 학습능력 및 수준에 적합하고 학습활동에 용이한 교과서를 선정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 교과용도서 선정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시대 변화와 사회적 요청에 따라 교과서의 다양성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 교과서는 검정으로, 그리고 검정 교과서는 인정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교과서의 다양성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 및 채택의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우수한 교과서를 선정하는 활동은 곧바로 교육의 질 향상으로 연결된다. 왜냐하면 우수한 교과서를 선정하는 문제는 교과서의 질 향상과 이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에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교과서 선정은 우수한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각 발행사들은 자신이 개발한 교과서의 선정과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수한 교과서의 개발과 보급은 국가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는 교과서 선정 절차를 준수하고 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우수한 교과서 선정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교과서 선정 참여자 및 선정 방향

<교과서 선정 참여자>

- 개별 학교들이 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은 3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 3단계에 의거한 교과서 선정 참여자들을 살펴보면, ①단위학교에서 교과서 선정을 위해 구성된 선정위원회 등에 속한 교사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 자문)를 위한 위원 ③ 최종 결정자인 학교장 등

- 1단계에서는 각 교과와 전 교사가 참여하는 교과협의회에서 추천한다. 각 교과별로 3인 이상의 동일교과 자격증 교사가 심사해야 하며, 교과별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2단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 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신설학교를 감독하고 있는 교육청이 교과용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채택할 수 있다.
- 3단계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한 도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교과서 선정 참여자 중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에게 중심적인 역할이 부여되므로, 교사의 교과서 선정 전문성과 책무성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 선정 방향>

- 교과서 선정 참여자들이 교과서를 보는 관점이나 기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선정 기준을 먼저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교과서 선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 교육과정에 근거한 내용의 선정, 조직, 수준과 범위 설정 여부를 확인함
 - 검정 교과서 교과별 집필상 유의점에 근거한 기준, 즉 각 교과에 포함되어야 할 공통 기준(표현, 표기, 내용의 공정성, 구성의 참신성, 출처의 정확성 등)을 교과의 특성에 적합하게 조정한 내용을 확인함
 -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방법 및 내용을 고려하여 선정

○ 교과서 선정 방법 및 절차

<학교의 교과서 전시 방법>

- 전시기간 : 전시본 도착일로 부터 전시
- 전시장소 :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지정함(도서관, 자료실 등)
- 전시대상 도서 : 검정심사에 합격하고 다음 학기에 학생들이 사용할 도서
 - ※ 교과서, 교사용지도서, e-교과서 등
- 전시본 확인
 - 전시 대상기관에서는 전시본이 도착하는 즉시 전시 대상 도서목록에 의하여 누락된 도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누락된 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사)한국검정교과서에 연락 후 조치(물류팀 ☎ 031)8071-1395~6)
- 유의사항
 - 전시 장소는 해당 교직원들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학교장이 지정하고 관계자(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고지함
 - 전시기간 중 출판사 관계 직원이나 저작자 및 도서관매업자(서적상)의 학교 출입을 일체 통제함
 - 전시본은 도서의 선정이 끝난 후 학교별로 자료실 등에 보관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도서를 전시할 때에는 검정 승인을 받은 모든 교과서를 빠짐없이 전시하고, (사)한국검정교과서에서 전시용 도서와 함께 배부된 검정교과서, 집필진 해설서, 검정심사결과표, 수정보완대조표 외의 자료는 전시를 금지함
- ※ 해당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출판사가 주최하는 도서설명회 등을 금지
- 일부 교과별 교사 모임 등에서 인터넷이나 기타 수단을 통하여 출판사별 교과서 내용 분석표 등을 인터넷상에 올려 특정 검정도서를 간접 홍보함으로써 검정도서 선정의 공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처리 됨

<교과서 선정 시 제공되는 자료>

- 전시본 교과서 및 전시본 교사용지도서
 - 전시본 교과서 및 지도서는 (사)한국검정교과서에서 택배로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에 보급(음악교과의 경우 음원자료 제공)
 - ※ 분교는 본교에서 전시하며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는 교과서를 주문한 실적이 있는 학교로 제한
- e-교과서
 - 2011년부터 초·중·고교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 적용되는 교과서로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CD로 된 교과서
 - 교과서의 내용을 PDF 파일 형태로 담고 있으며, 학습자 편의기능(교과서와 학습활동책을 연계, 인쇄, 찾기 등)을 추가하였음
 - 교과용도서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해 검정심사를 거친 내용만 교과서에 수록할 수 있으므로, 서책형 교과서의 내용만 수록
 - e-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보급하는 발행사에서 제작하며, 서책형 교과서와 같이 전시되므로 교과서 선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
- 검정심사 결과표
 - 검정심사기관에서 검정심사를 거치며 생성된 자료로, 검정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본(최종합격공공이전)을 평가한 자료임
 - 검정심사결과표는 교과별 심사영역에 따라 등급을 표시한 자료로, 영역별 등급 수준이 교과서를 선정하고자 하는 학교의 학습환경과 학생들의 여건에 적합한 지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검정심사 결과표는 검정심사위탁기관 홈페이지에 탑재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검정 홈페이지(<http://tba.kice.re.kr>)
 - :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수학, 과학)<http://kofac.or.kr>
- 수정·보완 대조표
 - 검정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내용·표기 등의 오류를 수정·보완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물로 교과서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수정·보완 대조표는 검정심사기관 및 (사)한국검정교과서(<http://www.ktbook.com>) 홈페이지에 탑재
- 집필진 해설서
 - 집필진 해설서는 교과서 집필자들이 제공하는 자료로, 교과서 집필방향이나 특징 및 장점, 활용방

법에 대해 기술

-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식적 홍보 및 안내 자료로, 발행사별로 동일한 분량의 홍보기회를 제공
- 책자로 제공되며, (사)한국검정교과서 홈페이지(<http://www.ktbook.com>)에도 탑재

○ 도서별 평가자료

- 도서별 평가자료는 시·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에 제공하는 자료로, 시·도교육청에서 교원이나 교과교육연구회, 학회 등 교과별로 2~5명 내외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교과서를 평가한 자료임
- 평가자료 제공은 단위학교에서 교과서 선정을 위한 혼선을 예방하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며,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 평가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시도의 여건과 교과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거하여 제시하는 것임
- 교과별 평가자료는 서술형, 계량형 등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각 고등학교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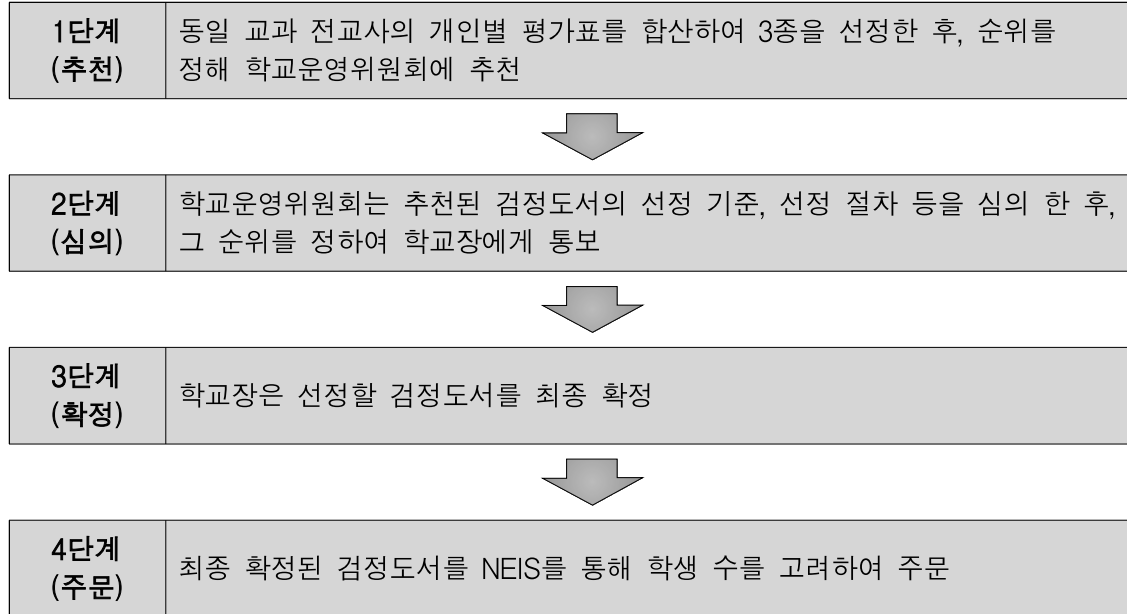
○ 권장 목록 제시

- 권장 목록은 지역교육청에서 초·중학교에 제공하는 자료로, 지역교육청에서 교원이나 교과교육연구회 등 교과별로 2~5명 내외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시된 교과서의 특징을 평가한 후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 제공하는 자료
- 권장목록 제공은 단위학교에서 1교과 다책으로 인하여 교과서 채택을 위한 혼선을 예방하고 학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며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 권장목록에는 전시본 교과서의 개별 특성을 기술하는 방향으로 작성 제공하되, 분야별(영역별)로 서열이나 순서를 매기는 것도 가능
- 학교에서는 교과서 선정시 권장목록을 참고하여 선정

※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도서별 평가자료 또는 권장목록을 제공하도록 법제화 추진 중

<학교의 교과서 선정 절차>

○ 교과서 선정 추진 단계



○ 교과서 선정 추진 단계별 세부 내용

1단계 : 교과협의회의 추천

①검정도서의 선정 기준표 작성(서식1)

- 학생 수준, 지역 및 학교의 여건(동일 교과 및 학년 교사 수 등),
- 교과서 선정 기준 항목과 검정기준(공통기준 및 교과기준) 및 검정심사 결과표를 고려하여 선정기준 평가표 작성
- 교과서 선정 기준은 검정기준과 달리 교과서 활용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함
-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이미 일정 수준을 만족하는 교과서임을 전제할 때, 교사들은 교과협의회를 통해 교과서 평가기준 항목으로부터 각 급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항목을 추출하여 학교단위의 선정 기준표를 새롭게 작성하도록 함
- 교과서 선정을 위한 선정 기준표는 기존에 시교육청 등에서 제공되던 것보다 좀 더 단순화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음

※ 선정 매뉴얼에서는 표준 선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학교의 여건 및 특성에 맞게, 평가기준 항목(예시)을 참고(추가 항목 삽입 및 삭제 가능)하여, 학교에서 직접 조합하여 작성

② 선정 기준 항목별 점수 및 평가 방법 결정

- 교과·학년별 협의회를 통해 선정기준 항목별 점수 결정
- 교과서 심사 방법(단원별 심사, 평가기준별 심사 등) 결정

③ 작성한 선정 기준 평가표를 바탕으로 교과서 심사

교과 담당 교사 또는 학년 담당 교사들이 작성한 선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수준, 특징 및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하여 교과서를 심사

- ④ 교과별 협의회 검토 후 ‘추천 검정도서 및 추천의견서(서식3)’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
- ⑤ 담당 부서에서는 교과별 추천의견서를 수합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함
- ⑥ 개인별 검정도서 선정기준 평가표, 평가 일람표, 회의록 등 관련 자료는 봉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새 교과서를 선정할 때까지 보관함
- ⑦ 학교에서 당해 교과목 자격 소지 교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당해 교과목 자격소지 교원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3인 이상의 교원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을 권장

2단계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①추천된 검정도서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의 타당성 등을 심의
- ② 필요한 경우 해당 교과 대표 교사의 설명을 청취
-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추천 검정도서 3종에 대한 순위를 명기하여 학교장에게 추천도서 심의의견서(서식 4)를 제출
 - ※ 심의의견서에 발행사 운영난 등으로 재 주문이 필요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를 별도 개최하지 않고 차 순위 도서로 자동 확정할 수 있다는 사항 명기
- ④ 기타 심의 관계서류는 봉하여 담당부서에서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새 교과서를 선정할 때까지 보관
- ⑤ 교과서 선정관련 이해관계자(저작자, 발행사, 대리점 관계자 등)는 학교운영위원이라도 교과서 선정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음

3단계 : 확정

- ①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한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선정
- ②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국·공·사립 동일)

4단계 : 주문

- ①학교의 교과서업무 담당자는 NEIS를 통하여 차년도 사용예정 교과서의 물량을 파악 후 주문

다.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이 완료되면 교과서 주문과 함께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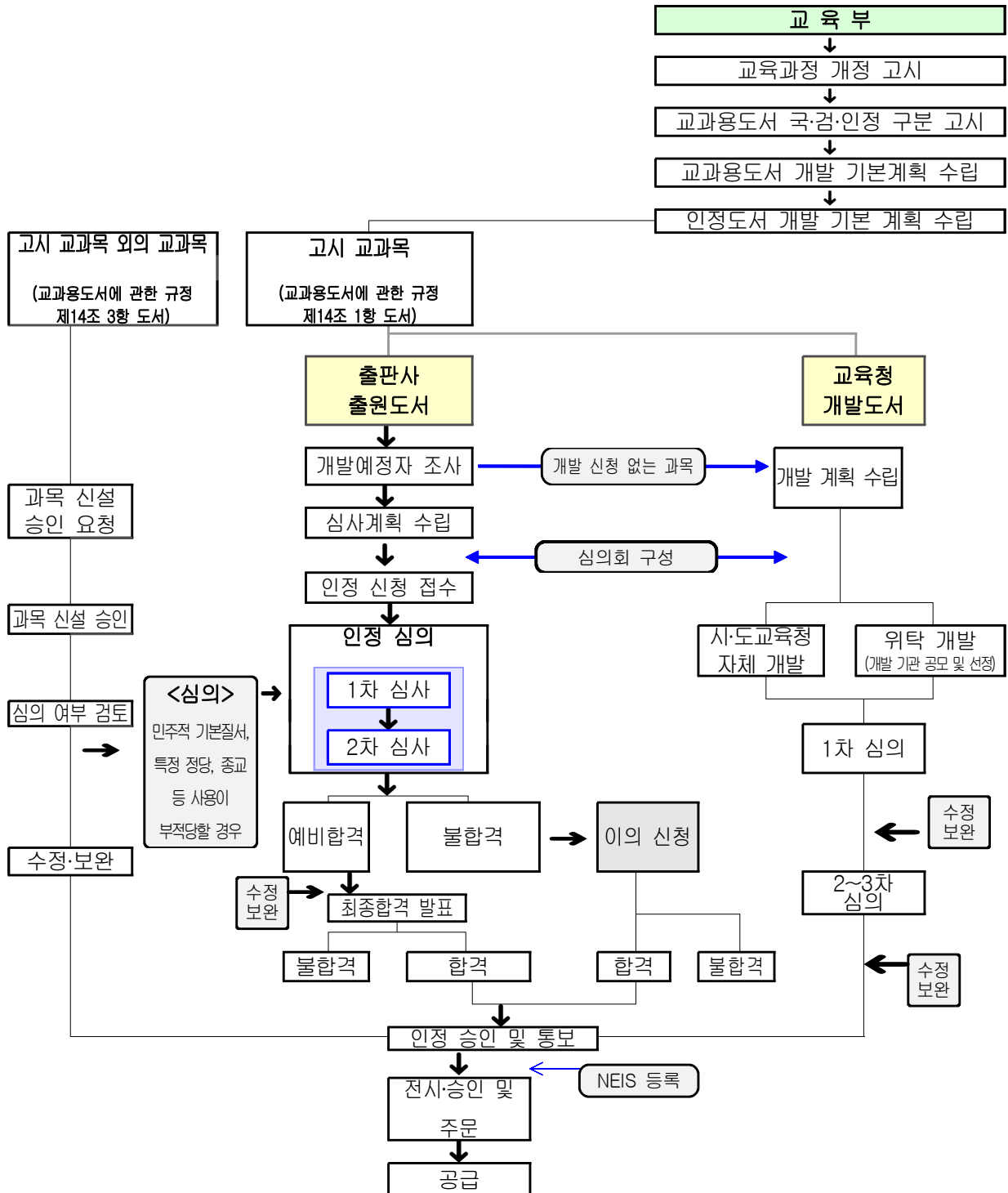
- 공개 항목 : 교과서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선정 결과
- 공개 시기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외부의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정 기준을 최종 선

정 전 공개하고 선정 절차 및 선정 결과는 최종 선정 후 공개를 권장

- 교과서 선정 기준은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일반 기준과 교과별 기준을 설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 선정 절차는 검정교과서 선정 부조리 방지 대책을 참고하여 학교에서 결정한 절차를 공개
 - 교과별 선정 협의회 일시, 참석자 수 등,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일시, 참석자 수, 2차 선정 결과
 - 학교장 최종 결정 결과
- 선정 결과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 교과서에 한함
- 선정 결과 공개시 교사 및 학교운영위원의 개인별 평가 결과 및 평가 의견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5 인정도서의 편찬

가. 인정도서 개발 절차



나. 인정 개발 대상 도서

(1) 개요

○ 중·고교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I 총 213책*

* 교육청 자체 개발 도서 : 140책, 민간 출판사 출원 심사 도서 : 73책

학교급	교육청 개발도서	민간 출판사 출원도서	계
중학교	12	30	42
고등학교	128	43	171
소계	140	73	213

※ 교육청 개발도서와 민간 출판사 출원도서 구분은 개발 예정자 조사('15.10) 결과

※ 전문교과Ⅱ(고교 직업교육분야)는 직업교육정책과에서 개발 지원 담당

(2) 중학교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과학/ 기술·가정/정보	기술·가정 ①/② 【2책】	기술·가정 ①/② 【2책】
	정보 【1책】	정보 【1책】
체육	체육 ①/② 【2책】	체육 ①/② 【2책】
예술 (음악/미술)	음악 ①/② 【2책】	음악 ①/② 【2책】
	미술 ①/② 【2책】	미술 ①/② 【2책】
선택	한문 【1책】	한문 【1책】
	환경 【1책】	환경 【1책】
	생활 독일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프랑스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스페인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중국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일본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러시아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아랍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베트남어(전자저작물 CD 포함) 【8책】	생활 독일어 생활 프랑스어 생활 스페인어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 생활 러시아어 생활 아랍어 생활 베트남어 【8책】
	보건 【1책】	보건 【1책】
	진로와 직업 【1책】	진로와 직업 【1책】
총계	21 책	21 책

(3) 고등학교

- 보통교과

교과(군)	교과서
국어	실용 국어 / 심화 국어 【2책】
수학	실용 수학 / 경제 수학 【2책】
영어	실용 영어 / 영어권 문화 / 진로 영어 【3책】
사회 (역사/도덕 포함)	여행지리 / 사회문제 탐구 / 고전과 윤리 【3책】
과학	과학사 / 생활과 과학 / 융합과학 【3책】
체육	체육 / 운동과 건강 / 스포츠 생활 / 체육 탐구 【4책】
예술 (음악/미술 등)	음악/ 미술 / 연극 / 음악 연주 / 음악 감상과 비평 / 미술 창작 / 미술 감상과 비평 【7책】
기술·가정	기술·가정 / 정보 / 농업 생명 과학 / 공학 일반 / 창의 경영 / 해양/ 문화와 기술 / 가정과학 / 지식 재산 일반 【8책】
제2외국어	독일어 I / 프랑스어 I / 스페인어 I / 중국어 I / 일본어 I / 러시아어 I / 아랍어 I / 베트남어 I / 독일어 II / 프랑스어 II / 스페인어 II / 중국어 II / 일본어 II / 러시아어 II / 아랍어 II / 베트남어 II 【16책】
한문	한문 I / 한문 II 【2책】
교양	철학 / 논리학 / 심리학 / 교육학 / 종교학 / 진로와 직업 / 보건 / 환경 / 실용 경제 / 논술 【10책】
총계	60책

- 전문교과 I

교과(군)	교과서
과학계열	심화 수학I / 심화 수학II / 고급 수학I / 고급 수학II / 고급 물리학 / 고급 화학 / 고급 생명과학 / 고급 지구과학 / 물리학 실험 / 화학 실험 / 생명과학 실험 / 지구과학 실험 / 정보과학 / 생태와 환경 【14책】
체육계열	스포츠 개론 / 체육과 진로 탐구 / 체육 지도법 / 육상 운동 / 체조 운동 / 수상 운동 / 개인·대인 운동 / 단체 운동/ 스포츠 경기 체력 / 스포츠 경기 분석 【10책】
예술계열	음악이론 / 음악사/ 시장 · 청음 / 미술 이론 / 미술사 / 무용의 이해 / 무용과 몸 /무용과 매체 / 무용 감상과 비평 / 문예 창작 입문 / 문학 개론 / 고전문학 감상 / 현대문학 감상 / 연극의 이해 / 연기 / 연극 감상과 비평 / 영화의 이해 / 시나리오 / 영화 감상과 비평 / 사진의 이해 / 영상 제작의 이해 / 【21책】

교과(군)	교과서
외국어계열	<p>심화 영어 회화Ⅰ / 심화 영어 회화Ⅱ / 심화 영어Ⅰ / 심화 영어Ⅱ / 심화 영어 독해Ⅰ / 심화 영어 독해Ⅱ / 심화 영어 작문Ⅰ / 심화 영어 작문Ⅱ / 전공 기초 독일어 / 독일어 회화Ⅰ / 독일어 회화Ⅱ / 독일어 독해와 작문Ⅰ / 독일어 독해와 작문Ⅱ / 독일어권 문화 / 전공 기초 프랑스어 / 프랑스어 회화Ⅰ / 프랑스어 회화Ⅱ /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Ⅰ /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Ⅱ / 프랑스어권 문화 / 전공 기초 스페인어 / 스페인어 회화Ⅰ / 스페인어 회화Ⅱ /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Ⅰ /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Ⅱ / 스페인어권 문화 / 전공 기초 중국어 / 중국어 회화Ⅰ / 중국어 회화Ⅱ / 중국어 독해와 작문Ⅰ / 중국어 독해와 작문Ⅱ / 중국 문화 / 전공 기초 일본어 / 일본어 회화Ⅰ / 일본어 회화Ⅱ / 일본어 독해와 작문Ⅰ / 일본어 독해와 작문Ⅱ / 일본 문화 / 전공 기초 러시아어 / 러시아어 회화Ⅰ / 러시아어 회화Ⅱ /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Ⅰ /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Ⅱ / 러시아 문화 / 전공 기초 아랍어 / 아랍어 회화Ⅰ / 아랍어 회화Ⅱ / 아랍어 독해와 작문Ⅰ / 아랍어 독해와 작문Ⅱ / 아랍 문화 / 전공 기초 베트남어 / 베트남어 회화Ⅰ / 베트남어 회화Ⅱ /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Ⅰ /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Ⅱ / 베트남 문화</p> <p>【56책】</p>
국제계열	<p>국제 정치 / 국제 경제 / 국제법 / 지역 이해 / 한국 사회의 이해 / 비교 문화 /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 현대 세계의 변화 / 사회 탐구 방법</p> <p>【10책】</p>
총계	111책

- 전문교과 II

교과(군)	교과서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
경영·금융	성공적인 직업생활 【1책】	<p>상업 경제 / 기업과 경영 / 사무 관리 / 회계 원리 /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 기업 자원 통합 관리 / 세무 일반 / 유통 일반 / 국제 상무 / 비즈니스 영어(전자저작물 CD 포함) / 금융 일반 / 보험 일반 / 마케팅과 광고 / 창업 일반 / 커뮤니케이션 / 전자 상거래 일반</p> <p>【16책】</p>	<p>총무 / 노무 관리 / 비서 / 인사 / 사무 행정 / 예산·자금 / 회계 실무 / 세무 실무 / 구매 조달 / 자재 관리 / 공정 관리 / 품질 관리 / 공급망 관리 / 물류 관리 / 수출입 관리 / 창구 사무 / 금융 상품 세일즈 / 카드 영업 / 증권 거래 업무 / 무역 금융 업무 / 보험 모집 / 손해사정 / 고객 관리 / 전자 상거래 실무 / 매장 판매 / 방문 판매</p> <p>【26책】</p>
보건·복지		<p>인간 발달 / 보육 원리와 보육 교사 / 보육 과정 / 아동 생활 지도 / 아동 복지 / 보육 실습 /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 복지 서비스의 기초 / 사회 복지 시설의 이해 / 공중 보건 / 간호의 기초 / 보건 간호 / 기초 간호 임상 실무</p> <p>【13책】</p>	<p>영·유아 놀이 지도 / 영·유아 교수 방법 / 영·유아 건강·안전·영양 지도 / 대인 복지 서비스 / 사회 복지 시설 실무</p> <p>【5책】</p>
디자인·문화콘텐츠		<p>디자인 제도 / 디자인 일반 / 조형 색채 관리 / 컴퓨터 그래픽 / 미디어 콘텐츠 일반 / 문화 콘텐츠 산업 일반 / 영상 제작 기초</p> <p>【8책】</p>	<p>시각 디자인 / 제품 디자인 / 실내 디자인 / 방송 콘텐츠 제작 / 영화 콘텐츠 제작 / 음악 콘텐츠 제작 / 광고 콘텐츠 제작 / 게임 콘텐츠 제작 /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 만화 콘텐츠 제작 / 캐릭터 제작 / 스마트 문화 앱 콘텐츠</p>

교과(군)	교과서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
			제작 【12책】
미용·관광·레저		미용의 기초 / 미용 안전·보건 / 관광 일반 / 관광 사업 / 관광 서비스 / 관광 영어(전자저작물 CD 포함) / 관광 일본어(전자저작물 CD 포함) / 관광 중국어(전자저작물 CD 포함) 【8책】	헤어 미용 / 피부 미용 / 메이크업 / 네일 미용 / 여행 서비스 실무 / 호텔 객실 서비스 실무 / 호텔 식음료 서비스 실무 / 카지노·유원 시설 서비스 실무 【8책】
음식조리		식품과 영양 / 급식 관리 【2책】	한국 조리 / 서양 조리 / 중식 조리 / 일식 조리 / 소믈리에 / 바리스타 / 바텐더 【7책】
건설		공업 일반 / 기초 제도 / 토목 일반 / 토목 도면 해석과 제도 / 토목 기초 실습 / 건축 일반 / 건축 도면 해석과 제도 / 건축 기초 실습 / 조경 【9책】	토공·포장 시공 / 측량 / 지적 / 공간 정보 구축 / 건축 목공 시공 / 건축 도장 시공 / 창호 시공 / 단열·수장 시공 / 철근 콘크리트 시공 / 건축 마감 시공 / 조경 시공 / 조경 관리 / 조경 설계 【13책】
기계		기계 제도 / 기계 기초 공작 / 전자 기계 이론 / 기계 일반 / 자동차 일반 / 냉동 공조 일반 / 유체 기계 / 자동차 기관 / 자동차 배기 / 자동차 전기·전자 제어 / 선체 도면 독도와 제도 / 선박 이론 / 선박 구조 / 선박 건조 / 항공기 일반 / 항공기 실무 기초 【16책】	기계요소 설계 / 기계 제어 설계 / 선반 가공 / 밀링 가공 / 연삭 가공 / 컴퓨터 활용 생산 / 측정 / 성형 가공 / 방전 가공 / 레이저 가공 / 워터젯 가공 / 플라즈마 가공 / 사출 금형 설계 / 사출 금형 제작 / 사출 금형 품질 관리 / 사출 금형 조립 / 프레스 금형 설계 / 프레스 금형 제작 / 프레스 금형 품질 관리 / 프레스 금형 조립 / 기계 수동 조립 / 운반 하역 기계 설치·정비 / 건설 광산 기계 설치·정비 / 섬유 기계 설치·정비 / 공작 기계 설치·정비 / 고무 플라스틱 기계 설치·정비 / 농업용 기계 설치·정비 / 승강기 설치·정비 / 냉동 공조 설계 / 냉동 공조 설치 / 냉동 공조 유지·보수 관리 / 자동차 전기·전자 장치 정비 / 자동차 엔진 정비 / 자동차 배기 정비 / 자동차 차체 정비 / 자동차 도장 / 자동차 정비 검사 / 선체 가공 / 선체 조립 / 선박 도장 / 선체 품질 관리 / 기장 생산 / 전장 생산 / 선장 생산 / 선실 의장 생산 / 선체 생산 설계 / 항공기 기체 제작 / 항공기 엔진·프로펠러 제작 / 항공기 전기·전자 장비 제작 / 항공기 기체 정비 / 항공기 가스 터빈 엔진 정비 / 항공기 왕복 엔진 정비 / 항공기 프로펠러 정비 / 항공기 계통 정비 / 항공기 전기·전자 장비 정비 / 헬리콥터 정비 / 항공기 정비 관리 【57책】

교과(군)	교과서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
재료		재료 시험 / 세라믹 재료 / 세라믹 원리·공정 / 재료 일반 / 산업 설비 【5책】	주조 / 제선 / 제강 / 금속 열처리 / 금속 재료 가공 / 금속 재료 신뢰성 시험 / 압연 / 비철 금속 제련 / 도금·도장 / 전기·전자 재료 / 광학 재료 / 내열 구조 재료 / 생체 세라믹 재료 / 유리·범랑 / 내화물 / 연삭재 / 도자기 / 시멘트 / 탄소 제품 / 판금 제관 / 배관 / 피복 아크 용접 /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 이산화탄소·가스 메탈 아크 용접 /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 로봇 용접 【26책】
화학공업		공업 화학 / 제조 화학 / 단위 조작 【3책】	화학 분석 / 화학 물질 관리 / 공정 제어 / 석유 화학 제품 / 고분자 제품 제조 / 무기 공업 화학 / 정밀 화학제품 제조 / 바이오 화학제품 제조 / 플라스틱 성형과 가공 / 생산 품질 관리와 설비 관리 【10책】
섬유·의류		섬유 재료 / 섬유 공정 / 염색·가공 기초 / 의류 재료 관리 / 패션 디자인의 기초 / 의복 구성의 기초 / 패션 마케팅 【7책】	방직 / 방사·사가공 / 제포 / 염색·가공 / 텍스타일 디자인 / 구매 생산 관리 / 생산 현장 관리 / 패션 디자인의 실제 / 패턴 메이킹 / 비주얼 머천다이징 / 서양 의복 구성과 생산 / 니트 의류 생산 / 가죽·모피 디자인과 생산 / 패션 소품 디자인과 생산 / 한국 의복 구성과 생산 / 패션 상품 유통 관리 【16책】
전기·전자		전기 회로 / 전기 기기 / 전기 설비 / 자동화 설비 / 전기·전자 기초 / 전자 회로 / 전기·전자 측정 / 디지털 논리 회로 【8책】	수력 발전 설비 운용 / 화력 발전 설비 운용 / 원자력 발전 설비 운용 / 송변전 배전 설비 운용 / 전기 기기 제작 / 내선 공사 / 외선 공사 / 자동 제어 기기 제작 / 자동 제어 시스템 운용 / 전기 철도 시공 운용 / 철도 신호 제어 시공 운용 / 전자 부품 생산 / 전자 부품 개발 / 전자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 전자 기기 개발 / 정보 통신 기기 개발 / 정보 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 반도체 개발 / 반도체 제조 / 반도체 재료 제조 / 디스플레이 생산 /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개발 / 로봇 하드웨어 개발 / 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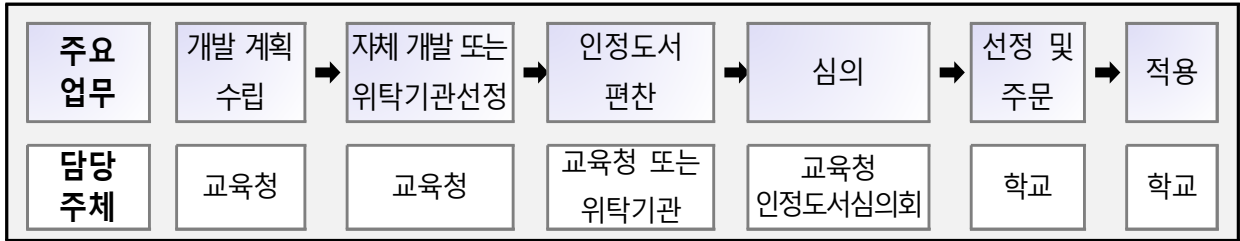
교과(군)	교과서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
			소프트웨어 개발 【24책】
정보·통신		통신 일반 / 통신 시스템 / 정보 통신 / 방송 일반 / 정보 처리와 관리 / 컴퓨터 구조 / 프로그래밍 / 자료 구조 / 컴퓨터 시스템 일반 / 컴퓨터 네트워크 【10책】	무선 통신 구축·운용 / 유선 통신 구축·운용 / 초고속망 서비스 관리 운용 / 방송 제작 시스템 운용 /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 시스템 운영 및 네트워크 운영 / 컴퓨터 보안 / 시스템 프로그래밍 / 소프트웨어 구조 / 응용 프로그래밍 /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11책】
식품가공		식품 과학 / 식품 위생 / 식품 가공 기술 / 식품 분석 【4책】	곡물 가공 / 식품 품질 관리 / 수산 식품 가공 / 면류 식품 가공 / 두류 식품 가공 / 축산 식품 가공 / 건강 기능 식품 가공 / 유제품 가공 / 김치·반찬 가공 / 음료·주류 가공 / 제과 / 제빵 【12책】
인쇄·출판·공예		인쇄 일반 / 디지털 이미지 재현 / 출판 일반 / 공예 일반 / 공예 재료와 도구 【5책】	프리프레스 / 평판 인쇄 / 특수 인쇄 / 후가공 / 출판 편집 / 금속 공예 / 도자기 공예 / 목공예 / 석공예 / 섬유 공예 / 보석 감정 / 보석 디자인 【12책】
환경·안전		환경 화학 기초 / 인간과 환경 / 산업 안전 보건 기초 【3책】	환경 보건 관리 / 환경 공정 관리 / 환경 생태 관리 / 생활 환경 관리 / 환경 측정 관리 / 기계 안전 관리 / 전기 안전 관리 / 건설 안전 관리 / 화공 안전 관리 / 비파괴 검사 【10책】
농림·수산업		농업 이해 / 농업 기초 기술 / 농업 경영 / 재배 / 농촌과 농지 개발 / 농산물 유통 / 농산물 유통 관리 / 농산물 거래 / 관광 농업 / 환경 보전 / 친환경 농업 / 생명 공학 기술 / 농업 정보 관리 / 농산 식품 가공 / 원예 / 생산 자재 / 조경 식물 관리 / 화훼 장식 기초 / 산림 휴양 / 산림 자원 / 임산 가공 / 동물 자원 / 반려동물 관리 / 실험 동물과 기타 가축 / 농업 기계 / 농업 기계 공작 / 농업 기계 운전·작업 / 농업과 물 / 농업 토목 제도·설계 / 농업 토목 시공·측량 / 해양의 이해 / 수	수도작 재배 / 전특작 재배 / 종자 생산 / 농업 환경 개선 / 농촌 체험 상품 개발 / 농촌 체험 시설 운영 / 채소 재배 / 과수 재배 / 화훼 재배 / 화훼 장식 / 임업 종묘 / 산림 조성 / 산림 이용 / 산림 보호 / 임산물 생산 / 버섯 재배 / 펄프 제조 / 목재 가공 / 가금 사육 / 젓소 사육 / 한우 사육 / 돼지 사육 / 말 사육 / 중축 / 사료 생산 / 동물 약품 제조 / 연안 어업 / 근해 어업 / 원양 어업 / 내수면 어업 / 염 생산 / 어업 자원 관리 / 어업 환경 개선 / 해면 양식 / 내수면 양식 / 수산 종묘 생산 / 수산 생물 질병 관리 / 어촌 체험 시설 운영 / 어촌 체험 상품 개발 / 수상 레저 기구 조종

교과(군)	교과서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
		산·해운 산업 기초 / 해양 생산 일반 / 해양 정보 관리 / 해양 오염·방제 / 전 자 통신 기초 / 전자 통신 운용 / 수산 일반 / 수산 생물 / 수산 양식 일반 / 수산 경영 / 수산물 유통 / 양식 생물 질병 / 해양 환경과 자원 / 해양 레저 관광 / 요트 조종 / 잠수 기술 【47책】	【40책】
선박운항		항해 기초 / 해사 일반 / 해사 법규 / 선박 운용 / 선화 운송 / 항만 물류 일 반 / 해사 영어(전자저작물 CD 포함) / 항해사 직무 / 해운 일반 / 열기관 / 선박 보조 기계 / 선박 전기·전자 / 기 관 실무 기초 / 기관 직무 일반 【14책】	항해 / 선박 통신 / 선박 기관 운전 / 선박 갑 판 관리 【4책】
총계	472책		

다. 인정도서 개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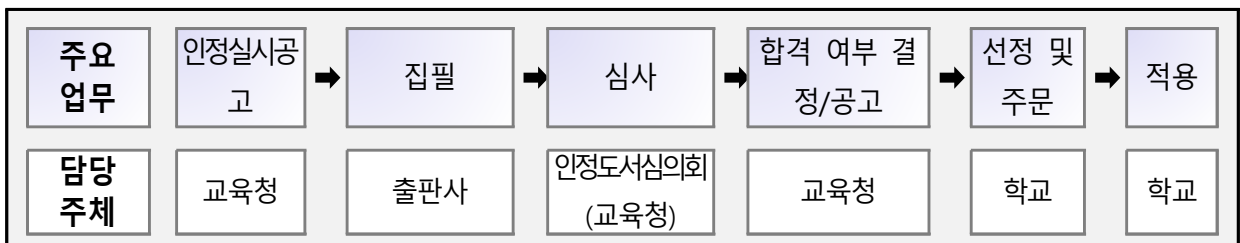
- (교육청 개발 도서) 개발 예정자 조사에서 민간 출판사의 개발 수요가 없는 교과목에 대하여 교육부가 개발비를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이 직접 또는 위탁 개발
 - ※ 시·도교육청 인정도서공동관리위원회에서 교육청 개발도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편찬 및 발행 공급 등을 위한 전담기관을 공모·선정하는 방안 검토
 - ※ 시·도교육청이 편찬기관, 발행·공급 기관을 선정, 위탁할 경우 교육부 개발 지원비 중 집필비는 편찬기관에, 편집·발행 예산은 발행·공급기관에 각각 교부

< 시·도교육청 자체 개발 인정도서 개발 과정 >



- (출판사 출원 도서) 개발 예정자 조사에서 출원 예정을 신청한 도서로 민간 출판사가 개발하고 교육청이 심사

< 출판사 출원 도서 집필 및 심사 과정 >



- (교육청 개발 도서의 집필진 구성) 분야별 대학 교수 및 교원, 현장 실무 전문가 등의 전국단위 인력풀*을 구성하고 참여 유도
 - * 인정도서 감수 및 수정·보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원 및 교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이 집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라.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기준 개발 및 적용

- (개발 기관) 시·도교육청
- (개발 대상) 중·고등학교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I
 - 시·도교육청에서 교과목별 개발팀을 구성하여 교육부에서 제시한 편찬상의 유의점(안)과 인정기준(안)을 분담된 교과(목)의 특성에 적합하게 수정 또는 개발
- (기본 방향)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교과용도서 집필 관련 기준 및 유의점 등의 반영
- 공통 및 교과(목)별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기준 개발

구분	개발 방향 및 주안점
편찬상의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체계와 성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편찬상의 유의점을 상세화 - ‘편찬상의 유의점’(공통 사항)과 연계하여 교과별 특성을 고려한 교과용도서 모형의 구체적 적용 방법 제시 - 교과목별 교과용도서의 적정한 분량(쪽수)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부록 등이 수록되지 않도록 지침 제시 * 2009 개정 교육과정 대비 교과서 평균 쪽수의 20% 감축하여 기준쪽수 제시
인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의 법질서 준수, 교육의 중립성 및 공정성 등의 유지를 위한 엄정한 심의기준 개발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별 성격과 특성, 성취기준 등이 교과용도서에 구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인정심의 기준 개발 - 교과별 특성에 맞게 새 교과서 모형이 구성 체제와 학습내용 등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의 인정심의 기준 개발

○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기준 개발 및 공고(‘15.11~12)

※ 시·도교육청별 ‘인정 실시 공고’ 시에 인정도서 ‘추후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제시’하고 개발된 편찬상의 유의점과 정해진 인정기준을 공고하여 홈페이지에 게시(‘15.12까지)

마. 인정도서심의회 구성·운영

(1) 개요

○ (구성 및 운영 주체) 시·도교육청

※ 근거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제40조제3항, 각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운영 규칙

○ (기능) 인정도서의 인정,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 인정 취소처분, 내용 수정 요청, 가격 조정 권고, 가격 조정 명령, 인정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등에 관한 사항

※ 교과서 개발·보급 이후 인정도서의 수정·보완에 대한 심의 관련 내용 포함

(2) 인정도서심의회 구성·운영

○ (심의회 구성) 시도교육청 관련 교육규칙*에 따라 구성

※ 인정 심사 도서 접수 이전에 심의회 구성(‘16.9경)하되 인정기준 결정을 위한 심의회는 ’15.12에 구성

- (심의위원)* 교육청이 분담 교과(목)별 교원, 교수, 현장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되 전문성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

* 각 시·도교육청의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교육규칙에 따라 구성

○ (심의회 운영) 인정 심사 도서 접수 이후부터 운영하되 심의위원연수 등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별 자체 운영

- (운영 일시) 각 교과(목)별 인정 심사 대상 도서 수에 따라 충분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운영 횟수

등은 유연하게 적용

- (심의 역량 제고) 심의위원별 인정심의 역량 제고를 위해 충분한 사전 연수*를 실시하여 위원별 심의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

※ 각 시·도교육청의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교육규칙에 따라 운영

* 심의위원 연수 대상자가 적을 경우 타 시·도교육청과 합동 연수 운영 등의 협의 검토

(3) 인정도서 심의

- (인정 심사) 관련 법령*에 따라 검정심사에 준하여 실시하며 기초조사와 본심사(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

* 「교과용도서제정법」 제16조제2항

※ 인정도서 심의는 검정심사에 준하되 교육청 자체 개발 도서는 심의를 통해 지속적 수정·보완하여 교과용도서로 개발하고, 출판사 출원 도서는 심사를 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및 심사 과정>



- (기초 조사)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
- (본 심사)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 심사

■ 1차 심사는 인정기준 및 내용 오류 등을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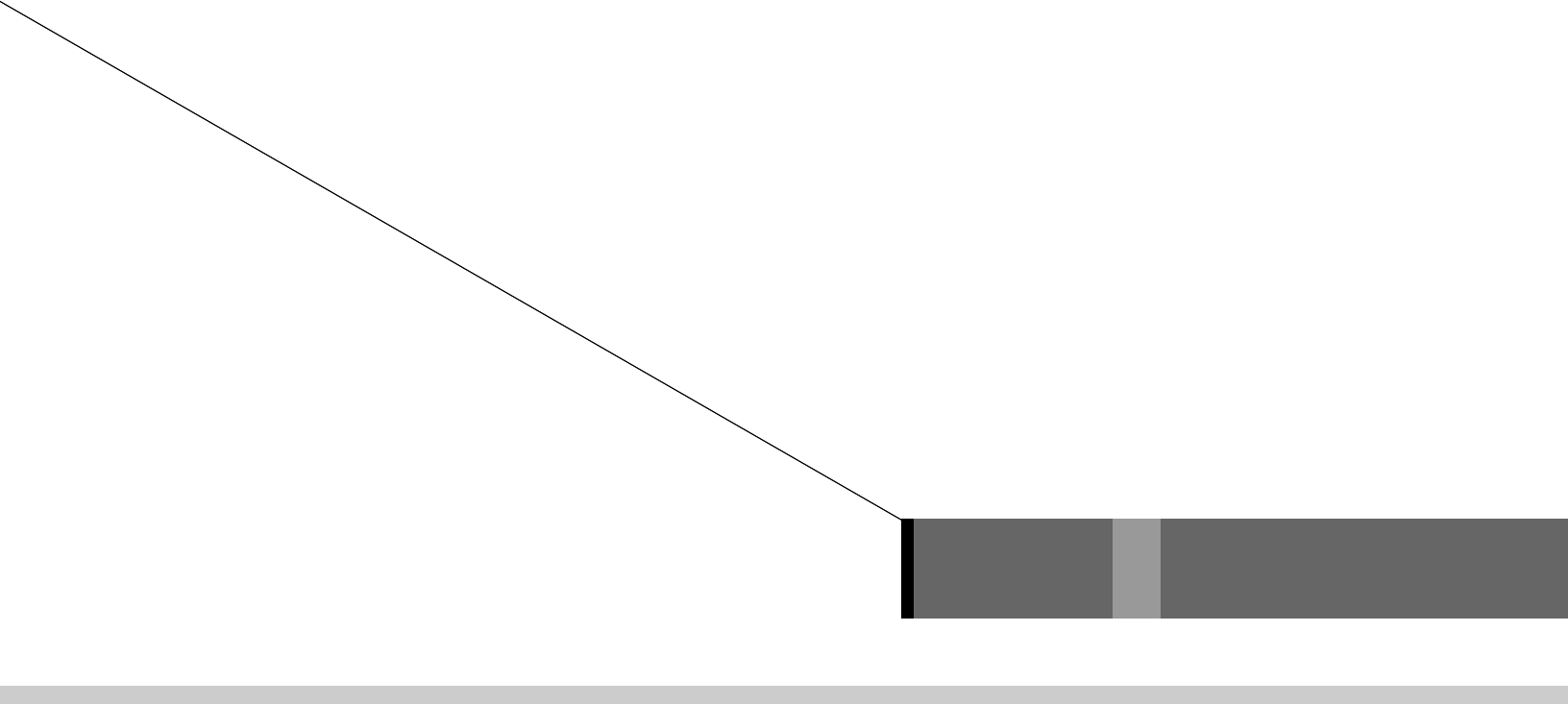
■ 2차 검사는 1차 심사에서 지시한 수정·보완 및 감수 이행 여부 확인

* 전문감수는 본심사 과정에서 내용 등에 대한 전문가 등의 검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 (인정 시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학생 선택 과목 개설 등을 고려하여 '17년도에 일괄 심의
- (인정 및 결과 통보) 최종 심사를 통과한 합격 도서는 시·도교육감이 인정 승인하고, NEIS에 등록하여 인정 신청권자에게 통지

바. 인정도서 개발 일정

단계	내용		일정	주관 기관
준비	교육과정 고시		'15.9(기 확정)	교육부
	인정도서 개발 시.도교육청 분담 지정		'15.10(기 지정)	교육부
	개발예정자 조사		'15.10(기 실시)	시·도교육청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	'15.11(기 확정)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 계획 수립	'15.11(기 수립)	교육부	
	인정도서 개발 기본 계획	'15.11(기 수립)	교육부	
↓				
개발 및 심사 공고	인정 실시 공고		'15.11	시·도교육청
	인정도서 개발 추진		'15.11~'16.12	시·도교육청, 민간 출판사
	교과용도서 개발 관련 연수		'15.11~'16.1	교육부,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15.12	시·도교육청
	인정도서 개발 계획 제출		'16.1	시·도교육청 ⇒ 교육부
	인정도서 개발 지원비 교부		'16.2 '17.2	교육부
↓				
심의·심사	인정도서 심의 (2017년)	인정 심사본 접수	'16.12	시·도교육청
		기초 심사	'17.1~'17.3	시·도교육청
		본 심사	'17.3~'17.7	시·도교육청
		이의 신청 심사, 수정본 검토	'17.7~'17.8	시·도교육청
		견본 접수 및 검수	'17.8~'17.9	시·도교육청
		최종 합격 공고	'17.9	시·도교육청
		NEIS 등록	인정 직후	시·도교육청
↓				
전시·선정 및 보급	전시		'17.9	유관기관 및 각급 학교
	선정·주문		'17.9~'17.11	각급 학교
	생산·공급		'17.11~'18.2	유관 기관
	현장 적용		'18.3 ~	각급 학교



부록 1.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 대한민국헌법(발췌)
- 교육기본법(발췌)
- 초·중등교육법(발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발췌)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전문)
- 저작권법(전문)

대한민국헌법(발췌)

[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부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부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기본법(발췌)

[시행 2015.1.20.] [법률 제13003호, 2015.1.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개정 2008.2.29>

⑤ 제4항에 따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0.]

초·중등교육법(발췌)

[시행 2015.9.28.] [법률 제13227호, 2015.3.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3.21.]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개정 2004.1.29>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제23조(교육과정등)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①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발체)

[시행 2015.9.28.] [대통령령 제26551호, 2015.9.2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9>

제43조(교과)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1.29., 2008.2.29., 2013.3.23., 2013.10.30.>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

②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은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교과와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과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제55조(교과용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6.] [대통령령 제25959호, 2015.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4. "국정도서"라 함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5.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6.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7. "개편"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음반·영상·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등) ①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에 따라 발행된 교과용도서를 최초로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선정·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8.>

②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8., 2014.10.8.>

③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를 다른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로 변

경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10.8.>

④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필요한 도서의 편찬 방법 및 내용 등 도서별 특징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0.8.>

⑤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교가 사용할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8.>

⑥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의 선정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10.8.>

[제목개정 2014.10.8.]

제2장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 및 인정

제4조(국정도서)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검정도서) 검정도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 외의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검정실시공고) ①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검정할 교과용도서의 종류
2. 신청자의 자격
3. 신청기간
4. 검정기준
5. 편찬상의 유의점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13.3.23.>

제8조(검정신청) 검정신청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이하 "저작자"라 한다)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한다.

제9조(검정방법) ①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10조(합격결정) ①검정의 합격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동일 학년의 하나의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검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검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③하나의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제10조의2(이의신청) ①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8.>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8.18.]

제11조(합격공고) 교육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3.3.23.>

1. 검정도서명
2. 검정연월일과 검정번호
3. 책수·판형·쪽수, 종류·수량·용량 및 사용환경(음반·영상·전자저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4. 지질과 제본방법
5. 사용대상학교
6. 최초 사용학년도
7. 저작자의 성명
8. 발행자의 주소·성명

제12조 삭제 <2009.8.18.>

제13조(검정수수료) ①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2010.1.6., 2013.3.23.>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①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해당 도서를 선정·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4., 2012.4.16., 2013.3.23., 2014.10.8.>

② 삭제 <2012.4.16.>

③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2.4.16., 2013.3.23., 2014.10.8.>

④ 삭제 <2012.4.16.>

제15조(인정기준) 교육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①교육부장관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한 도서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의 정당·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용도서로서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10조·제10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중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09.8.18.>

제17조(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①교육부장관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를 인정한 경우 인정을 신청한 학교 외의 학교는 별도의 인정신청없이 그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0.8.>

②학교의 장은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에 같음하여 선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0.8.>

③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과목에 관하여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가 있게 되거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당해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0.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인정·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6.19., 2008.2.29., 2009.8.18., 2013.3.23.>

제19조(심의회의 구성) 각 심의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4.6.19., 2008.2.29., 2013.3.23.>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제20조(위원장 등) ①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8.18., 2013.3.23.>

②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3.3.23.>

제23조(연구위원) ①검정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검정신청 도서마다 3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검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3.3.23.>

제23조의2(실무위원)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쇄·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8.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교과용도서 발행사가 추천하는 인쇄·출판, 원가계산분야의 종사자
 3. 교육부 소속공무원
- [본조신설 2004.6.19.]

제24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연구위원 및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6.19.>

제25조 삭제 <2004.6.19.>

제4장 수정 및 개편

제26조(수정) ①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8.>

제27조(개편) 교육부장관이 국정도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발행

제28조(발행자 선정)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정도서 가격결정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국정도서의 발행자를 선정한다.

[전문개정 2015.1.6.]

제29조 삭제 <2009.8.18.>

제30조(주문) 학교의 장은 매 학기에 사용할 교과용도서를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주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8.]

제31조(공급) 발행자는 교과용도서를 제조하여 당해 도서를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제6장 가격결정 <개정 2009.8.18.>

제32조(국정도서의 가격 등) ① 국정도서의 가격결정은 입찰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는 입찰과목군별 총 계약금액을 총 발행쪽수로 나누어 얻은 쪽당 평균정가에 해당 책의 쪽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33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①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거나 그 가격이 결정된 이후 도서개발에 투입된 비용(이하 "고정비"라 한다)을 출판사가 전부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1. 제조원가 중 도서의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제조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15 이상인 경우

2. 가격결정 항목 또는 비목(費目) 구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3. 예상발행부수보다 실제발행부수가 1천부 이상 많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격 조정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조정 금액은 재료비, 인쇄·제조비 또는 제작비(도서나 음반 및 전자저작물을 개발 하거나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비용으로서 인쇄·제본비 또는 복제비, 고정비 및 고정비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출판사 이윤, 저작자 인세, 도서개발 지원금, 공급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항목별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2.18.>

④ 제2항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2.18.>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2.18.>

[전문개정 2009.8.18.]

제34조 삭제 <2009.8.18.>

제35조 삭제 <2009.8.18.>

제36조 삭제 <2009.8.18.>

제37조(정가의 고시)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와 검정도서의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18.]

제7장 감독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교육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교과용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3.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4. 그 밖에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39조(청문)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합격의 취소

제8장 권한의 위임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2.4.16., 2012.11.6., 2013.3.23., 2014.2.18.>

1.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에 따라 각급 학교(「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에 관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의 결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처분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수정의 요청
5.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33조제2항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6.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행한 취소처분에 대한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 ②교육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인정도서를 인정하거나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18.>
- ③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 및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에 인정도서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8.18., 2014.2.18.>

제4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하여 201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18.]

부칙 <대통령령 제17634호, 2002.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과용도서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종도서는 이 영에 의한 국정도서로, 2종도서는 이 영에 의한 검정도서로 각각 본다.

제3조 (재검정제도의 폐기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한 재검정에 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국정도서의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종도서의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국정도서의 발행자로 선정된 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1종도서"를 "국정도서"로,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를 "발행자로 선정된 자"로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심사 및 의견 접수

나. 영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및 인정신청에 대한 합격결정

다.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도서의 합격공고

라.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 결정의 내용 및 이유 통지

마.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 금액의 결정·공고 및 수납

바. 영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심사

사.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수수료의 결정 및 수납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29호, 2004.6.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 본문, 제18조,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2조제5호·제6호, 제4조, 제5조 단서,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5조, 제16조

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단서, 제32조제1항 본문·제3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항·제4항·제6항 본문,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10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87호, 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용도서의 발행·공급·가격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자가 선정되었거나 선정과정이 진행 중인 국정도서와, 이미 행하여진 검정실시공고에 따라 검정신청을 하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발행·공급 및 가격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3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과 그 이유 통지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마. 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공고

부칙 <대통령령 제21978호, 2010.1.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43호, 2010.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26호, 2012.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영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정 심사 등(「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한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57호, 2012.11.6.>(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 본문, 제7조제2항, 제18조 및 제23조의2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조제5호·제6호, 제4조, 제5조 단서,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 제28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85호, 2014.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한 검정 또는 인정실시공고에 따라 저작자 또는 발행자 등이 검정 또는 인정신청을 한 후 그 가격이 최종 확정되지 아니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646호, 2014.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59호, 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137호, 2013.12.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8의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한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5.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22.]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30.>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4.22.>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2절 저작자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6.30.>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 표시된 자
-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1.12.2.>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9.4.22.>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12.30.>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에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⑨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1.>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4.22.>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⑥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 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수화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①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12.2.]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12.2.]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12.30.>

②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7.16.>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

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제25조·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4.22.]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제목개정 2011.6.30.]

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①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 <개정 2011.6.30.>

②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분으로 본다.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①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②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신설 2009.4.22.>

[제목개정 2009.4.22.]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2조(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절 등록 및 인증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2. 등록 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비밀유지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4.22.]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절 배타적발행권 <개정 2011.12.2.>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③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12.2.>

④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배포권·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제목개정 2011.12.2.]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①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②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③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제목개정 2011.12.2.]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①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②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

[제59조에서 이동 <2011.12.2.>]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①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1.12.2.>

②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제58조의2로 이동 <2011.12.2.>]

[제목개정 2011.12.2.]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 ①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②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2.>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발행등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59조로 이동 <2011.12.2.>]

[제목개정 2011.12.2.]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다. <개정 2011.12.2.>

1. 배타적발행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0조로 이동 <2011.12.2.>]

[제목개정 2011.12.2.]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제한 등) ①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1조로 이동 <2011.12.2.>]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신설 2011.12.2.>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

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

[종전 제63조는 제62조로 이동 <2011.12.2.>]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2.]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64조(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①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개정 2011.12.2.>

1. 실연

- 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 다. 제2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 라. 제3호 각 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

2. 음반

-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 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 라.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당해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약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3. 방송

-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 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②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2.>

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음반·방송과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음반 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그 실연·음반·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65조(저작권과의 관계)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66조(성명표시권)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동일성유지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8조(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66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권리(이하 "실연자의 인격권"이라 한다)는 실연자 일신에 전속한다.

제69조(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0조(배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대여권) 실연자는 제70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2조(공연권)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제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3.25.]

제77조(공동실연자) ①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이 절에 규정된 실연자의 권리(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15조의 규정은 공동실연자의 인격권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78조(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9조(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대여권) 음반제작자는 제79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1조(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75조제3항·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76조제3항·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3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3.25.]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84조(복제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5조의2(공연권)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11.6.30.]

제5절 저작권접권의 보호기간

제86조(보호기간) ①저작권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할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②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 등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①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②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제76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4.22.>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

제89조(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실연·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개정 2009.4.22., 2011.12.2.>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91조(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92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2.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③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95조(보호기간)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데이터베이스의 거래제공에 관하여는 제20조 단서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제48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데이터베이스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

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개정 2009.4.22., 2011.12.2.>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제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영상제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신설 2009.4.22.>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방법

[본조신설 2009.4.22.]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에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

②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를 한한다)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제

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

[본조신설 2009.4.22.]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4.22.]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①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2.]

제101조의6 삭제 <2011.12.2.>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①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22.]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2011.12.2.>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3조의2,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서 같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 라.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관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등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제공되는 저작물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 저장된 저작물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 라.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 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4.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 가.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나.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③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11.6.30.>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2011.12.2.>

⑥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30.>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①법원은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 계정의 해지
2.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②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의 삭제
2.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3. 특정 계정의 해지
4.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본조신설 2011.12.2.]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그 밖에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신설 2011.6.30.>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 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교육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
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되는 것
 2.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제28호나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6.30.]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2.>

1.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부가하는 행위
 2.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3.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변경되거나 거짓으로 부가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②제1항은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104조의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복호화(復號化)하는 데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진 장치·제품·주요부품 또는 프로그램 등 유·무형의 조치를 제조·조립·변경·수입·수출·판매·임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행위. 다만, 제104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복호화된 경우 그 사실을 알고 그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3.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1.12.2.]

[종전 제104조의4는 제104조의8로 이동 <2011.12.2.>]

제104조의5(라벨 위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저작물등의 라벨을 불법복제물이나 그 문서 또는 포장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2. 저작물등의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제작한 라벨을 그 허락 범위를 넘어 배포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다시 배포 또는 다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저작물등의 적법한 복제물과 함께 배포되는 문서 또는 포장을 불법복제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위조된 문서 또는 포장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1.12.2.]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1.12.2.]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제3자에게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1.12.2.]

제104조의8(침해의 정지·예방 청구 등)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손해배상이나 이를 갈음하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제104조의2제1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정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3조,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 및 제1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본조신설 2011.6.30.]

[제104조의4에서 이동 <2011.12.2.>]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에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및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8조(감독)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

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제1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1조(과징금 처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중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④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09.4.22.]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1. 분쟁의 알선·조정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113조의2(알선) ①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 ②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정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 ③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 ④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 ⑤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알선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22.]

제114조(조정부) ①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①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본조신설 2009.4.22.]

제115조(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부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제117조(조정의 성립) ①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조정비용 등) ①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조정의 신청 및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③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09.4.22.]

제119조(감정)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1.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 받은 경우
2.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①제113조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개정 2009.4.22.>

②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제121조 삭제 <2009.4.22.>

제122조(경비보조 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제113조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76조의2·제82조·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4.22.>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

정 2011.6.30.>

③삭제 <2011.6.30.>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9조의2(정보의 제공) ①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침해 행위나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가. 다른 당사자
나. 다른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
다. 다른 당사자의 후견인
2.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다른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제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정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법원은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을 신청한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의견을 특별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누구에게도 그 제공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12.2.]

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 ①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및 제101조의3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

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까지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 및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제129조의2제4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포함한다)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③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⑤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

제129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나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129조의3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와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129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①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비밀유지명령이 모두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열람 등의 신청 직후에 그 신청이 있었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신청 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신청 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10장 보칙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제131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32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1.12.2.>

1.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제89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록 사항의 변경·등록부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④삭제 <2009.4.22.>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4.22.>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③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

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22.]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4.22.]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②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③삭제 <2009.4.22.>

[제목개정 2009.4.22.]

제135조(저작권재산권 등의 기증) ①저작권재산권자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재산권자등으로부터 기증된 저작물등의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당해저작권재산권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등을 이용할 수 없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증 절차와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벌칙

제13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권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6.30.>

6. 삭제 <2011.6.30.>

[제목개정 2011.12.2.]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2(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12.2.>

[제목개정 2011.12.2.]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12.2.]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개정 2011.12.2.>

[전문개정 2011.6.30.]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12.2.>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제142조(과태료)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3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4.22.>
- ④삭제 <2009.4.22.>
- ⑤삭제 <2009.4.22.>

부칙 <법률 제8101호, 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저작물등의 이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2.>

제3조 (음반제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음반제작자는 이 법에 따른 음반제작자로 본다.

제4조 (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한 단체로 본다.

제6조 (법정허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은 이 법에 따른 법정허락으로 본다.

제7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은 이 법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저작권재산권자의 성명 등의 등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정되었으나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은 이 법에 따른다.

제9조 (미분배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25조제8항(제31조제6항·제75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3항·제28조제5항·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각 보상금별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지급단체로부터 권리자가 당해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연도 말일로 본다.

제10조 (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실연에 관하여는 이 법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12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저작권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및 그 심의조정위원은 이 법 제8장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제1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 "「저작권법」 제52조·제60조제3항·제73조 및 제73조의9"를 "「저작권법」 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 및 제98조"로 한다.

②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저작권법 제69조"를 "「저작권법」 제85조"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생략>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7>까지 생략

<268>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31조제5항 본문, 제50조제1항·제4항, 제51조, 제52조, 제5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76조제4항, 제103조제7항 후단,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본문·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8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 제111조제1항·제2항, 제1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3조제2호·제11호, 제122조제3항, 제130조, 제1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및 제1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529호, 2009.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625호, 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립준비) ①이 법에 따라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설립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되,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④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⑥위원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⑦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에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저작권위원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의무 및 고용관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부터 제122조까지 및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의무와 재산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5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프로그램의 이용은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다.

제6조(법정허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1. 법정허락
2.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 지정
3. 프로그램의 임치 및 수치인의 지정
4. 프로그램의 등록
5.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6. 부정복제물의 수거조치
7.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8. 분쟁의 알선·조정
9. 프로그램의 감정

제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 " 「저작권법」 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상

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으로 한다.

제150조의3제2항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규정에 의한"을 "「저작권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로 한다.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의2 및 제6조제2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9785호, 2009.7.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07호, 2011.6.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110호, 20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3조의3, 제125조의2 및 제129조의2부터 제1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 ①제3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101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을 부칙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1994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②같은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중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을 시행 전의 저작권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인접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회복되어 저작인접권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그 저작인접권은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저작권접권이 회복된 실연·음반·방송을 이 법 시행 전에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2항에 따른 저작권접권이 종전 법에 따라 소멸된 후에 해당 실연·음반·방송을 이용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작한 복제물은 이 법 시행 후 2년 동안 저작권접권자의 허락 없이 계속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저작권, 출판권"을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를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를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같은 법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을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903호, 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137호, 2013.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교과용도서의 표기·표현 사례

1. 표기 사례
2. 표현 사례
3. 사전 이용 방법

※ 부록 2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규정이 아닌 해설이나 연구 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부록 편의 자료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참조할 사안이지 공식 규정처럼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1 표기 사례

1.1. 맞춤법

한국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은 ‘한글 맞춤법’(1988년, 문교부 고시 제88-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충치, 자모,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띄어쓰기, 그 밖의 것, 문장 부호’에 관한 몇 가지 규정과 예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한글 표기법을 확인하려면 ‘한글 맞춤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면 된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의 규정은 대략적인 설명과 용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단어의 정확한 표기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사전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두 눈썹 사이에 잡히는 주름’을 뜻하는 단어의 표기가 ‘눈살’인지 ‘눈쌀’인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서 ‘눈살’과 ‘눈쌀’을 찾아 어떤 표기가 맞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 눈-살[-쌀]「명」,「1」두 눈썹 사이에 잡히는 주름. ㉠(눈살을) 펴다/(눈살을) 모으다/좁고 주름살 많은 이마 밑으로 찌푸려진 {눈살과} 튀어나온 광대뼈를 뺀히 건너다보았다.《한승원, 땅가시와 보리알》
- 눈-쌀「명」→ 눈살.

사전을 확인해 보면 ‘눈살’이 맞는 표기이고 ‘눈쌀’은 옳지 않은 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사이시옷

사이시옷은 한글 맞춤법 규정 제30항을 따른다. 따라서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꺾밥 나룻배 나룻가지 냇가 맺돌 머릿기름 모깃불
바닷가 뱃길 아랫집 잣더미 꺾대 햇별 헛바늘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넋나물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뒤편리 잇몸 꺾묵
넋물 빗물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꺾얼 뒤희 두렛일 텃일 텃입맛 베꺾잇 옷잇
꺾잎 나뭇잎 땃잎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꺾병 머릿방 사꺾밥 셋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찰잔 콧병 탕줄 텃세 꺾기 헛수 헛가루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꺾날 제삿날 훗날 텃마루 양칫물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가꺾일 사꺾일 예꺾일 훗일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뒤편(退間) 횡수(回數)

사이시옷의 정확한 표기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을 찾는 것이다. 사전에서 사이시옷이 있는 표기와 없는 표기 중 어떤 것을 올바른 표기로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사전에 제시된 표기를 따르면 된다. 참고로 맞춤법 규정의 사이시옷 적용 원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하루+밤, 하루+동안, 나무+잎, 장미+빛’의 올바른 표기가 무엇인지 궁금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올바른 표기를 찾을 수 있다.

- 하루+동안: ㉠ 합성어가 아님 ⇒ ‘하루 동안’
- 하루+밤: ㉠ 합성어 ⇒ 통과
 ㉡ ‘고유어+고유어’ ⇒ 통과
 ㉢ [하루뻘](된소리) ⇒ ‘하룻밤’
- 나무+잎: ㉠ 합성어 ⇒ 통과
 ㉡ ‘고유어+고유어’ ⇒ 통과
 ㉢ [나문닙] (‘ㄴ’소리 덧남) ⇒ ‘나뭇잎’

- 장미+빛: ㉔ 합성어 ⇒ 통과
- ㉕ ‘한자어+고유어’ ⇒ 통과
- ㉖ [장미뽕] (된소리) ⇒ ‘장밋빛’

㉗ 합성어인지 구인지 판단한다.

‘하루+동안’은 한 단어, 즉 합성어가 아니라 구이므로 ‘하루 동안’과 같이 띄어쓰기를 해야 하고 사이시옷을 받치어 쓸 수 없다.

㉘ 합성어일 경우,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인지 또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인지를 확인한다.

한자어끼리 결합하는 경우에는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를 제외하고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을 수 없다. ‘하루+밤, 장미+빛, 나무+잎’의 경우는 고유어끼리의 결합이거나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이므로 문제가 없다.

㉙ 소리를 확인한다.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가거나
-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거나
-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야 한다.

‘하루+밤’의 경우는 [하루뽕]으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하룻밤’으로 적는다. ‘장미+빛’도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장밋빛’으로 적는다. ‘나무+잎’은 [나문닙]으로 발음되며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므로 ‘나뭇잎’으로 적는다.

교과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사이시옷 오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특히 ‘소수점(*소숫점), 정수값(*정수값), 절댓값(*절대값), 꼭짓점(*꼭지점)’ 등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p>■ 합성어가 아닌데 사이시옷이 쓰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윗 줄 → 위 줄 • 아랫 줄 → 아래 줄 • 윗접시 → 위 접시 • 하룻동안 → 하루 동안 • 공기방울 → 공기 방울 • 손윗누이, 손윗 누이 → 손위 누이 • 손아랫누이 → 손아래 누이 	<p>■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리 수 → 자릿수 • 정수값 → 정숫값 • 좌표값 → 좌표값 • 결과값 → 결과값 • 위 글 → 윗글 • 아래 글 → 아랫글 • 어제밤, 어제 밤 → 어젯밤 • 꼭지점 → 꼭짓점 • 골치거리 → 골칫거리
<p>■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지 않는데 사이시옷이 쓰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윗층 → 위층 • 아랫층 → 아래층 • 햇팔 → 해팔 	<p>■ ‘곳간, 셋방, 숫자, 차간, 퇴간, 횡수’ 외의 다른 한자어에서 사이시옷이 사용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숫점 → 소수점 • 댕가 → 대가 • 백짓장 → 백지장 • 좇점 → 초점

2) 접사

(1) 피·사동 접사

한국어의 피동 접사는 ‘-이-, -히-, -리-, -기-’ 등이 있으며 사동 접사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이 있다. 이러한 피·사동 접사들은 각기 다른 동사 어간에 결합하는데 교과서 문장에서는 잘못된 피·사동 접사가 동사 어간에 결합한 예가 많이 나타난다.

- 뚜껑이 덮혀 있다. → 뚜껑이 덮여 있다.
- 끼여 달라고 → 끼워 달라고
- 발등이 덮히게 → 발등이 덮이게
- 부모의 반대에 부딪치는 → 부모의 반대에 부딪히는
- 정답을 못 맞췄다. → 정답을 못 맞혔다.
- 흥미를 돌구다. → 흥미를 돌우다.

(2) ‘-이’와 ‘-히’

어간에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명사에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어휘들이 있다.

어간+-이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짓궂이
어간+-히	밝히, 익히, 작히
명사+-이	곳곳이, 날날이, 뭉뭉이, 살살이, 앞앞이, 집집이

이러한 어휘의 경우 접사 ‘-이’와 ‘-히’의 표기가 혼동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부사의 끝 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히’를 발음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반드시 국어사전을 확인해야 한다.

- 노랫소리가 간간히 들려온다. → 노랫소리가 간간이 들려온다.
- 꼼꼼히 생각하니 역시 형 말이 맞아. → 꼼꼼이 생각하니 역시 형 말이 맞아.
- 그 마을은 산속 깊숙히 있었다. → 그 마을은 산속 깊숙이 있었다.
- 무한히 많은 모래알을 어떻게 헤아려. → 무한이 많은 모래알을 어떻게 헤아려.
- 가을바람에 낙엽이 산산히 흩날렸다. → 가을바람에 낙엽이 산산이 흩날렸다.

3) 어미

(1) ‘-이에요/-예요’

서술격 조사 ‘이-’에 ‘-예요’가 결합하면 ‘이에요’가 되고 줄어들면 ‘예요’가 된다.

그래프+이+예요. → 그래프예요.

‘이-’와 결합하는 선어말어미 ‘-었-’의 경우에도 ‘-었-’으로 잘못 표기되는 예가 종종 나타난다. 이 경우에도 ‘이-’에 ‘-었-’이 결합하면 ‘이었-’이 되거나 그 준말인 ‘였-’이 되어야 한다. ‘이었-’이나 ‘였-’으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

먼지투성이+이+있어요. → 먼지투성이었어요.

■ 이것이예요. → 이것이예요.

■ 곧 떠날 거예요. → 곧 떠날 거예요.

■ 그 색이예요. → 그 색이예요.

■ 아직은 애에요. → 아직은 애에요.

■ 그 동물은 양이였다. → 그 동물은 양이였다.

※ 형용사 ‘아니-’를 비롯한 용언에는 종결 어미 ‘-오’가 결합하지만, 부정의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 ‘아니’는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가 결합하여 ‘아니요’가 된다. ‘아니요’의 경우 ‘아니오’로 잘못 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한다.

■ 물음에 ‘예, 아니오’로 답하시오. → 물음에 ‘예, 아니요’로 답하시오.

■ 아니오, 괜찮으니 어서 오십시오. → 아니요, 괜찮으니 어서 오십시오.

■ 나는 그의 보호자가 아니오. → 나는 그의 보호자가 아니요.

(2) ‘-데/-대’

종결 어미 ‘-대’ 역시 -데’로 잘못 표기되는 사례가 많다. ‘-데’는 화자가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남에게 전달하는 말로, ‘-더라’와 바꿔 쓸 수 있는, 회상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형이 그런 말을 하데. (=형이 그런 말을 하더라.)

그 사람. 직접 겪어 보니 참 착하데. (=그 사람. 직접 겪어 보니 참 착하더라.)

‘-대’는 ‘-다고 해’의 준말로, 화자가 문장 속의 주어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청자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인다. ‘-대’는 시제형태소 ‘-ㄴ-, -는-, -었-, -겠-’ 등에 붙어 ‘-대, -ㄴ대, -는대, -었대, -겠대’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철수는 집에 있겠대. (=철수는 집에 있겠다고 해)..

동생은 그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뻔대요. (=동생은 그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뻔다고 해요.)

- 다들 내일 썬다는데? → 다들 내일 썬다는데?
- 내일 비가 온데. → 내일 비가 온데.
- 곧 두 살이 된대요. → 곧 두 살이 된대요.
- 신부가 예쁘데? (신부를 본 사람에게 신부가 예쁘더냐고 묻는 말.)

※ ‘-데’와 ‘-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 (1) 그 영화 참 재미있데.
- (2) 그 영화 참 재미있대.

위의 (1)은 화자가 직접 그 영화를 보고 ‘참 재미있더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고, (2)는 화자가 그 영화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대로 ‘재미있다더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한편, ‘-는데, -는데, -는데, -던데’ 등의 종결 어미들도 있어서 “오늘 날씨 참 시원한데”, “두 사람이 아주 잘 어울리는데”, “기분 좋은데”, “그 사람 참, 잘 달리던데!”처럼 쓰인다. 이 어미들에도 ‘-데’가 보이긴 하지만 스스로 감탄하는 뜻을 나타내며 보통 다른 사람의 의견이 어떠한지 묻는 의도를 내포하기도 하는 것으로 ‘-데’와는 뜻이 다르다.

(3) ‘되-/돼-’

‘되다’의 경우에는 ‘되어’, ‘되어라’, ‘되었다’에서 ‘되-’와 ‘-어’가 결합하여 줄면 ‘돼-’가 되어 각각 ‘돼’, ‘돼라’, ‘됐다’가 된다. ‘되-’가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돼-’로 줄지 않는다. 서로 혼동하는 일이 많으므로 ‘되-’에 ‘-어’가 결합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요. →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 돼요.
- 키가 어떻게 되요? → 키가 어떻게 돼요?
-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되. →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돼.
- 녹초가 되서 잠이 들었다. → 녹초가 돼서 잠이 들었다.
- 착한 사람이 돼라고 말했다. →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했다.
- 얼굴이 안되 보인다. → 얼굴이 안돼 보인다.

(4) ‘-게’, ‘-것’, ‘-스럽-’

어미 ‘-게’, 의존 명사 ‘것’, 접미사 ‘-스럽-’ 등의 경우에는 첫소리가 된소리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기이므로 유의한다.

- 먹을게. → 먹을게.
- 조사할게. → 조사할게.
- 처리해 드릴게요. → 처리해 드릴게요.
- 차가 당신 꺼야? → 차가 당신 꺼야?
- 아빠꺼 내꺼 → 아빠 꺼 내 꺼

- 내 꺼야 → 내 거야.
- 신고할꺼야 → 신고할 거야.
- 줄꺼예요 → 줄 거예요.
- 쑥스러운지 → 쑥스러운지
- 언젠가 후회할걸? → 언젠가 후회할걸.

4) 두음 법칙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어야 한다. 또한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어야 한다.

	녀, 뇨, 뉴, 니	랴, 려, 례, 료, 류, 리	라, 래, 로, 뢰, 루, 르
어두/비어두	여자/남녀	양심/개량	낙원/극락
의존 명사	몇 년, 2002 년	몇 리, 그릴 리가	
합성어	신-여성, 남존-여비	역-이용, 해외-여행	중-노동, 사상-누각
고유 명사	한국여자대학	신흥이발관	

- 일정 양 → 일정량
- 에너지량 → 에너지양
- 개최된 년도 → 개최된 연도
- 적라라하다 → 적나라하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 모음이나 ‘ㄴ’ 받침 외의 받침 뒤에서는 ‘렬, 룰’이 된다. 특히, 비율을 나타내는 ‘율(率)’의 경우에 잘못된 표기가 많이 나타나므로 유의한다.

- 진단률 → 진단율
- 음운률 → 음운율
- 오진률 → 오진율
- 음주률 → 음주율
- 회전률 → 회전율
- 외형율 → 외형률 (비교: 내재율)
- 취업율 → 취업률
- 발병율 → 발병률
- 압축율 → 압축률
- 체지방율 → 체지방률
- 프레임율 → 프레임률

※ 외래어 다음에 ‘율/률’이 올 경우에도 ‘율/률’의 적용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란/난’, ‘량/양’의 경우처럼 ‘한자어’, ‘고유어/외래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률04(率)’: 「접사」 ((‘ㄴ’ 받침을 제외한 받침 있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비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슛률(shoot率), 패스율(pass率), 영률(Young率)

1.2. 띄어쓰기

교과용도서의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규정을 따르되, 원칙과 허용 조항이 있는 경우, 교과용도서 편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을 따른다. 다만, 비록 ‘허용’ 조항이라 하더라도 관습적으로 굳어진 경우는 ‘허용’을 인정한다. 각 품사별 띄어쓰기 규칙은 다음을 따른다.

1) 명사

- 정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
- 예: 이순신, 금강산, 사랑, 연필, 하늘, 겨울, 친구, 이웃, 국가, 별, 것, 바, 수, 나뭇 등
- 용법: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1) 고유 명사

- 정의: 낱말의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하여 고유의 기호를 붙인 이름.
- 용법: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한글 맞춤법 48항 참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 | | | |
|------------|---------------------|--------------|
| ■ 김양수(金良洙) | ■ 정송강(鄭松江)(‘송강’은 호) | ■ 채영신 씨 |
| ■ 최학수(崔學洙) | ■ 서화담(徐花潭)(‘화담’은 호) | ■ 최치원 선생 |
| ■ 김영애(金榮愛) | ■ 이태백(李太白)(‘태백’은 자) | ■ 박동식 박사 |
| ■姜버들(姜-) | | ■ 충무공 이순신 장군 |

원 칙	허 용
남궁억	남궁 억
독고준	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	황보 지봉

한편, 성명 또는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官職名) 등은 고유 명사와 별개의 단위이므로 띄어 쓴다. 호나 자 등이 성명 앞에 놓이는 경우도 띄어 쓴다. 이러한 용법을 어긴 예들이 교과서에서 매우 많이 나타나므로 유의한다.

- 인구군 → 인구 군
- 백범 김구선생 → 백범 김구 선생
- 사사장(史社長) → 사 사장(史社長)
- 신입사원, 김평등씨 → 신입 사원, 김평등 씨
- 이나현기자입니다. → 이나현 기자입니다.
- 네이피어경 → 네이피어 경
- ○○○학생 → ○○○ 학생
- 김대리! → 김 대리!
- 샤를선생님 → 샤를 선생님
- 헤일즈(Hales)교수 → 헤일즈(Hales) 교수

다만, 고유어와 한자어에 ‘대왕(大王)’, ‘여왕(女王)’, ‘거서간’, ‘차차웅’, ‘마립간’ 등이 붙을 경우에는 띄어 쓰고 ‘왕(王)’이 붙을 경우에는 붙여 쓴다. 그러나 외래어에 붙을 경우에는 ‘왕(王)’도 띄어 쓴다. 고유어, 한자어에 ‘왕’이 붙는 경우와 외래어에 ‘왕’이 붙는 경우에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한다.

- 동명성왕 → 동명 성왕
- 세종대왕 → 세종 대왕
- 광개토대왕 → 광개토 대왕
- 의자 왕 → 의자왕
- 히에론왕 → 히에론 왕
- 쿠푸왕 → 쿠푸 왕

※ 우리 한자음으로 적는 중국 인명의 경우도 본항 규정이 적용된다.

- 소정방(蘇定方), 이세민(李世民), 장개석(莊介石)

(2)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기관명, 단체명 등)는 단위별로 띄어 쓴다. (단위별로 띄어 쓰는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필요시 허용함. 한글 맞춤법 제49항의 원칙 조항과 허용 조항 중 현실성을 고려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허용 조항을 우선함.)

우선 적용(단위별 띄어쓰기)	필요시 허용(단어별 띄어쓰기)
대한중학교	대한 중학교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서울대공원관리사무소 관리부 동물관리과	서울 대공원 관리 사무소 관리부 동물 관리과
한국방송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평가실 경영평가분석부	한국 방송 공사 경영 기획 본부 경영 평가실 경영 평가 분석부
인천국제공항	인천 국제공항
영동고속국도	영동 고속 국도
둔내터널	둔내 터널
광안대교	광안 대교
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복지 가족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 원자력 문화 재단
국제통화기금	국제 통화 기금
일본 눈꽃축제	일본 눈꽃 축제
청소년자원봉사단 나눔	청소년 자원봉사단 나눔
기후변화협약	기후 변화 협약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생물 종 다양성 연구소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한국 지질 자원 연구원
국제인구행동연구소	국제 인구 행동 연구소
학술원 부설 국어연구소	학술원 부설 국어 연구소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 직속 국가 안전 보장 회의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한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

또한, ‘도(道), 북도(北道), 남도(南道), 시(市), 읍(邑), 면(面), 리(里), 군(郡), 구(區), 동(洞), 해(海), 도(島), 섬, 만(灣), 역(驛), 양(洋), 사(寺), 선(線), 항(港), 산(山), 특별시, 광역시’가 붙는 우리말의 고유 명사는 붙여 쓴다. 그러나 ‘섬’의 경우에는 사전의 표제어가 아니면 띄어 쓴다.

■ 경기도 ■ 충청남도 ■ 과천시 ■ 신림동 ■ 서울역
 ■ 왕십리역 ■ 태평양 ■ 백담사 ■ 경부선 ■ 인천항
 ■ 백두산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제주 섬

산맥, 산, 강, 사막, 운하 등이 외래어 지명에 붙을 때는 띄어 쓰고 고유어·한자어 지명에 붙을 때는 붙여 쓴다.

■ 알프스 산맥 ■ 몽블랑 산(Mont Blanc) ■ 온타케 산(御岳)
 ■ 리오그란데 강 ■ 하야카와 강(早川) ■ 사하라 사막

- 수에즈 운하 ■ 도시마 섬(利島) ■ 태백산
- 낙동강 ■ 태안반도 ■ 나주평야
- 시라쿠사섬 → 시라쿠사 섬
- 도버해협 → 도버 해협
- 시아바라현 → 시아바라 현
- 헬리혜성 → 헬리 혜성
- 유라시아대륙과 북아메리카대륙 →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
- 퀘벡주 → 퀘벡 주
- 나일강 → 나일 강
- 아스완하이댐 → 아스완 하이 댐
- 태백 산맥 → 태백산맥, 변산 반도 → 변산반도, 개마 고원 → 개마고원

지리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말과 방위를 나타내는 말은 붙여 쓴다.

- 남아메리카, 북유럽,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북아메리카
- [주의] 남부 유럽, 북부 아시아, 유럽 북부, 아시아 북부

(3) 전문 용어

- 정의: 특정의 학술 용어나 기술 용어.
- 예: 만성 골수성 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모음 조화 등
- 용법: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동일 책 내에서는 원칙과 허용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전문 용어는 원칙과 허용이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한다. 즉, 원칙을 적용한 단어는 책 내에서 지속적으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허용을 적용한 단어는 일관되게 허용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명사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된 말의 수식을 받을 때는 붙여 쓰지 않는다.

간단한도면그리기 → 간단한 도면 그리기

또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체언이 접속 조사로 연결되는 구조일 때는 붙여 쓰지 않는다.

바닷말과 물고기끼르기 → 바닷말과 물고기 기르기

원 칙	허 용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중거리탄도유도탄
만국 음성 기호(萬國音聲記號)	만국음성기호
모음 조화(母音調和)	모음조화
긴급 재정 처분(緊急財政處分)	긴급재정처분
무한 책임 사원(無限責任社員)	무한책임사원
배당 준비 적립금(配當準備積立金)	배당준비적립금
손해 배상 청구(損害賠償請求)	손해배상청구
관상 동맥 경화증(冠狀動脈硬化症)	관상동맥경화증
급성 복막염(急性腹膜炎)	급성복막염
지구 중심설(地球中心說)	지구중심설
탄소 동화 작용(炭素同化作用)	탄소동화작용
해양성 기후(海洋性氣候)	해양성기후
두 팔 들어 가슴 벌리기	두팔들어가슴벌리기
무릎 대어 돌리기	무릎대어돌리기
여름 채소 가꾸기	여름채소가꾸기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전문 용어가 접속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문 용어 단위로 붙여 쓸 수 있다.

원칙	허용
감자 찌기와 달걀 삶기	감자찌기와 달걀삶기
기구 만들기과 기구 다루기	기구만들기와 기구다루기
도면 그리기와 도면 읽기	도면그리기와 도면읽기

(4) 합성 명사

- 정의: 어기 또는 그보다 큰 언어 단위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명사.
- 예: 담뱃갑, 이분, 마음속 등
- 용법: 합성어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교과서를 편찬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합성어와 구를 판별하는 것이다. 구는 띄어 쓰고 합성어는 붙여 쓰기 때문에 합성어와 구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은 합성어 판별을 국어학적인 기준을 고려하되, 그 단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태도도 고려하고 있다. 즉, 일상적으로 많이 붙여 써서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하고 있다고 판별한 경우는 합성어로 보고 붙여 쓰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 편찬 시에는 ‘합성어는 붙여 쓰고 구는 띄어 쓴다.’는 원칙을 지킨다. 따라서 하나의 단어가 합성어인지, 구인지를 판별하여 띄어쓰기를 적용하되,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삼는다. 동일한 구성이라 하더라도 어느 경우에는 합성어가 되고 어느 경우에는 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을 참고하여야 한다.

예) 창 + 밖 → 창밖

‘창밖’은 ‘창’과 ‘밖’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므로 붙여 쓴다. 그러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구로 보아 띄어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 집 + 밖 → 집 ∨ 밖

‘창밖’과 ‘집 밖’은 모두 ‘명사 + 명사’의 구성이지만 ‘창밖’은 합성어로 보아 붙여 쓰고 ‘집 밖’은 구로 보아 띄어 쓴다.

표제어	합성어	구
+각(角)	경사각, 밑각, 위치각, 입사각	진입 각
+갑	담뱃갑, 비눗갑, 성냥갑, 우유갑	화장품 갑
+나무	과일나무, 사과나무, 커피나무	라일락 나무
+년	딸년, 계집년, 상년, 쌍년	기생 년
+놈	아들놈, 어린놈, 아랫놈	손자 놈, 조카 놈, 친구 놈
+맥(脈)	날개맥, 그물맥	가로 맥, 세로 맥, 신경 맥
+밖	창밖, 문밖	집 밖, 나라 밖
+벽(壁)	철벽	씨방 벽
부실(不實)+	부실기업	부실 금융
+성(城)	모래성	유리 성
+속	가슴속, 마음속, 땅속, 물속, 꿈속, 바닷속	숲 속
+시(時)	사건시, 발화시, 비상시, 유사시, 평상시, 필요시, 통상시	회의 시, 출퇴근 시, 작업 시, 방송 시, 휴식 시
+약(藥)	설사약, 변비약, 눈약, 피부약, 회충약	촌충 약
+음(音)	마찰음	주요 음, 발파 음
+잎	나뭇잎, 호박잎	싸리 잎, 봉선화 잎, 상추 잎
+자(字)	로마자	기억 자, 엑스 자
+차(差)	개인차	실력 차, 압력 차
+차(車)	승용차, 응급차, 호송차	장난감 차
철(鐵)+	철벽	철 대문
청(靑)+	청기와, 청치마	청 대문
+통(桶)	물통, 술통, 밥통, 쓰레기통	빨래 통, 반찬 통, 플라스틱 통
+편(篇)	대화편	기초 편, 수필 편

※ 위의 예들은 동일한 구성이라 하더라도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랐을 때 합성어와 구로 구별되는 예들이다.

앞의 것들과 반대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합성어로 보고 반드시 붙여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합성어임에도 사전에 등재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합성어를 사전에 등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명사 ‘값, 금, 길, 꽃’ 등이 붙은 낱말은 비록 사전 미등재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표제어	사전 등재어	사전 미등재어
+감	사윗감, 장군감, 신랑감, 신붓감 구경감, 놀림감, 빨랫감, 안줏감	회장감, 대통령감, 총리감, 반장감
+값	옷값, 책값, 밥값, 떡값, 물값, 술값	기름값, 물건값, 신문값, 음식값 변속값, 분석값, 위상값, 저항값
+강(腔)	골강	심장강
+거리	반찬거리, 국거리, 안줏거리	논문거리
+과(科)	국어과	영어과, 수학과, 도덕과, 마취과
+관(管)	유리관	실험관
+광(光)	태양광	전등광
+구이	갈치구이	생선구이, 돼지양념구이
+군(群)	강군, 호수군, 화산군	어선군, 식물군, 아파트군
+군(軍)	예비군	시민군, 진압군, 나폴레옹군, 프랑스군
+굽이	강굽이, 물굽이	언덕굽이
+균(菌)	이질균, 살모넬라균	서해 표피균
+극(劇)	무언극, 사상극	일인극
금(金)+	금가락지, 금가루	금두꺼비, 금목걸이, 금수저
+급(級)	간부급, 폐터급, 장사급	천하장사급, 사장급
+길	등꽃길, 출근길, 여행길	산책길, 시장길
+꽃	장미꽃, 개나리꽃	도라지꽃, 무궁화꽃, 목련꽃, 민들레꽃
꽃+	꽃국, 꽃다지, 꽃소주	꽃장식
+난(難)	교통난, 구인난, 취직난	주차난
+냥이	돌실냥이	강진냥이, 고양냥이, 안동냥이
+대(臺)	건조대, 독서대	급수대, 조희대
+덩어리	꿀치덩어리, 사곶덩어리	애플덩어리
+덩이	꿀치덩이	심술덩이
+량/양(量)	노동량, 작업량 / 구름양, 높낮이양	수출량, 수입량 / 일양
+례(例)	판결례	작도례(作圖例), 인용례, 적용례(適用例)
+마님	영감마님, 대감마님	나리마님
+마마	상감마마, 아바마마	대비마마, 대왕마마
+막(膜)	점막, 보호막	펼침막
+망(網)	연락망, 통신망, 정보망, 조직망	점포망, 체신망
+면(面)	절단면, 접촉면, 비탈면	기름면, 경계면, 마찰면, 암반면
+명(名)	곡명	작품명, 저자명, 발행소명
모(母)+	모기업, 모회사	모은행
+무침	오징어무침, 가오리무침	미나리무침
+미(美)	송고미, 우아미, 골게미	음률미
반(半)+	반죽음, 반직업적	반감옥살이, 반농담
+반(班)	작업반	단속반
+방	만화방	토론방, 체험방, 호텔방
+발	갈대발, 고추발, 배추발	녹차발, 담배발
+병(兵)	휴가병, 노병	환자병
+병(瓶)	유리병	플라스틱병, 링거병, 요구르트병, 참기름병
+병(病)	간질병, 한센병	치아병
+볶음	버섯볶음, 갈비볶음	멸치볶음
+불(佛)	무량수불, 아미타불	사방불
+비(比)	삼각비, 황금비	유동비
+비(碑)	기념비, 광개토왕비	문학비, 문인비
+상(床)	검상	다과상, 생신상, 차례상

표제어	사전 등재어	사전 미등재어
+상(像)	관음상, 기마상	아버지상, 교사상, 성모 마리아상
+상(賞)	인기상, 개근상, 스탈린상	신인상, 감독상, 각본상
생(生)+	생고기, 생나물	생야채
+색(色)	노란색, 빨간색, 딸기색	바이올렛색
서(庶)+	서모, 서조모, 서자	
+선(線)	완성선, 엑션, 전자선	중성자선
+승(僧)	탁발승	수행승
+시(詩)	서정시, 연애시	애국시
+식(式)	분수식	곶셈식, 덧셈식, 나눗셈식, 뺄셈식
+신(神)	태양신	나무신
실(實)+	실과	실수령액, 실거래액
쌍(雙)+	쌍가락지, 쌍가마, 쌍곡선	쌍춘년
+씨	법씨, 복숭아씨, 살구씨, 호박씨	굴씨, 배추씨, 사과씨, 조개씨
+안(案)	개헌안	개혁안, 채택안, 해결안
+알	감자알, 바둑알, 밤알, 씨알	머루알, 은행알, 타조알
+액(液)	냉각액, 링거액	비누액, 글리세린액, 수정액
+열(熱)	가열(假熱)	홍반열
+염(炎)	구내염	임파선염
+염(鹽)	암염	용해염
옥(玉)+	옥가락지, 옥가루	옥재떨이, 옥매트, 옥침대
왜(倭)+	왜간장, 왜모시, 왜떡, 왜틀, 왜왕	
은(銀)+	은거울, 은공예	은갈치, 은귀고리, 은목걸이, 은찰잔
자(子)+	자회사	
+전(傳)	자서전, 홍길동전, 심청전	
+점(點)	중심점, 한계점, 인접점	중간점, 해결점
+조(組)	기습조, 삼인조, 전투조	수비조, 습격조, 폭파조
+죄(罪)	간통죄, 사기죄	모독죄
+주(株)	우량주, 전환주	
+주의(主義)	민주주의, 이상주의	신앙주의
+즙(汁)	겨자즙, 과일즙	미나리즙, 식료즙, 배즙, 양파즙, 칙즙
+직(職)	경관직	국회 의원직, 장관직
+진(鎭)	거진(巨鎭)	부산진
+질(質)	근육질	가죽질, 화장암질
+집	국숫집, 고깃집, 꽃집, 점집	갈빗집, 피자집
+찜	갈비찜	해물찜
+채(菜)	오이채, 무채, 송이채	고사리채
+책(冊)	소설책, 만화책	국어책, 노래책, 익힘책, 음악책
+초(醋)	감초, 생강초, 파실초	굴초, 사과초
+총(銃)	기관총	쌍발총
+축(軸)	수평축	수직축, 피동축(被動軸)
+침(針)	분침, 시침, 초침, 피뢰침	한방침
+탄(炭)	조개탄	배합탄
+탄(彈)	철갑탄, 저격탄	피갑탄, 일체탄, 단총탄
+탕(湯)	설령탕, 우거지탕	도가니탕
+터	낚시터, 놀이터, 배움터, 샘터	나눔터
+튀김	고구마튀김, 닭튀김	오징어튀김
+티	시골티, 촌티	막내티, 중년티
+파(派)	그노시스파, 프란체스코파	마르크스파
+판(板)	과녁판, 광고판, 금속판, 유리판	고무판, 나무판, 점토판, 흙판
+판(版)	가판(架版)	한글판, 영문판
+패(牌)	감사패	증명패
+표(表)	가격표, 시간표, 조사표, 분류표, 가로 자리표, 세로 자리표, 계산표, 계획표	목표표, 세율표, 생활표, 배열표, 점수표, 점검표
+표(票)	차표, 기차표, 배표, 찬성표, 반대표	비행기표, 영화표

표제어	사전 등재어	사전 미등재어
+표(標)	마침표, 도돌이표, 물음표, 느낌표	세모표, 네모표
+함(函)	보석함, 사물함, 보관함	열쇠함, 폐지함
+함(艦)	전투함	이지스함
+형(刑)	금고형, 감금형	자격 정지형
+회(會)	친목회, 동창회	제비꽃회, 전우회, 어머니회
후(後)+	후백제, 후보름, 후삼국	후고구려
동·서·남·북, 상·하+	‘동(東), 서(西), 남(南), 북(北), 상(上), 하(下)’는 뒷말에 붙여 쓴다. <예> 동서울, 서대구, 남수원, 북부산, 상이집트, 하이집트	

※ ‘○○놀이/○○V놀이’의 띄어쓰기

- (1) 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 있는 ‘○○놀이’는 그대로 붙여 쓴다.
- 적용례: 기차놀이 ⇨ 표제어로 올라 있으므로 ‘기차놀이’로 붙여 씀.
- (2) 한 단어는 아니지만 사전에 올라 있는 경우도 사전을 따른다.
- 북청^ㅅ사자놀이 「민속」…… ⇨ 사전에 따라 ‘북청^ㅅ사자놀이’로 띄어 쓴다.
- (3) 사전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고 “표준국어대사전” ‘놀이’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붙여 쓰도록 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놀이’를 붙여 쓴다.
- 놀-이1 「명사」……「4」((일부 명사 뒤에 붙어)) ‘모방’, ‘장난’, ‘흥내’의 뜻을 나타내는 말.
 『시장놀이/병원놀이/엄마놀이/학교놀이』
 - 적용례
 [띄어 쓰는 경우]
 - 인사말V놀이 ⇨ ‘인사말을 하면서 하는 놀이’의 뜻이므로 해당하지 않음.
 - 주사위V놀이 ⇨ ‘주사위를 가지고 노는 놀이’이므로 해당하지 않음.
 - 블록V놀이 ⇨ ‘블록’을 가지고 노는 놀이
 - 끝말잇기V놀이 ⇨ 끝말을 이으며 노는 놀이
 - 손뼉치기V놀이 ⇨ 손뼉을 치면서 하는 놀이
 - 모래V놀이 ⇨ 모래를 가지고 노는 놀이
 ※ 사전 뜻풀이의 ‘모방, 장난, 흥내’에서 ‘장난’은 선행어의 역할을 장난으로 하는 것을 뜻하므로 ‘모래를 가지고 노는 놀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붙여 쓰는 경우]
 - 역할놀이 ⇨ ‘특정한 역할을 하는 놀이’이므로 해당함.
 - 토끼놀이 ⇨ ‘토끼를 흥내 내면서 노는 놀이’이므로 해당함.
 - 시장놀이 ⇨ ‘시장(市場)의 상황을 모방하면서 노는 놀이’이므로 해당함.
- (4) ‘놀이’ 앞의 말이 구 이상인 경우에는 한 단어로 붙여 쓰지 않는다.
- 적용례
 - 궁금해V놀이 ⇨ ‘궁금해’는 활용형임.
 - 고리V던지기V놀이 ⇨ ‘고리 던지기’가 구임.
 - 다섯V고개V놀이 ⇨ ‘다섯 고개’가 구임.

※ 다음은 합성 명사인데도 잘못 띄어 쓰는 경우가 많은 예들이다.

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다음</u> <u>날</u>에 만나면 식사나 하죠. → <u>다음날</u>에 만나면 식사나 하죠. • 이 기회를 놓친다면 언제 또 <u>다음</u> <u>번</u>을 기다리겠나? → 이 기회를 놓친다면 언제 또 <u>다음번</u>을 기다리겠나? 	
+사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u>사이</u>에 → 그<u>사이</u>에 • 밤 <u>사이</u>에 → 밤<u>사이</u>에 	
우리+	합성 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u>나라</u> → 우리<u>나라</u> • 우리 <u>말</u> → 우리<u>말</u> • 우리 <u>글</u> → 우리<u>글</u> • 우리<u>말과</u> <u>글</u> → 우리(의) <u>말과</u> <u>글</u>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u>은하</u> → 우리 <u>은하</u> • 우리<u>반</u> → 우리 <u>반</u> • 우리<u>학교</u> → 우리 <u>학교</u> • 우리<u>문화</u> → 우리 <u>문화</u> • 우리<u>민족</u> → 우리 <u>민족</u> • 우리<u>옷</u> → 우리 <u>옷</u> • 우리<u>사회</u> → 우리 <u>사회</u> • 우리<u>땅</u> → 우리 <u>땅</u>
이+/그+/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는 <u>이</u> <u>때</u>다. → 기회는 <u>이때</u>다. • 통일이 될 <u>그</u> <u>때</u>를 기다리자. → 통일이 될 <u>그때</u>를 기다리자. • 저 사람은 <u>접</u> <u>때</u>보다 더 건강해졌다. → 저 사람은 <u>접때</u>보다 더 건강해졌다. • <u>그</u> <u>동안</u> 안녕하셨어요? → <u>그동안</u> 안녕하셨어요? • 그들은 3월 <u>초</u>에 처음 만나서 <u>그</u> <u>달</u> 말에 약혼했다. → 그들은 3월 <u>초</u>에 처음 만나서 <u>그달</u> 말에 약혼했다. 	
지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지난</u> <u>봄</u>에는 → <u>지난봄</u>에는 • <u>지난</u> <u>번</u> 청소 시간에 → <u>지난번</u> 청소 시간에 • <u>지난</u> <u>해</u>는 → <u>지난해</u>는 • <u>지난</u> <u>달</u> → <u>지난달</u> • <u>지난</u> <u>날</u>을 그리워하다 → <u>지난날</u>을 그리워하다. • 나는 <u>지난</u> <u>밤</u>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 → 나는 <u>지난밤</u>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한+	합성 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이나 <u>한번</u> 물어봐. • <u>한번</u><u>에</u>(<u>단숨</u>에) 알아들었다. • <u>한번</u> 정리해 볼까요? • <u>한눈</u>에 반하다.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u>한</u> <u>번</u>쯤은 실수를 한다. • <u>한</u> <u>번</u>만 더 해 보자. • 하루에 <u>한</u> <u>번</u>씩 만났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네에게 <u>뒷</u> <u>일</u>을 부탁하네. → 자네에게 <u>뒷일</u>을 부탁하네. • 내일 <u>이</u><u>맘</u> <u>때</u> 만나자. → 내일 <u>이맘때</u> 만나자. • <u>단</u> <u>시간</u>에 끝내다. → <u>단시간</u>에 끝내다. • 걱정이 <u>이</u><u>만</u> <u>저</u><u>만</u>이 아니다. → 걱정이 <u>이만저만</u>이 아니다. • 독서 <u>이</u> <u>외</u>의 것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 독서 <u>이외</u>의 것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 다음은 명사이지만 명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주 붙여 쓰는 예들이다.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격때 → 공격 때
밖/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밖의 → 그 밖의 교실밖의 수학 → 교실 밖의 수학 그외의 → 그 외의 사용하는 사람외에 → 사용하는 사람 외에
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속에서 → 사회 속에서 어둠속에 → 어둠 속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자이내 → 16자 이내 1m이내 → 1m 이내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일이상 → 10일 이상 만 20세이상 → 만 20세 이상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0만원이하 → 500만 원 이하 100이하 → 100 이하
전,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전 → 1년 전 교사가 되기전 → 교사가 되기 전 1년후 → 1년 후 방과후 → 방과 후
짓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쁜짓 → 나쁜 짓 꼬리짓 → 꼬리 짓
차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여차례 → 50여 차례 <p>(다만, ‘수차례’는 합성 명사로서 붙여 씀.)</p>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 지원팀 → 고객 지원 팀 승리팀 → 승리 팀 다국적팀 → 다국적 팀

※ ‘한번’의 띄어쓰기

‘한번’이 한 단어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닐 때이다.

- 한-번[1], 「명」[1](주로 ‘-어 보다’ 구성과 함께 쓰여)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말. ¶ {한번} 해 보다/{한번} 먹어 보다/제가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이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봐. 심심한데 노래나 {한번} 불러 볼까?/얼마인지 가격이나 {한번} 물어봐.§ 「2」기회 있는 어떤 때. ¶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시간 날 때 낚시나 {한번} 갑시다./언제 {한번} 찾아가 뵙고 싶습니다./큰 병원에 {한번} 가서 진찰을 받아 보자.§ 「3」(주로 ‘한번은’ 꼴로 쓰여) 지난 어느 때나 기회. ¶ {한번은} 그런 일도 있었지./언젠가 {한번은} 길에서 그 사람과 우연히 마주친 일이 있었어./{한번은} 네 거리에서 큰 사고를 낼 뻔했다.§

「II」, 「부」(명사 바로 뒤에 쓰여)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 {한번} 잘 춘다./공 {한번} 잘 찬다./너, 말 {한번} 잘했다./고 녀석, 울음소리 {한번} 크구나./동네 인심 {한번} 고약하구나.

(5) 의존 명사

- 정의: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
- 용법: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한글 맞춤법 42항 참고).

①일반 의존 명사

일반 의존 명사는 띄어 써야 한다. 그러나 몇몇 의존 명사는 다른 품사로 쓰이는 동음이의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합성 명사를 이루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품사와 의미를 확인하여 띄어쓰기에 오류가 없도록 한다. 띄어쓰기에 유의해야 할 일반 의존 명사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관용에 따라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는 의존 명사

※ 의존 명사 ‘거리’는 그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내용이 될 만한 재료’라는 뜻으로 명사 바로 뒤에 붙을 경우에는 관용에 따라 붙여 쓴다. 만약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는 표기 환경이면 사이시옷까지 쓰도록 한다.

거리	띄어 쓰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반나절거리</u>도 안 되는 일을 종일 하고 있구나. → <u>반나절 거리</u>도 안 되는 일을 종일 하고 있구나. • 그 과일은 <u>한 입거리</u>밖에 안 된다. → 그 과일은 <u>한 입 거리</u>밖에 안 된다. • <u>마실거리</u> 좀 내오너라. → <u>마실 거리</u> 좀 내오너라. • <u>일할 거리</u>, <u>토의할 거리</u>, <u>의논할 거리</u> 등
	붙여 쓰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거리 → 국거리(표제어), • 반찬 거리 → 반찬거리(표제어) • 꿀치 거리 → 꿀치거리(표제어), • 이야기 거리 → 이야기거리(표제어) • 일 거리 → 일거리(표제어는 아니지만 붙여 쓸 대상임) • 논문 거리 → 논문거리(표제어), • 먹을 거리 → 먹을거리(표제어) • 볼 거리 → 볼거리(표제어), • 읽을 거리 → 읽을거리(표제어) • 비웃음 거리 → 비웃음거리(표제어는 아니지만 붙여 쓸 대상임) • 논쟁 거리 → 논쟁거리(표제어는 아니지만 붙여 쓸 대상임) • 가십 거리 → 가십거리(표제어는 아니지만 붙여 쓸 대상임) • 기사 거리 → 기사거리(표제어는 아니지만 붙여 쓸 대상임)

■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접미사, 조사, 어미가 있는 의존 명사

※ 의존 명사 ‘님, 차, 간(間)’은 동일한 형태의 접미사가 존재하며, ‘대로, 만, 뿐’은 동일한 형태의 조사가 있고, ‘듯, 바, 뿐, 지’는 ‘-듯(이), -은바, -는바, -(으)르뿐더러, -지’와 같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어미가 있으므로 의존 명사를 접미사나 조사, 어미로 잘못 알고 붙여 쓰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홍명순</u>님은 유명한 화가이십니다. → <u>홍명순</u> <u>님</u>은 유명한 화가이십니다. • <u>명순</u>님은 유명한 화가이십니다. → <u>명순</u> <u>님</u>은 유명한 화가이십니다. <p>※ 주의: 선생님, 해님 (접미사)</p>
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약해질대로</u> 약해지다. → <u>약해질</u> <u>대로</u> 약해지다. • <u>될 수 있는대로</u> 빨리 오다. → <u>될 수 있는</u> <u>대로</u> 빨리 오다. • <u>예상한대로</u> → <u>예상한</u> <u>대로</u> <p>※ 주의: 너는 너대로 가라. (조사)</p>
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는 잘 <u>아는듯</u> 말하였다. → 아이는 잘 <u>아는</u> <u>듯</u> 말하였다. • 아기는 아버지를 <u>빠다</u> <u>박은듯</u> 닮았다. → 아기는 아버지를 <u>빠다</u> <u>박은</u> <u>듯</u> 닮았다. <p>※ 주의: 구름에 달 가듯 가는 나그네. (어미)</p>
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3년만에</u> 만난 사람 → <u>3년</u> <u>만에</u> 만난 사람 • <u>신뢰할만</u> 하다는 것이다. → <u>신뢰할</u> <u>만</u>하다는 것이다. <p>※ 주의: 너만 있으면 돼. (조사)</p>
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어찌할바를</u> 모르다. → <u>어찌할</u> <u>바를</u> 모르다. • 우리는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내외에 <u>천명하는바이다</u>. → 우리는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내외에 <u>천명하는</u> <u>바이다</u>. <p>※ 주의: 서류를 검토한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어미)</p>
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문으로만 <u>들었을뿐이네</u>. → 소문으로만 <u>들었을</u> <u>뿐이네</u>. • 시간만 <u>보냈다뿐이지</u> 한 일은 없다. → 시간만 <u>보냈다</u> <u>뿐이지</u> 한 일은 없다. • 쉬울뿐 아니라 → 쉬울 <u>뿐</u> 아니라 <p>※ ‘뿐’이 ‘남자뿐이다, 셋뿐이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 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로 다루어 붙여 쓴다. 또한, ‘-(으)르뿐더러’는 하나의 어미이므로 ‘-(으)르 뿐더러’로 띄어 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p>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입사한지가</u> 3년이 지났다. → <u>입사한</u> <u>지</u>가 3년이 지났다. • <u>보관한지</u> 3일째인가? → <u>보관한</u> <u>지</u> 3일째인가? <p>※ 주의: 혼자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어미) 먹을지 말지 고민하는 중이다.</p>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들은 선생님 <u>택을</u> <u>수십차</u> 방문했다. → 그들은 선생님 <u>택을</u> <u>수십</u> <u>차</u> 방문했다. • 고향에 <u>갔던차에</u> 선을 보았다. → 고향에 <u>갔던</u> <u>차에</u> 선을 보았다. <p>※ ‘차(次)’가 ‘연수차(研修次) 도미(渡美)한다.’처럼 명사 뒤에 붙어서 ‘…하려고’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쓴다.</p>
간(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자식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 부모와 <u>자식</u> <u>간</u>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u>간</u>에 열심히만 해라. →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u>하든지</u> <u>간</u>에 열심히만 해라. <p>[예외] 부부간, 부자간, 형제간</p>

■ 합성어를 이루는 의존 명사

※ 의존 명사 ‘판’은 다른 명사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루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판	의존 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 죽고 사는<u>판</u>에 너는 편하게 앉아 있지? → 사람이 죽고 사는 <u>판에</u> 너는 편하게 앉아 있지? • 장기를 <u>세판이나</u> 두었다. → 장기를 <u>세 판이나</u> 두었다.
	합성어의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름<u>판</u>, 씨름<u>판</u>, 웃음<u>판</u>

② 단위성 의존 명사

한 <u>개</u> /여섯 <u>개</u>	차 한 <u>대</u>	금 서 <u>돈</u>
소 한 <u>마리</u>	옷 한 <u>벌</u>	열 <u>살</u>
조기 한 <u>손</u>	연필 한 <u>자루</u>	버선 한 <u>죽</u>
집 한 <u>채</u>	신 두 <u>켤레</u>	북어 한 <u>패</u>

※ 어문 규정에서는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교과서에서는 붙여 쓰도록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띄어 쓰는 경우는 드물고 붙여 쓰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원 칙	허 용	교과서
1446 년 10 월 9 일	1446년 10월 9일	1446년 10월 9일
16 동 502 호	16동 502호	16동 502호
80 원	80원	80원
10 개	10개	10개
7 미터	7미터	7미터
2 년 전	2년 전	2년 전
10 개 항	10개 항	10개 항

※ 수효를 나타내는 ‘개년, 개월, 일(간), 시간’ 등은 붙여 쓰지 않는다.

예) 삼(개)년 육개월 이십일(간) 체류하였다.

→ 삼 (개)년 육 개월 이십 일(간) 체류하였다.

그러나 ‘삼 년 육 개월 이십 일’이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되면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단, 교과서에서는 붙여 쓰도록 한다.

원 칙	허 용	교과서
3 년 6 개월 20 일간	3년 6개월 20일간	3년 6개월 20일간

2) 대명사

- 정의: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 또는 그런 말들을 지칭하는 품사.
- 예: 저, 너, 우리, 너희, 자네, 누구, 거기, 무엇, 그것, 이것, 아무것, 저기 등
- 용법: 대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대명사의 경우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 대명사를 대명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주 붙여 써서 문제가 되므로 주의한다.

김모(某) 형사는 범인을 놓쳤다. → 김 모(某) 형사는 범인을 놓쳤다.

※ 합성 대명사의 경우 이들이 합성어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띄어 쓰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것, 그것, 저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것은 연필이다. → <u>이것은</u> 연필이다. 네 옆에 있는 <u>그 것이</u> 무엇이나? → 네 옆에 있는 <u>그것이</u> 무엇이나? 저 것을 좀 보십시오. → <u>저것을</u> 좀 보십시오.
이분, 그분, 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분은 → <u>그분은</u> 이 분은, 이 분께 → <u>이분은</u>, <u>이분께</u> 저 분만 → <u>저분만</u>
이이, 그이, 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 <u>이 이</u>가 누구죠? → 형! <u>이이가</u> 누구죠? <u>그 이</u>는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 <u>그이는</u>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u>저 이</u>는 꼭 배우 같아! → <u>저이는</u> 꼭 배우 같아!

3) 수사

- 정의: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
- 예: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제일(第一), 제이(第二) 등
- 용법: 수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첫번째’를 수사로 보고 붙여 쓰는 경우가 많은데, ‘첫’은 관형사고 ‘번째’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한다. 또한 ‘제일(第一)’을 적을 때 ‘제(第)’를 띄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제(第)’는 한자어 접두사이기 때문에 뒷말에 붙여 써야 한다.

- 첫번째 → 첫 번째
- 두번째 → 두 번째
- 몇번째 → 몇 번째
- 제 일차 회의 → 제일차 회의
- 제 1차 회의 → 제1차 회의
- 그는 친구 몇 몇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 → 몇몇과
- 몇 몇 친구들은 → 몇몇 친구들은

(‘몇몇’은 수사이지만 수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주 띄어 쓰므로 주의한다.)

※ 순서를 나타낼 때에는 ‘첫째 번, 둘째 번’은 쓰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를 쓴다.

4) 합성 용언(합성 동사/합성 형용사)

- 정의: 어기 또는 그보다 큰 언어 단위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용언.
(합성 동사/합성 형용사)
- 예: 못하다, 잘되다, 관계있다, 관계없다, 흘러내리다 등
- 용법: 합성어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합성 용언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인데 한 단어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띄어 쓰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합성 용언의 경우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 정확한 표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서에서 띄어쓰기 오류가 자주 발견되는 합성 용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부사 ‘못’, ‘안’, ‘잘’과 결합한 합성 동사

부사 ‘못’, ‘안’, ‘잘’과 결합한 ‘못하다’, ‘안되다’, ‘잘되다’, ‘잘하다’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만 붙여 쓴다.

못하다

「I」「동사」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거나 할 능력이 없다. 『술을 못하다』

「II」「형용사」 ①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하다. 『음식 맛이 예전보다 못하다』 ② (‘못해도’ 꼴로 쓰여) 아무리 적게 잡아도. 『잡은 고기가 못해도 열 마리는 되겠지.』

「III」「동사」 「보조동사」((동사 뒤에서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 『눈물 때문에 말을 잊지 못하다』

「IV」「보조형용사」 ① ((형용사 뒤에서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말. 『편안하지 못하다』 ② (주로 ‘-다(가) 못하여’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극에 달해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 『회다 못해』

■ 꿈을 이루지 못 하였다. → 꿈을 이루지 못하였다.

■ 숙제를 하나도 못했음. → 숙제를 하나도 못했음.

※ 특정한 경우에 할 수 있고 없음을 드러낼 때는 ‘못’과 ‘하다’를 띄어 쓰고 일반적인 능력이나 수준을 드러낼 때는 ‘못’과 ‘하다’를 붙여 쓴다.

- 난 이번 결과를 인정 못 해! (반대말은 ‘하다’이다.)
- 나는 운동을 못해. (반대말은 ‘잘하다’이다.)

※ ‘잘못하다’와 ‘잘 못하다’도 구분해야 한다. 사전의 ‘잘못하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띄어 쓴다.

- 보관을 잘못해서 생선이 상했다.
- 술을 마시긴 해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안되다⁰¹

「동사」

- ①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된다.
 - ②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 ③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것 같다.
-

안되다⁰²

「형용사」

- ① 섭섭하거나 가엾어 마음이 언짢다. 『그것참, 안됐군./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고생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안됐다.』 혼자 보내기가 안돼서 역까지 배웅했다. ② 근심이나 병 따위로 얼굴이 많이 상하다. 『몸살을 앓더니 얼굴이 많이 안됐구나./안색이 안돼 보여서 보약을 지어 보냈다.
-

잘되다

「동사」

- ①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 『농사가 잘되다.
 - ② 사람이 훌륭하게 되다. 『부모님들은 늘 자식 잘되기를 바란다.
 - ③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다. 『우리 중 잘되어야 두 명만이 합격할 수 있다.
 - ④ (반어적으로) 결과가 좋지 아니하게 되다.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자 오빠는 잘됐다며 약을 올렸다.
-

■ 비가 오는 날은 장사도 잘 되지 않는다.

→ 비가 오는 날에는 장사도 잘되지 않는다.

■ 나는 혼자 공부하는 게 집중도 더 잘 된다.

→ 나는 혼자 공부하는 게 집중도 더 잘된다.

잘하다

「동사」

I ① 옳고 바르게 하다. 『그러기에 평소 처신을 잘해야지.

② 좋고 훌륭하게 하다. 『공부를 잘하다

③ 익숙하고 능란하게 하다. 『잘하는 솜씨

④ 버릇으로 자주 하다. 『오해를 잘하다

⑤ 음식 따위를 즐겨 먹다. 『그는 술을 잘한다.

II ① (반어적으로)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잘한다! 일을 이렇게 망쳐 놓았으니 이제 어떻게 수습할래?

② (주로 ‘잘하면’ 꼴로 추측을 나타내는 문장 앞에 쓰여) ‘운이나 여건 따위가 좋으면’, ‘여차하면’의 뜻을 나타낸다. 『잘하면 올해도 풍년이 들겠다.

③ (주로 ‘잘해서’, ‘잘해야’ 꼴로 쓰여) ‘넉넉잡아서’, ‘넉넉잡아야’, ‘고작’의 뜻을 나타낸다. 『이 정도 물건이라면 잘해서 3,500원이면 살 수 있다.

④ 친절히 성의껏 대하다. 『부모에게 잘하다

■ 운동을 잘 하는 사람 → 운동을 잘하는 사람

■ 출근 잘하셨어요? → 출근 잘 하셨어요?

(2) ‘있다’, ‘없다’가 붙어서 된 합성 형용사

형용사 중에는 ‘있다’, ‘없다’가 붙어서 된 합성어가 많이 있다. 그러나 ‘있다’, ‘없다’와 함께 쓰이지만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말은 띄어 써야 한다(예: 관련 없다).

① ‘있다’가 붙은 형용사

합성 형용사	관계있다, 뜻있다, 맛있다, 멋있다, 맛있다, 빛있다, 상관있다, 재미있다
구	스릴 있다, 생기 있다

② ‘없다’가 붙은 형용사

합성 형용사	간곳없다 간데없다 간데온데없다 갈데없다 값없다 거침없다 경황없다 관계없다 그지없다 기탄없다 까딱없다 꿈쩍없다 꾸김없다 꾸밈없다 꿈쩍없다 끄떡없다 끊임없다	끝없다 난데없다 느닷없다 다름없다 다시없다 대중없다 더없다 덜없다 두말없다 두서없다 뜬금없다 막힘없다 맛없다 맥없다 멋없다 문제없다 물샬틈없다	밥맛없다 버릇없다 변함없다 보잘것없다 본데없다 불품없다 부질없다 분별없다 빈틈없다 빛없다 빠짐없다 온데간데없다 쓸모없다
구	관련 없다, 도움 없다, 의미 없다		

(3) 띄어쓰기 오류가 잦은 합성 용언

용언과 용언이 만나는 구성이라 하더라도 어느 경우에는 합성어가 되고 어느 경우에는 구가 되므로 주의한다.

- 들려주다 = 들리- + -어 + 주다
- 알려 주다 = 알리- + -어 + 주다

위 예문은 둘 다 ‘용언 + -어 + 주다’의 구성을 이루고 있지만 ‘들려주다’는 합성어이고 ‘알려 주다’는 구이다. 따라서 합성어인지 구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을 참고하여야 한다. 다음은 동일한 구성이 합성어와 구로 차이를 보이는 예들이다.

	합성어	구
주다	도와주다, 들려주다, 돌려주다, 끝내주다	알려 주다, 구해 주다, 해 주다, 보여 주다, 가 주다
내다	몰아내다, 알아내다, 쫓아내다, 찾아내다, 불러내다	살려 내다, 받아 내다, 잘라 내다
보다	물어보다, 알아보다, 살펴보다, 찾아보다	들춰 보다, 생각해 보다, 입어 보다
놓다	돌려놓다, 갈라놓다	옮겨 놓다
오다	들여오다, 내오다, 걸어오다	옮겨 오다, 알려 오다
두다	던져두다, 버려두다, 일러두다, 놓아두다	펼쳐 두다, 담아 두다, 알아 두다
나오다	흘러나오다, 빠져나오다	돌아 나오다
가다	찾아가다	
넣다	써넣다	

※ 이 밖에 띄어쓰기 오류가 자주 나타나는 합성 용언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예		
가까이하다	들여다보다	써넣다
가려내다	따라잡다	야단맞다
가려듣다	떠다니다	오래가다
갈라놓다	떠돌아다니다	오래되다
갈아타다	떨어뜨리다	올라오다
잡아먹다	뛰어가다	올려놓다
결말짓다	뛰어놀다	우선시하다
그만두다	뛰어다니다	이어받다
기죽다	마음먹다	인정받다
끝어당기다	머지않다	일어나다
끝내주다	못지않다	잃어버리다
나아가다	물어뜯다	차아내다
내려가다	물어보다	잡아먹다
내려다보다	바래다주다	주고받다
내려받다	밝혀내다	집어넣다
내려보내다	보내오다	쭈그러들다
내려오다	보잘것없다	찾아가다
내어놓다	불러일으키다	찾아보다
놓아두다	불어넣다	타고나다
달라붙다	불어오다	털어놓다
담아내다	빚어내다	파고들다
테려오다	빠져나가다	퍼먹다
돌아보다	빼내다	폭넓다
되풀이되다	살찌다	한결같다
둘러췌다	소용없다	한눈팔다
들어가다	수놓다	함께하다
들어내다	시중들다	흘려보내다
들어오다	씩트다	

5) 부사

- 정의: 용언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품사.
- 예: 매우, 가장, 과연, 그리고 등
- 용법: 부사는 그 앞말과 띄어 쓴다.

※ 다음은 부사이지만 부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주 띄어 쓰는 예들이다.

가끔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을 잘 듣던 아이도 <u>가끔 가다</u> 심통을 낼 때가 있다. → 말을 잘 듣던 아이도 <u>가끔가다</u> 심통을 낼 때가 있다.
곧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 사람은 운동을 <u>곧 잘</u> 한다. → 저 사람은 운동을 <u>곧잘</u> 한다.
그날그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기는 <u>그날 그날</u> 써야 한다. → 일기는 <u>그날그날</u> 써야 한다.
더욱더, 더더욱	<ul style="list-style-type: none"> <u>더욱 더</u> 풍성해진 가을걷이 / <u>더 더욱</u> 풍성해진 가을걷이 → <u>더욱더</u> 풍성해진 가을걷이 / <u>더더욱</u> 풍성해진 가을걷이
또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u>또 다시</u> 당부하겠습니다. →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u>또다시</u> 당부하겠습니다. (※ 오후에 <u>또 다른</u> 약속이 있다.)
밤낮	<ul style="list-style-type: none"> <u>밤 낮</u> 놀기만 한다. → <u>밤낮</u> 놀기만 한다.
온종일, 진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온 종일</u>(=진종일) 일만 했다. → <u>온종일</u> 일만 했다. (※ 나는 <u>하루 종일</u> 일만 했다.)
이른바, 이를테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가 태어난 지 21일이 되어서 <u>이른 바</u> ‘삼칠’을 지냈다. → 어린이가 태어난 지 21일이 되어서 <u>이른바</u> ‘삼칠’을 지냈다. 그는 <u>이를 테면</u>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다. → 그는 <u>이를테면</u>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다.
이리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이리 저리</u> 핑계를 대다. → <u>이리저리</u> 핑계를 대다.
잘못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가 자녀를 <u>잘 못</u> 가르쳤다. → 부모가 자녀를 <u>잘못</u> 가르쳤다. <u>잘 못</u> 쓴 경우가 많다. → <u>잘못</u> 쓴 경우가 많다.
절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는 <u>절 때</u>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다. → 그는 <u>절때</u>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하루바빠, 하루빨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u>하루 바빠</u> 서둘러서 병을 고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 <u>하루바빠</u> 서둘러서 병을 고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u>하루 빨리</u>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 <u>하루빨리</u>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6) 관형사

- 정의: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내용을 자세히 꾸며 주는 품사.
- 예: ‘순 살코기’의 ‘순’, ‘저 어린이’의 ‘저’, ‘한 사람’의 ‘한’ 등
- 용법: 관형사는 띄어 쓴다. 그러나 관형사 중에 관용적으로 그 뒷말에 붙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합성어로 보아야 한다.

※ 일반적으로 관형사의 뒤에 비자립적인 요소가 오는 경우에는 관형사를 뒷말과 붙여 쓰고 자립적인 요소가 오는 경우에는 뒷말과 띄어 쓴다.

- 고인(故人), 동급(同級)
- 고 홍길동, 동 기관

위의 예에서 ‘고인, 동급’의 경우는 ‘인, 급’이 비자립적인 요소이므로 ‘고, 동’과 붙여 써야 하며, ‘홍길동, 기관’의 경우는 자립적인 요소이므로 ‘고, 동’과 띄어 써야 한다.

※ 다음은 같은 관형사가 쓰였지만 합성어와 구를 구분해야 하는 예들이다.

■ 각(各)

합성어	구
각살림, 각가지	각 가정, 각 개인, 각 15×15cm

■ 킁킁

합성어	구
킁킁날, 킁킁밤	킁킁 세월

■ 동(同)

합성어	구
동급(同級), 동가(同家)	동 회사, 동 기관, 동 순위

■ 판

합성어	구
판말, 판것, 판생각, 판사람, 판짓	판 회사, 판 이야기

■ 매(每)

합성어	구
매년, 매해	매 순간, 매 회계 연도

■ 몇

합성어	구
몇십, 몇만, 십몇	몇 도, 몇 개, 몇 명, 몇 사람, 몇 살

※ ‘몇’의 앞이나 뒤에 수사가 올 때는 ‘몇’에 의문의 의미가 있든 없든 붙여 쓴다.(‘몇 + 수사’ 혹은 ‘수사 + 몇’은 모두 붙이기로)

- (1) ‘몇’ 다음에 수 단위가 오면 그 단위와 붙여 쓴다.
 - 몇십 개, 몇천 명, 몇억 원
- (2) 앞에 숫자 표현이 오는 ‘몇’도 그 앞의 숫자와 붙여 쓴다.
 - 십몇 대 일의 경쟁률
- (3) 앞뒤로 숫자 표현이 오면 뒤의 숫자와만 붙여 쓰고 앞의 숫자와는 띄어 쓴다.
 - 이번 사법 시험 합격자는 오백 몇십 명이다.

■ 못

합성어	구
못까마귀, 못매	못 새, 못 백성, 못 근심

■ 별(別)

합성어	구
별개, 별걱정, 별문제	별 사이, 별 탈

■ 본(本)

합성어	구
본교, 본사, 본국	본 사건, 본 협회

※ ‘어떤 대상이 말하는 이와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의 뜻일 때는 관형사로, ‘바탕이 되는’의 뜻일 때는 접두사로 본다.

■ 새

합성어	구
새것, 새아버지, 새집	새 손톱, 새 주소, 새 학기, 새 터, 새 문서, 새 역사

■ 옛

합성어	구
옛것, 옛일, 옛사람, 옛말, 옛정, 옛이야기	옛 추억, 옛 모습, 옛 의식

■ 오른

합성어	구
오른손, 오른발, 오른뺨, 오른팔, 오른쪽	오른 다리, 오른 무릎, 오른 눈

■ 왼

합성어	구
왼손, 왼발, 왼뺨, 왼팔	왼 다리, 왼 무릎, 왼 눈, 왼 손가락, 왼 나선, 긴 왼 뺨침, 짧은 왼 뺨침

■ 전(前)

합성어	구
전날, 전향	전 방송국 아나운서, 전 학기

※ ‘전(前)’은 ‘이전의, 앞의’의 뜻을 갖는 관형사로 합성어를 이루기도 하고 한자어 어근과 결합하여 단일어가 되기도 하며, 자립 명사(결혼 전, 전에 살던 동네)로도 사용된다.

■ 전(全)

합성어	구
전무식(全無識)	전 인류, 전 세계

7) 감탄사

- 정의: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품사.
 - 예: 아, 하하, 예구머니, 이키 등
 - 용법: 감탄사는 그 앞말과 띄어 쓴다.

- 자장 자장 잘도 잔다. → 자장자장 잘도 잔다.
-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 얼씨구절씨구, 지화자 좋다.
- 아이 참, 속상해. → 아이참, 속상해.

8) 조사

- 정의: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
- 예: 이, 가, 을, 를, 로, 으로, 에서, 부터, 까지, 만, 도 등
- 용법: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지거나,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조사가 하나만 붙은 경우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진 경우	조사가 어미 뒤에 붙은 경우
꽃이	꽃 <u>에서</u> 부터	나가면서 <u>까지</u>
꽃 <u>마저</u>	꽃 <u>으로</u> 만	들어가기는 <u>커녕</u>
꽃 <u>밖에</u>	겉쟁이 <u>한테</u> 만	웁니다 <u>그려</u>
꽃 <u>이다</u>	집 <u>에서</u> 처럼	“알았다.” <u>라고</u>
꽃 <u>입니다</u>	학교 <u>에서</u> 만 <u>이라도</u>	이루어지기 <u>까지</u> 에도
꽃 <u>처럼</u>	여기 <u>서</u> 부터 <u>입니다</u>	
너 <u>조차</u>	어디 <u>까지</u> <u>입니까</u>	
어디 <u>까지</u>	수학자 <u>에게</u> 까지 <u>만</u>	
거기 <u>도</u>	장식용 <u>뿐만</u> (아니라)	
멀리 <u>는</u>	(어느) 정도 <u>에서</u> 부터 <u>는</u>	
이 <u>밖</u> 에	(몇십) 년 <u>밖</u> 에 <u>는</u>	
수련 <u>같이</u>		

(1) 주의해야 하는 조사

다음은 주의해야 하는 조사의 예이다. 의존 명사와 헛갈려 띄어 쓰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분이 좋아 보이는<u>구면</u> <u>그래</u>. → 기분이 좋아 보이는<u>구면</u><u>그래</u>. 날씨가 맑은 <u>그래</u>. → 날씨가 맑은<u>그래</u>.
그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제야 돌아왔네 <u>그려</u>. → 이제야 돌아왔네<u>그려</u>. 날씨가 맑습니다 <u>그려</u>. → 날씨가 맑습니다<u>그려</u>.
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대로 해라. → 법<u>대로</u> 해라. 순서 대로 나열해 보자. → 순서<u>대로</u> 나열해 보자. 너는 너 대로 나는 나 대로 그곳에 가자. → 너는 너<u>대로</u> 나는 나<u>대로</u> 그곳에 가자. <p>※ 의존 명사 ‘대로’와 구별해야 한다. 예) 있는대로 → 있는 대로</p>
라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인이 “많이 드세요.” 라고 권한다. → 주인이 “많이 드세요.”<u>라고</u> 권한다. “내가 바로 홍길동이다.” 라고 소리쳤다. → “내가 바로 홍길동이다.”<u>라고</u> 소리쳤다.
마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싶다 마는 돈이 없군. → 사고 <u>싶다</u>마는 돈이 없군. 얼마 되겠느냐 마는 보태어 쓰도록 해라. → 얼마 <u>되겠느냐</u>마는 보태어 쓰도록 해라. <p>※ ‘마는’은 ‘만’으로 줄어지기도 한다. 같이 가고 싶지만(←<u>싶지만</u>) 시간이 없다.</p>

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종일 <u>잠만</u> 잤다. • 그를 <u>만나야만</u> 한다. • 한 <u>시간만</u> 놀자. • <u>그 만한</u> 물건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 <u>그만 한</u> 물건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 <u>집채 만 한</u> 파도가 몰려온다. → <u>집채만 한</u> 파도가 몰려온다. • ……삼켜버릴 것 <u>만</u> 같다. → ……삼켜버릴 것<u>만</u> 같다. • 한 시간 <u>만</u> 기다리세요. → 한 시간<u>만</u> 기다리세요. <p>※ 의존 명사 ‘만’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의존 명사 ‘만’을 참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u>만에</u> → 3년 <u>만에</u>
만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도 남자 <u>만큼</u> 일한다. → 여자도 <u>남자만큼</u> 일한다. • 키가 <u>전봇대 만큼</u> 크다. → 키가 <u>전봇대만큼</u> 크다. • 열에너지 <u>만큼</u> → 열에너지<u>만큼</u> • 그 <u>만큼</u> → 그<u>만큼</u> • 분량 <u>만큼</u>씩 한다. → 분량<u>만큼</u>씩 한다. <p>※ 의존 명사 ‘만큼’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의존 명사 ‘만큼’ 해설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노력한만큼</u> 대가를 얻다. → <u>노력한 만큼</u> 대가를 얻다.
밖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 <u>밖에</u> 남지 않았다. → 하나<u>밖에</u> 남지 않았다. •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 <u>밖에</u> 없다. →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u>밖에</u> 없다. • 농사 <u>밖에</u> → 농사<u>밖에</u> • 정도 <u>밖에</u> → 정도<u>밖에</u> • 구조 조정을 하는 <u>수 밖에</u> 없다. → 구조 조정을 하는 수<u>밖에</u> 없다. <p>※ 조사 ‘밖에’는 주로 ‘않다, 없다, 모르다’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서술어와 함께 쓰인다.</p>
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 <u>뿐</u>이다. → 남자<u>뿐</u>이다. • 수학 <u>뿐만</u> 아니라 국어도 좋아해. → 수학<u>뿐만</u> 아니라 국어도 좋아해. <p>※ 의존 명사 ‘뿐’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의존 명사 ‘뿐’ 해설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원할뿐만</u> 아니라 → <u>원할</u> <u>뿐만</u> 아니라
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으른 사람 <u>치고</u> 성공한 사람이 없다. → 게으른 <u>사람치고</u> 성공한 사람이 없다. • 겨울 <u>날씨</u> <u>치고</u> 아주 따뜻하다. → 겨울 <u>날씨치고</u> 아주 따뜻하다.
커녕, 느커녕, 은커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밥은 <u>커녕</u> 죽도 못 먹는다. → 밥은<u>커녕</u> 죽도 못 먹는다. • 뛰어가기는 <u>커녕</u> 빨리 걷지도 않는다. → 뛰어가기<u>는커녕</u> 빨리 걷지도 않는다. • 아프기는 <u>커녕</u> → 아프기<u>는커녕</u> • 천 원은 <u>커녕</u> 백 원도 없다. → 천 원은<u>커녕</u> 백 원도 없다.
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수는 너 <u>하고</u> 닮았다. → 철수는 너<u>하고</u> 닮았다. • 나 <u>하고</u> 놀자. → 나<u>하고</u> 놀자. • 배 <u>하고</u> 사과 <u>하고</u> 감을 가져오너라. → 배<u>하고</u> 사과<u>하고</u> 감을 가져오너라. • 주변의 <u>사람들</u> <u>하고만</u> 친하다. → 주변의 <u>사람들</u><u>하고만</u> 친하다.
하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과 <u>하며</u> 배 <u>하며</u> 많이 먹었다. → 사과<u>하며</u> 배<u>하며</u> 많이 먹었다. • 자동차 <u>하며</u> 집 <u>하며</u> 요구하는 것이 많았다. → 자동차<u>하며</u> 집<u>하며</u> 요구하는 것이 많았다. • 웅장한 <u>사운드</u> <u>하며</u>…… → 웅장한 <u>사운드</u><u>하며</u>……

※ 직접 인용에서는 인용하는 말을 큰따옴표(“ ”)로 표시하고 인용하는 말 뒤에 ‘라고’가 오며 간접 인용에서는 인용하는 말에 따옴표를 하지 않고 인용하는 말 뒤에 ‘-고’가 온다.

■ “나 어제 친구랑 영화 봤어.”

→ 직접 인용: 그가 “나 어제 친구랑 영화 봤어.”라고 말했다.

→ 간접 인용: 그는 어제 친구와 영화를 봤다고 말했다.

※ 이 밖에도 조사 ‘같이’는 형용사 ‘같다’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백옥 같은 피부, 장대 같은 소나기’ 등의 ‘같은’은 형용사 ‘같다’의 활용형이므로 앞 단어와 띄어 써야 한다.

조사 ‘같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음장 <u>같이</u> 차가운 방바닥 → 얼음장<u>같이</u> 차가운 방바닥 • 새벽 <u>같이</u> 떠나다. → 새벽<u>같이</u> 떠나다. • 바보 <u>같이</u> 굴지 마라. → 바보<u>같이</u> 굴지 마라.
부사 ‘같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 <u>같이</u> 사업을 하다. • 세월이 물과 <u>같이</u> 흐른다.
형용사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 <u>같은</u>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 천사 <u>같은</u> 아기를 보았다.

※ 조사 ‘보다’와 부사 ‘보다’(‘어떤 수준에 비하여 한층 더’)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조사 ‘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차 <u>보다</u> 비행기가 빠르다. → 기차<u>보다</u> 비행기가 빠르다. • 그는 나 <u>보다</u> 두 살 위이다. → 그는 나<u>보다</u> 두 살 위이다. • 정상 <u>가격 보다</u> 20% 더 싸다. → 정상 <u>가격보다</u> 20% 더 싸다. • 시간 <u>보다는</u> → 시간<u>보다는</u> • 말하기 <u>보다는</u> → 말하기<u>보다는</u>
부사 ‘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보다</u> 높게 들어 올려라. / <u>보다</u> 빠르게 뛰다.

※ 조사 ‘이다’도 띄어쓰기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조사 중 하나이다. 특히 ‘이다’가 ‘입니다’의 형태로 쓰일 때에 앞에 오는 명사와 띄어 쓰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므로 주의한다.

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것은 <u>책 이다</u>. → 이것은 <u>책이다</u>. • 그분이 내가 존경하는 <u>형님 이다</u>. → 그분이 내가 존경하는 <u>형님이다</u>. • 어제는 5월 <u>5일 이었다</u>. → 어제는 5월 <u>5일이었다</u>. • ‘단원의 마무리’ <u>이다</u>. → ‘단원의 마무리’<u>이다</u>.
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9시 <u>입니다</u>. → 오후 9시<u>입니다</u>. • 스몰 사이즈 <u>입니다</u> → 스몰 사이즈<u>입니다</u>. • 남동생(일곱 살) <u>입니다</u>. → 남동생(일곱 살)<u>입니다</u>. • 28쪽까지 <u>입니다</u>. → 28쪽까지<u>입니다</u>. • ‘가화만사성’ <u>입니다</u>. → ‘가화만사성’<u>입니다</u>.

9) 보조 용언

- 정의: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
- 예: 가다, 내다, 놓다, 주다, 두다, 보다, 쌓다, 오다, 있다, 적하다, 뻔하다
- 용법: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47항에서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쓸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고 하였지만 교과서 편찬 시에는 띄어 쓰도록 한다.

가다	• 불이 <u>꺼져간다</u> . → 불이 <u>꺼져</u> 간다.
내다	• 생산해낸다. → 생산해 낸다. • 얻어내었습니다. → 얻어 내었습니다.
놓다	• 떠드는 사람의 이름을 <u>적어놓아라</u> . → 떠드는 사람의 이름을 <u>적어</u> 놓아라.
드리다	• 어머니를 <u>도와드리다</u> . → 어머니를 <u>도와</u> 드린다.
버리다	• 그릇을 <u>깨뜨려버렸다</u> . → 그릇을 <u>깨뜨려</u> 버렸다.
두다	• 저분의 이름은 <u>기억해두는</u> 것이 좋다. → 저분의 이름은 <u>기억해</u> 두는 것이 좋다.
보다	• 넣어본다. → 넣어 본다. • 써보아라. → 써 보아라.
쌓다	• 아이가 <u>울어쌓는다</u> . → 아이가 <u>울어</u> 쌓는다.
오다	• 강조해왔고 → 강조해 왔고
있다	• 적혀있는 → 적혀 있는
주다	• 보여주는 → 보여 주는

※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 있는 경우에도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 모르는 척만하고 → 모르는 척만 하고
- 스며들어간 → 스며들어 간
- 밀려들어가면서 → 밀려들어 가면서
- 이루어져있을까? → 이루어져 있을까?

※ 의존 명사 ‘양, 척, 체, 만, 법, 듯’ 등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하여 된 보조 용언(으로 다루어지는 것)의 경우에도 교과서에서는 앞말에 붙여 쓰지 않는다.

보조 용언	원칙	허용 안 됨
양하다	학자인 양한다.	학자인양한다.
체하다	모르는 체한다.	모르는체한다.
척하다	잘난 척하다.	잘난척하다.
듯싶다	울 듯싶다.	울듯싶다.
듯하다	먹지 않는 듯하더니	먹지 않는듯하더니
뻔하다	농칠 뻔하였다.	농칠뻔하였다.

※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붙는 경우에는 뒤에 오는 ‘-하다’, ‘-싶다’를 붙여 쓰지 않는다.

■ 아는체를한다. → 아는 체를 한다.

■ 비가 올듯도 한다. → 비가 올 듯도 한다.

■ 믿을만은 하다. → 믿을 만은 하다.

※ 단음절로 된 어휘 형태소가 결합한 합성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도 띄어 쓴다.

■ 잡매준다. → 잡매 준다.

■ 나가보고 싶다. → 나가 보고 싶다.

※ 보조 용언이 거듭되는 경우에도 앞의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

■ 가볼 만한 → 가 볼 만한

■ 해 볼만 한 → 해 볼 만한

※ ‘-어지다’와 ‘-어하다’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만들어 지다 → 만들어지다 ■ 기빠 하다 → 기빠하다

10) 접사

(1) 접미사

- 정의: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로, 어근이나 단어의 뒤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
- 예: -간, -님, -댁, -되다, -시키다 등
- 용법: 접미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접미사는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 사전에는 접미사와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접미사와 관련하여 정확한 표기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한다.

또한 접미사 중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단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주의해야 할 접미사를 제시한 것이다.

① 단일 접사

■ -간(間)

풀이	예
㉠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안’의 뜻을 더함.	십 년간
㉡ (몇몇 명사 뒤에 붙어) ‘장소’의 뜻을 더함.	대장간

- 지난 일 년 간 입원 환자 → 지난 일 년간 입원 환자
- 2년 간 → 2년간
- 지난 여섯 달 간 → 지난 여섯 달간
- 비몽사몽 간에 → 비몽사몽간에

※ ‘간’은 ‘서울 부산 간, 부모 자식 간’의 예처럼 ‘사이’를 뜻하는 의존 명사로도 사용된다.

■ -님

풀 이	예
㉠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사장님, 코치님, 총장님
㉡ (사람이 아닌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대상을 인격화하여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달님, 별님, 토끼님, 해님

■ -되다

풀 이	예
<p>‘-되다’는 피동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접미사이다.</p> <p>‘-되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은 대체로 ‘-하다’도 붙을 수 있지만 ‘-하다’의 기능 여부와 무관하게 피동성을 나타내는 말이면 모두 붙여 쓴다.</p> <p>직관으로는 ‘-하다’가 불가능해 보여도 사전에는 올라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늘 사전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격앙되다/격앙하다’는 둘 다 가능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다’의 짝이 있는 경우 결함되다, 파괴되다, 소개되다 기계화되다, 도시화되다, 분해되다, 정리되다, 격앙되다 • ‘-하다’의 짝이 없거나 부자연스러운 경우 고갈되다, 단전되다, 마비되다, 숙련되다, 실종되다, 오염되다, 진척되다, 침체되다, 피랍되다

■ -드리다

풀 이	예
<p>‘드리다’가 구체적인 사물을윗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뜻할 때에는 동사로서 그 앞말과 띄어 써야 하지만, 행위성을 지닌 동사성 명사 뒤에서는 어떤 행위를 윗사람에게 하는 것을 뜻하는 접미사로 규정되므로 중간에 조사가 개입하지 않는 한 그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p>	감사드리다, 인사드리다, 말씀드리다, 불공드리다, 제안드리다

■ -들

풀 이	예
‘-들’은 복수를 나타내는 말이다.	가게들, 그들, 나라들, 사건들, 사람들, 학생들

※ 한국어에서는 접미사 ‘-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명사가 복수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한국에는 산들과 강들이 많다. → 한국에는 산과 강이 많다.

■ -받다

풀 이	예
‘-받다’는 행위성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명사 뒤에서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구체적인 사물이 앞에 오면 사물을 받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한편, 동사 ‘받다’는 ‘주다’와 대칭적으로 쓸 수 있다.	각광받다, 교육받다, 방해받다, 사랑받다, 오해받다, 인정받다, 주목받다.

■ -시키다

풀 이	예
구체적인 명사 뒤에서 그것을 주문한다는 뜻을 나타낼 때에는 동사이므로 그 앞말과 띄어 써야 하지만, 행위성을 지닌 동사성 명사 뒤에서는 사동 접미사로 규정되므로 중간에 조사가 개입하지 않는 한 그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발전시키다, 피신시키다, 호강시키다, 청소시키다, 집중시키다

■ -씨(氏)

풀 이	예
‘-씨’는 (인명에서 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그 성씨 자체’의 뜻을 더한다.	김씨, 최씨

※ ‘씨’가 (성년이 된 사람의 성이나 성명, 이름 아래에 쓰여)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일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김 씨, 이리 오세요.(‘김씨’ 성을 가진 사람)
우리 반에는 김씨가 많다. (성씨 자체)
- 홍길동 씨, 함께 갑시다.
길동 씨 좀 찾아봐.

■ -하다

풀 이	예
접미사 ‘-하다’가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된 경우에는 붙여 쓴다. 그러나 ‘하다’가 동사로 쓰여 한 단어로 굳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띄어 쓴다.	공부하다, 생각하다, 사랑하다, 머리하다, 밥하다, 나무하다, 음악 하다, 조교 하다, 떡 하다
의성어, 의태어에 붙는 ‘하다’도 마찬가지로이다. 한 단어로 굳어졌으면 붙여 쓰고 한 단어로 굳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띄어 쓴다.	반짝반짝하다, 덜컹덜컹하다 ‘어디선가 <u>깡</u>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표제어에 있는 말	표제어에 없는 말
이러쿵저러쿵하다(‘이러쿵저러쿵’의 부표제어), 이러이러하다(‘이러이러’의 부표제어), 붉으락푸르락하다(‘붉으락푸르락’의 부표제어), 엷지락뒤지락하다(‘엷지락뒤지락’의 부표제어), 쥐락펴락하다(‘쥐락펴락’의 부표제어)	왔다 갔다 하다, 앉았다 섰다 하다, 이랬다저랬다 하다(‘이랬다저랬다’는 표제어에 있지만 부표제어로 ‘-하다’가 붙은 말은 없다), 보일락 말락 하다, 닿을락 말락 하다

※ ‘하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 먹고 싶어 하다 • 어쩔 줄 몰라 하다 • 자신 없어 하다
- 노래를 부르게 하다 • 먹으려 하다

다만, 아래의 예와 같이 ‘-어 지다’와 ‘-어 하다’가 붙는 경우는 이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 다 보조 용언으로 다루기는 하지만 ‘-어 지다’는 타동사를 자동사로 바꾸고 ‘-어 하다’는 형용사를 타동사로 바꾼다는 점에서 언제나 붙여 쓰는 것만 가능하다.

- 뜻을 이루다 → 뜻이 이루어지다
- 꽃이 예쁘다 → 꽃을 예뻐하다
- 좋아하다 • 궁금해하다 • 힘들어하다 • 행복해하다

② 접사 연속체

두 개 이상의 접사가 연속적으로 붙은 구조에서 다시 그 접사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단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모두 붙여 써야 할지 아니면 접사 연속체를 한 단어로서 띄어 써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 의미상 전자가 더 가까우며 띄어쓰기 관용도 전자 쪽이 우세하므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붙여 쓰고 있다.

접사 연속체	맞음	틀림
계장(係長)	한국은행 대출계장	한국은행 대출 계장
곡집(曲集)	피아노곡집	피아노 곡집
과장(課長)	동물 관리과장	동물 관리 과장
과장(科長)	국어국문학과장	국어 국문학 과장
관장(館長)	박물관장	박물관 관장
교도(敎徒)	기독교도	기독교 교도
교인(敎人)	이슬람교인	이슬람 교인
단원(團員)	봉사단원	봉사 단원
단장(團長)	야구단장	야구 단장
대원(隊員)	119 구조대원	119 구조 대원
대장(隊長)	소방대장	소방 대장
반장(班長)	작업반장	작업 반장
부장(部長)	기획부장	기획 부장
사가(史家)	근대사가	근대 사가
서장(署長)	청량리 경찰서장	청량리 경찰 서장
소장(所長)	어학 연구소장	어학 연구 소장
시인(詩人)	서사시인	서사 시인
시집(詩集)	연애시집	연애 시집
식장(式場)	결혼식장	결혼 식장
실장(室長)	기획조정실장	기획 조정실장, 기획 조정 실장
업계(業界)	섬유업계	섬유 업계

업소(業所)	유흥업소(cf.무허가 업소)	유흥 업소(cf.무허가업소)
업자(業者)	수입업자	수입 업자
업주(業主)	대행업주	대행 업주
업체(業體)	제조업체(cf.경쟁 업체)	제조 업체
왕릉(王陵)	광개토 대왕릉	광개토대 왕릉
용수(用水)	공업용수, 농업용수	공업 용수, 농업 용수
용지(用紙)	사무용지	사무 용지
용지(用地)	공업용지	공업 용지
용품(用品)	유아용품	유아 용품
원장(院長)	국립국어원장	국립 국어 원장
조장(組長)	습격조장	습격 조장
학자(學者)	동양학자	동양 학자
화가(畫家)	동양화가	동양 화가
회장(會長)	문화회장	문화 회장
회장(會場)	박람회장	박람 회장

- ※ ‘무허가 업소’, ‘경쟁 업체’: 이 말들은 각각 ‘업소’가 ‘무허가’라는 뜻과 ‘업체’가 ‘경쟁적’이라는 뜻이 있으며 ‘무허가업’, ‘경쟁업’에 ‘-所’, ‘-體’가 붙은 말이 아니므로 띄어 쓴다. 비슷한 경우로 ‘금속 용품, 목재 용품’에서도 ‘용품’을 앞말과 띄어 쓴다.
- ※ ‘박물관장, 야구단장, 문학회장, 기념회장’ 등에서 ‘관장, 단장, 회장’ 등은 통상 붙여 쓰지만, 단체명은 분리하여 ‘박물관 관장, 야구단 단장, 문학회 회장, 기념회 회장’ 등으로 쓸 수 있다.
- ※ 위의 ‘동양학자, 동양화가’는 의미에 따라 ‘동양 학자, 동양 화가’로 띄어 쓸 수 있다. 이 경우의 뜻은 ‘동양인 학자/화가, 동양의 학자/화가’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근대 사가’로 띄어 쓸 경우의 뜻은 ‘근대 시대에 활동했던 역사가’로 해석된다.
- ※ 다소 혼란의 여지는 있지만 ‘용구’는 독립적인 용법이 더 강하다고 판단하여 이 유형에 넣지 않았으므로 띄어 쓴다. 예) 스포츠 용구, 교수 용구
- ※ ‘파출소장’과 ‘경찰서장’과 비교해 볼 때, 언뜻 보기에 ‘경무 총감’도 붙여 써야 할 듯하다. 그러나 ‘경무총’이라는 곳은 없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접두사

- 정의: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로, 어떤 단어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
- 예: 대(大)-, 대(對)-, 미(未)-, 범(汎)-, 신(新)-, 제(第)-, 주(駐)-, 초(超)- 등

접두사는 그것이 결합하는 뒷말에 붙여 쓴다. 접미사와 마찬가지로 접두사 역시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며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도 등재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표기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한다.

※ 접두사 중 ‘대(對)-’는 ‘~에 대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명사 ‘대(對)’와 구분해서 써야 한다.

접두사	명사
대국민 사과문, 대북한 전략	청군 대 백군, 지상 대 공중

11) 어미

- 정의: 용언 및 서술격 조사가 활용하여 변하는 부분
- 예: ‘점잖다’, ‘점잖으며’, ‘점잖고’에서 ‘다’, ‘으며’, ‘고’ 등
- 용법: 활용 어미는 단어의 일부로 보므로 언제나 앞의 어간에 붙여 쓴다.

활용 어미는 앞의 어간에 붙여 써야 한다. 사전에는 동사의 어간에 활용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은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활용 어미들은 등재되어 있으므로 어미를 검색하여 띄어쓰기를 확인할 수 있다.

-ㄴ데, -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u>있는</u> 데 전화벨이 울렸다. →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u>있는데</u> 전화벨이 울렸다. 성적이 많이 올랐는 데? →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길은 <u>길인</u> 데 걷기가 어렵다. → 길은 <u>길인데</u> 걷기가 어렵다.
-ㄴ 즉(슨), -은즉(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u>먹은</u> 즉 효과가 남디다. →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u>먹은</u>즉 효과가 남디다. 물건인 <u>즉슨</u> 최상품입니다. → 물건인<u>즉슨</u> 최상품입니다.
-는걸, -은걸, -을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사람은 벌써 떠났을 <u>걸</u>. → 그 사람은 벌써 떠났을<u>걸</u>. 밥을 먹으라고 할 때 <u>먹을</u> 걸. → 밥을 먹으라고 할 때 <u>먹을</u>걸. 밤길이 무서운 <u>걸</u>. → 밤길이 무서운<u>걸</u>. 만만치 <u>않을</u> 걸? → 만만치 <u>않을</u>걸?
-는지, -은지, -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가 <u>갔는</u> 지 모르겠다. → 그가 <u>갔는지</u> 모르겠다. 내가 몇 시쯤 <u>도착할</u> 지를 미리 알려 다오. → 내가 몇 시쯤 <u>도착할</u>지를 미리 알려 다오. 성립하는 <u>지</u> 알아보자. → 성립하<u>는지</u> 알아보자. 어떻게 분류해야 <u>할</u> 지 모르겠다. → 어떻게 분류해야 <u>할</u>지 모르겠다.
-는바, -은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이 잠시 후 실시되는 바 모두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 시험이 잠시 후에 실시되는<u>바</u> 모두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금강산에 가 본 바 과연 절경이더군. → 금강산에 가 본<u>바</u> 과연 절경이더군.
-듯(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름에 달 가 <u>듯</u> 가는 나그네 → 구름에 달 가<u>듯</u> 가는 나그네 변덕이 죽 <u>끓</u> 듯 하다. → 변덕이 죽 <u>끓</u>듯 하다. 스쳐지나 <u>듯</u> → 스쳐 지나<u>듯</u> 동작이 물 <u>흐르</u> 듯 → 동작이 물 <u>흐르</u>듯
-ㄹ망정, -을망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에 떨어질 <u>망정</u> 남의 것을 베끼지는 않겠다. → 시험에 <u>떨어질</u>망정 남의 것을 베끼지는 않겠다. 차라리 얼어 <u>죽</u>을 망정 것붙은 아니 쪼겠다. → 차라리 얼어 <u>죽</u>을망정 것붙은 아니 쪼겠다. 도와주지는 <u>못할</u> 망정 → 도와주지는 <u>못할</u>망정
-ㄹ수록, -을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이 올라갈 <u>수록</u> 추워진다. → 높이 <u>올라갈</u>수록 추워진다. 이 책은 읽을 <u>수록</u> 새로운 감동을 준다. → 이 책은 읽을<u>수록</u> 새로운 감동을 준다. 문명이 발달할 <u>수록</u> → 문명이 발달할<u>수록</u> 지위가 <u>높</u>을 <u>수록</u> → 지위가 <u>높</u>을<u>수록</u>

-르지라도, -을지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록 꾸며 낸 이야기일 지라도 → 비록 꾸며 낸 <u>이야기일지라도</u> • 마음에 걱정이 있을 지라도 내색하지 마라. → 마음에 걱정이 <u>있을지라도</u> 내색하지 마라. • 애국심은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이 <u>적을 지라도</u> 생길 수 있다. → 애국심은 ... <u>적을지라도</u> 생길 수 있다.
-자마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이 안 좋아서 음식을 먹자 마자 토해 버렸다. → 속이 안 좋아서 음식을 먹자마자 토해 버렸다. • 그는 나를 보자 마자 대뜸 화부터 냈다. → 그는 나를 <u>보자마자</u> 대뜸 화부터 냈다. • 끝나자 마자 와라. → <u>끝나자마자</u> 와라.

12) 외래어 띄어쓰기

① 외래어의 띄어쓰기는 원어의 띄어쓰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합성어로 제시한 것은 국어 체계 내에서는 합성어로 판단한 것이므로 붙여 쓴다.

■ 앵커맨	■ 백미러	■ 백네트	■ 콜론(call loan)
■ 콜머니	■ 콜택시	■ 카페리	■ 슈크림
■ 커피숍	■ 콘비프	■ 코너킥	■ 쿠데타(coup d'État)
■ 아이스크림	■ 골인	■ 골킥	■ 홀인원
■ 홈인	■ 홈런	■ 핫케이크	■ 핫도그
■ 핫라인	■ 콩윙	■ 립크림	■ 팝송
■ 리어카	■ 티오프	■ 티업	■ 워밍업
■ 와이셔츠	■ 월드컵	■ 실버타운	■ 패션쇼

② 준말이나 음운론적 융합이 일어난 말은 붙여 쓴다.

■ 르포라이터(reportage writer)	■ 애드벌룬(ad balloon)
■ 에어컨(air conditioner)	■ 리모컨(remote control)
■ 오프라이스(omelet rice)	■ 오토바이(auto bicycle)
■ 오피스텔(office hotel)	■ 아이큐(IQ)

③ 접사나, 접사처럼 쓰이는 1음절 한자어가 외래어와 함께 쓰일 경우에는 붙여 쓴다.

■ 남아메리카	■ 싱크대	■ 이슬람교
■ 메이플라워호	■ 그레고리우스력	■ 힌두교
■ 유대교	■ 에스파냐식	

④ 원어에 없는 외래어는 붙여 씀을 원칙으로 한다.

■ 고스톱(go stop)

■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⑤ 외래어 다음의 ‘해(海), 섬, 강, 산’은 띄어 쓴다.

■ 카리브 해

■ 발트 해

■ 아드리아 해

■ 카스피 해

■ 발리 섬

■ 타이완 섬

■ 코르시카 섬

■ 사르데냐 섬

■ 양쯔 강

■ 황허 강

■ 나일 강

■ 리오그란데 강

■ 에베레스트 산

■ 몽블랑 산

■ 몬테로사 산

■ 킬리만자로 산

※ 다만, ‘인(人), 족(族), 어(語)’는 접사로 보아 붙여 쓴다.

■ 네안데르탈인

■ 크로마뇽인

■ 에스키모인

■ 그리스인

■ 게르만족

■ 마야족

■ 프랑스어

■ 아라비아어

■ 말레이·인도네시아어

※ 외래어 다음의 ‘인(人), 족(族), 어(語)’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들이 접미사이지만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외래어 다음에서는 띄어 쓰거나 붙여 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교과서 체제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교과서에서는 붙여 쓰기를 권한다. 이는 접미사를 띄어 쓰는 경우는 드물고 일반적으로 붙여 쓰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3. 문장 부호

※ ‘문장 부호 규정(「한글 맞춤법」 부록)’을 2014년 12월에 개정함에 따라 ‘한글 맞춤법’도 개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였으며, 바뀐 ‘문장 부호’ 규정을 포함한 ‘한글 맞춤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개정 이유

○ ‘문장 부호 규정(「한글 맞춤법」 부록)’과 ‘언론·출판·교육계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용법’ 간의 차이 때문에 국민 언어생활에 혼란이 발생하므로 어문 규범의 보완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가로쓰기 기준 문장 부호 정비 및 새 문장 부호 추가
- 문장 부호 용법 상세화 및 컴퓨터 사용 환경 반영
 - 용례 보충, 명사문에서 ‘마침표’ 사용의 허용, 부제 표시의 ‘줄표’ 용법 추가 등
 - 줄임표 ‘……’에 대해 ‘…’, ‘……’, ‘…’도 허용
- 수학·언어학 등 전문 분야 용법 관련 조항 삭제
 - 분수 표시의 ‘빗금’, 단어 구성 성분 표시의 ‘붙임표’ 용법 등 삭제
- 문장 부호 명칭 및 띄어쓰기 정비
 - 온점(.), 반점(,)에 대해 각각 ‘마침표’, ‘쉼표’를 인정하고 ‘마침표’, ‘쉼표’를 주 명칭으로 함
 - ‘쌍점’, ‘줄표’ 등의 띄어쓰기 방법 규정

한글 맞춤법

[시행 2015. 1.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9호, 2014. 12. 5., 일부개정]

□ 부록

문장 부호

문장 부호는 글에서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이다. 문장 부호의 이름과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마침표(.)

(1)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 예)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입니다. 예) 제 손을 꼭 잡으세요.
예) 집으로 돌아갑시다. 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붙임 1] 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 예) ㄱ.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ㄴ.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붙임 2]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 예) ㄱ.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예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예 너는 여기에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왔니?

[붙임 2]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는 물음표 대신 마침표를 쓸 수 있다.

예 도대체 이 일을 어쩔단 말이나.

예 이것이 과연 내가 찾던 행복일까.

다만,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예 역사란 무엇인가

예 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2) 특정한 어구의 내용에 대하여 의심, 빈정거림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울 때 소괄호 안에 쓴다.

예 우리와 의견을 같이할 사람은 최 선생(?) 정도인 것 같다.

예 30점이라, 거참 훌륭한(?) 성적이군.

예 우리 집 강아지가 가출(?)을 했어요.

(3)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최치원(857~?)은 통일 신라 말기에 이름을 떨쳤던 학자이자 문장가이다.

예 조선 시대의 시인 강백(1690?~1777?)의 자는 자청이고, 호는 우곡이다.

3. 느낌표(!)

(1) 감탄문이나 감탄사의 끝에 쓴다.

예 이거 정말 큰일이 났구나!

예 어머!

[붙임] 감탄의 정도가 약할 때는 느낌표 대신 쉼표나 마침표를 쓸 수 있다.

예 어, 벌써 끝났네.

예 날씨가 참 좋군.

(2) 특별히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어구,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에 쓴다.

예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예 이야, 정말 재밌다!

예 지금 즉시 대답해!

예 앞만 보고 달리자!

(3) 물음의 말로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쓴다.

예 이게 누구야!

예 내가 왜 나빠!

(4) 감정을 넣어 대답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쓴다.

예 네!

예 네, 선생님!

예 흥부야!

예 언니!

4. 쉽표(,)

(1)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쓴다.

예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예 충청도의 계룡산, 전라도의 내장산, 강원도의 설악산은 모두 국립 공원이다.

예 집을 보러 가면 그 집이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지, 살기에 편한지, 망가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 5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4이다.

다만, (가) 쉽표 없이도 열거되는 사항임이 쉽게 드러날 때는 쓰지 않을 수 있다.

예 아버지 어머니께서 함께 오셨어요.

예 네 돈 내 돈 다 합쳐 보아야 만 원도 안 되겠다.

(나) 열거할 어구들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줄임표 앞에는 쉽표를 쓰지 않는다.

예 광역시: 광주, 대구, 대전……

(2) 짝을 지어 구별할 때 쓴다.

예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3) 이웃하는 수를 개략적으로 나타낼 때 쓴다.

예 5, 6세기

예 6, 7, 8개

(4) 열거의 순서를 나타내는 어구 다음에 쓴다.

예 첫째, 몸이 튼튼해야 한다.

예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야 한다.

(5)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쓴다.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예 저는 신뢰와 정직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살아온바, 이번 비리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 떡국은 설날의 대표적인 음식인데, 이걸 먹어야 비로소 나이도 한 살 더 먹는다고 한다.

(6)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분을 줄여서 열거할 때 쓴다.

예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7)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

예 지은아, 이리 좀 와 봐.

예 네, 지금 가겠습니다.

(8) 한 문장 안에서 앞말을 ‘곧’, ‘다시 말해’ 등과 같은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앞말 다음에 쓴다.

- 예 책의 서문, 곧 머리말에는 책을 지은 목적이 드러나 있다.
- 예 원만한 인간관계는 말과 관련한 예의, 즉 언어 예절을 갖추는 것에서 시작된다.
- 예 호준이 어머니, 다시 말해 나의 누님은 올해로 결혼한 지 20년이 된다.
- 예 나에게도 작은 소망, 이를테면 나만의 정원을 가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

(9) 문장 앞부분에서 조사 없이 쓰인 제시어나 주제어의 뒤에 쓴다.

- 예 돈, 돈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 예 열정, 이것이야말로 젊은이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 예 지금 네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 예 저 친구, 저러다가 큰일 한번 내겠어.
- 예 그 사실, 넌 알고 있었지?

(10)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될 때 앞에 오는 어구 다음에 쓴다.

- 예 그의 애국심, 몸을 사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11) 도치문에서 도치된 어구들 사이에 쓴다.

- 예 이리 오세요, 어머니.
- 예 다시 보자, 한강수야.

(12)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쓴다.

- 예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 예 철원과,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산간 지대에 예년보다 일찍 첫눈이 내렸습니다.

(13)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 쓴다.

- 예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 예 영호는 미소를 띠고,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 잠시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 그들을 맞았다.

[붙임 1] 이때는 쉼표 대신 줄표를 쓸 수 있다.

- 예 나는 — 솔직히 말하면 —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 예 영호는 미소를 띠고 —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 잠시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 — 그들을 맞았다.

[붙임 2] 끼어든 어구 안에 다른 쉼표가 들어 있을 때는 쉼표 대신 줄표를 쓴다.

- 예 이건 내 것이니까 — 아니,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 —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14) 특별한 효과를 위해 끊어 읽는 곳을 나타낼 때 쓴다.

- 예 내가, 정말 그 일을 오늘 안에 해낼 수 있을까?
- 예 이 전투는 바로 우리가, 우리만이, 승리로 이끌 수 있다.

(15) 짧게 더듬는 말을 표시할 때 쓴다.

예 선생님, 부, 부정행위라니요? 그런 건 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니다.

[붙임] ‘쉽표’ 대신 ‘반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5. 가운뎃점(·)

(1)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쓴다.

예 민수·영희, 선미·준호가 서로 짝이 되어 윗놀이를 하였다.

예 지금의 경상남도·경상북도, 전라남도·전라북도, 충청남도·충청북도 지역을 예부터 삼남이라 일러 왔다.

(2)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쓴다.

예 한(韓)·이(伊)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

예 우리는 그 일의 참·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예 하천 수질의 조사·분석

예 빨강·초록·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다만, 이때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거나 쉽표를 쓸 수도 있다.

예 한(韓) 이(伊)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

예 우리는 그 일의 참 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예 하천 수질의 조사, 분석

예 빨강, 초록, 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3)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쓴다.

예 상·중·하위권

예 금·은·동메달

예 통권 제54·55·56호

[붙임] 이때는 가운뎃점 대신 쉽표를 쓸 수 있다.

예 상, 중, 하위권

예 금, 은, 동메달

예 통권 제54, 55, 56호

6. 쌍점(:)

(1)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예 문방사우: 종이, 붓, 먹, 벼루

예 일시: 2014년 10월 9일 10시

㉮ 혼하진 않지만 두 자로 된 성씨도 있다.(예: 남궁, 선우, 황보)

㉮ 올림표(#): 음의 높이를 반음 올릴 것을 지시한다.

(2) 희곡 등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 말하는 이와 말한 내용 사이에 쓴다.

㉮ 김 과장: 난 못 참겠다.

㉮ 아들: 아버지, 제발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3) 시와 분, 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쓴다.

㉮ 오전 10:20(오전 10시 20분)

㉮ 두시언해 6:15(두시언해 제6권 제15장)

(4) 의존명사 ‘대’가 쓰일 자리에 쓴다.

㉮ 65:60(65 대 60)

㉮ 청군:백군(청군 대 백군)

[붙임]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 다만, (3)과 (4)에서는 쌍점의 앞뒤를 붙여 쓴다.

7. 빗금(/)

(1) 대비되는 두 개 이상의 어구를 묶어 나타낼 때 그 사이에 쓴다.

㉮ 먹이다/먹히다

㉮ 남반구/북반구

㉮ 금메달/은메달/동메달

㉮ ()이/가 우리나라의 보물 제1호이다.

(2)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해당 수량과 기준 단위 사이에 쓴다.

㉮ 100미터/초

㉮ 1,000원/개

(3) 시의 행이 바뀌는 부분임을 나타낼 때 쓴다.

㉮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다만, 연이 바뀌를 나타낼 때는 두 번 겹쳐 쓴다.

㉮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붙임] 빗금의 앞뒤는 (1)과 (2)에서는 붙여 쓰며, (3)에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단, (1)에서 대비되는 어구가 두 어절 이상인 경우에는 빗금의 앞뒤를 띄어 쓸 수 있다.

8. 큰따옴표(“ ”)

- (1) 글 가운데에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 쓴다.

예 “어머니, 제가 가겠어요.”

“아니다. 내가 다녀오마.”

- (2)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쓴다.

예 나는 “어, 광훈이 아니냐?”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예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라는 시구를 떠올렸다.

예 편지의 끝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편지에 사진을 동봉했다고 하셨지만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9. 작은따옴표(‘ ’)

- (1)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쓴다.

예 그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들어 보셨죠?”라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 (2)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쓴다.

예 나는 ‘일이 다 틀렸나 보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 ‘이번에는 꼭 이기고야 말겠어.’ 호연이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그렇게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10. 소괄호(())

- (1)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쓴다.

☐예 니체(독일의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예) 2014. 12. 19.(금)

예 문인화의 대표적인 소재인 사군자(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는 고결한 선비 정신을 상징한다.

- (2)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쓴다.

예 기호(嗜好), 자세(姿勢)

☞ 커피(coffee), 에티켓(étiquette)

- (3) 생략할 수 있는 요소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학교에서 동료 교사를 부를 때는 이름 뒤에 ‘선생(님)’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예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임금이다.

(4) 희곡 등 대화를 적은 글에서 동작이나 분위기, 상태를 드러낼 때 쓴다.

예 현우: (가쁜 숨을 내쉬며) 왜 이렇게 빨리 뛰어?

예 “관찰한 것을 쓰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상상력이 생겼나 봐요.” (웃음)

(5) 내용이 들어갈 자리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우리나라의 수도는 ()이다.

예 다음 빈칸에 알맞은 조사를 쓰시오.

민수가 할아버지() 꽃을 드렸다.

(6) 항목의 순서나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나 문자 등에 쓴다.

예 사람의 인격은 (1) 용모, (2) 언어, (3) 행동, (4) 덕성 등으로 표현된다.

예 (가) 동해, (나) 서해, (다) 남해

11. 중괄호({ })

(1)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 쓴다.

예 주격 조사 { 이
가 }

예 국가의 성립 요소 { 영토
국민
주권 }

(2)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보일 때 쓴다.

예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로, 까지} 갔어요.

12. 대괄호([])

(1)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로 쓴다.

예 어린이날이 새로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어린이들에게 경어를 쓰라고 하였다.[윤석중 전집
(1988), 70쪽 참조]

예 이번 회의에는 두 명[이혜정(실장), 박철용(과장)]만 빼고 모두 참석했습니다.

(2)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쓴다.

예 나이[年歲]

예 낱말[單語]

예 손발[手足]

(3)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나 논평 등을 덧붙일 때 쓴다.

예 그것[한글]은 이처럼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과학적인 문자이다.

예 신경준의 《여암전서》에 “삼각산은 산이 모두 돌 봉우리인데, 그 으뜸 봉우리를 구름 위에 솟아 있다고 백운(白雲)이라 하며 [이하 생략]”

예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원문에는 ‘업다’임.]

13. 겹낫표(『 』)와 겹화살괄호(《 》)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쓴다.

예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예 『훈민정음』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예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다.

예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

[붙임] 겹낫표나 겹화살괄호 대신 큰따옴표를 쓸 수 있다.

예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예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

14. 홑낫표(「 」)와 홑화살괄호(< >)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쓴다.

예 「국어 기본법 시행령」은 「국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이 곡은 베르디가 작곡한 「축배의 노래」이다.

예 사무실 밖에 「해와 달」이라고 쓴 간판을 달았다.

예 <한강>은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예 백남준은 2005년에 <엄마>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붙임] 홑낫표나 홑화살괄호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예 사무실 밖에 ‘해와 달’이라고 쓴 간판을 달았다.

예 ‘한강’은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15. 줄표(—)

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제의 앞뒤에 쓴다.

예 이번 토론회의 제목은 ‘역사 바로잡기 — 근대의 설정 —’이다.

예) ‘환경 보호 — 숲 가꾸기 —’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다만, 뒤에 오는 줄표는 생략할 수 있다.

예) 이번 토론회의 제목은 ‘역사 바로잡기 — 근대의 설정’이다.

예) ‘환경 보호 — 숲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붙임] 줄표의 앞뒤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16. 붙임표(-)

(1) 차례대로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 열거할 때 각 어구 사이에 쓴다.

예) 멀리뛰기는 도움닫기-도약-공중 자세-착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예) 김 과장은 기획-실무-홍보까지 직접 발로 뛰었다.

(2) 두 개 이상의 어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 쓴다.

예) 드디어 서울-북경의 항로가 열렸다.

예) 원-달러 환율

예) 남한-북한-일본 삼자 관계

17. 물결표(~)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 쓴다.

예) 9월 15일~9월 25일

예) 김정희(1786~1856)

예) 서울~천안 정도는 출퇴근이 가능하다.

예) 이번 시험의 범위는 3~78쪽입니다.

[붙임] 물결표 대신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예) 9월 15일-9월 25일

예) 김정희(1786-1856)

예) 서울-천안 정도는 출퇴근이 가능하다.

예) 이번 시험의 범위는 3-78쪽입니다.

18. 드리냄표(·)와 밑줄()

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쓴다.

예)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청음이다.

예)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예)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예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

[붙임] 드러냄표나 밑줄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예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예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예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예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

19. 숨김표(○, ×)

(1)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임을 나타낼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예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예 그 말을 듣는 순간 ×××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2)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1차 시험 합격자는 김○영, 이○준, 박○순 등 모두 3명이다.

예 육군 ○○ 부대 ○○○ 명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예 그 모임의 참석자는 김×× 씨, 정×× 씨 등 5명이었다.

20. 빠짐표(□)

(1) 옛 비문이나 문헌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예 大師爲法主□□賴之大□薦

(2)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쓴다.

예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아음(牙音)은 □□□의 석 자다.

21. 줄임표(……)

(1) 할 말을 줄였을 때 쓴다.

예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2)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 쓴다.

예 “빨리 말해!”

“…….”

(3)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 쓴다.

예 ‘고유’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본디부터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같은 역사적 환경에서 공동의 집단생활을 영위해 오는 동안 공동으로 발견된, 사물에 대한 공동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한국의 고유 사상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머뭇거림을 보일 때 쓴다.

예 “우리는 모두…… 그러니까…… 예외 없이 눈물만…… 흘렸다.”

[붙임 1] 점은 가운데에 찍는 대신 아래쪽에 찍을 수도 있다.

예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예 “실은…… 저 사람…… 우리 아저씨일지 몰라.”

[붙임 2] 점은 여섯 점을 찍는 대신 세 점을 찍을 수도 있다.

예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예 “실은… 저 사람… 우리 아저씨일지 몰라.”

[붙임 3] 줄임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 다만, (3)에서는 줄임표의 앞뒤를 띄어 쓴다.

※ 단원명이나 장, 절 제목 등에 문장 부호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

■ 단원이나 장, 절을 나타내는 숫자 뒤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 1 여러 가지 힘 → 1. 여러 가지 힘
- I 청소년의 이해 → I. 청소년의 이해
- 02년 지금 사춘기 → 02. 난 지금 사춘기

■ 단원이나 장, 절을 나타내는 숫자 뒤에는 마침표 외에 다른 문장 부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 1_성장 급등 → 1. 성장 급등
- 2_2차 성장 → 2. 2차 성장

■ 단원명이나 장, 절 제목의 마지막에 ‘;’ 등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 단원의 길잡이; → 단원의 길잡이
- 단원 정리; → 단원 정리

1.4. 표준어

※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추가 표준어 목록을 제시함.

【 추가 표준어 1 (2011년 8월 31일 국어심의회 의결) 】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11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간지럽히다	간질이다
남사스럽다	남우세스럽다
등물	목물
맨날	만날
못자리	뫓자리
복숭아뼈	복사뼈
세간살이	세간
쌈싸름하다	쌈싸래하다
토란대	고운대
허접쓰레기	허섭스레기
흙담	토담

○ 현재 표준어와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로 인정한 것(25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길래	~기에	~길래: ‘~기에’의 구어적 표현.
개발새발	괴발개발	‘괴발개발’은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이고, ‘개발새발’은 ‘개의 발과 새의 발’이라는 뜻임.
나래	날개	‘나래’는 ‘날개’의 문학적 표현.
내음	냄새	‘내음’은 향기롭거나 나쁘지 않은 냄새로 제한됨.
눈꼬리	눈초리	· 눈초리: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눈에 나타나는 표정. 예) ‘매서운 눈초리’ · 눈꼬리: 눈의 귀 쪽으로 찌진 부분.
떨구다	떨어뜨리다	‘떨구다’에 ‘시선을 아래로 향하다’라는 뜻 있음.
뜨락	뜰	‘뜨락’에는 추상적 공간을 비유하는 뜻이 있음.
먹거리	먹을거리	먹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는 음식을 통틀어 이름.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메꾸다	메우다	‘메꾸다’에 ‘무료한 시간을 적당히 또는 그럭저럭 흘러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음
손주	손자(孫子)	· 손자 :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 · 손주 :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어리숙하다	어수룩하다	‘어수룩하다’는 ‘순박함/순진함’의 뜻이 강한 반면에, ‘어리숙하다’는 ‘어리석음’의 뜻이 강함.
연신	연방	‘연신’이 반복성을 강조한다면, ‘연방’은 연속성을 강조.
횡하니	횡허케	횡허케 : ‘횡하니’의 예스러운 표현.
걸리적거리다	거치적거리다	자음 또는 모음의 차이로 인한 어감 및 뜻 차이 존재
끄적거리다	끼적거리다	”
두리뭇실하다	두루뭇술하다	”
맨송맨송/ 맹송맹송	맨송맨송	”
바둥바둥	바동바동	”
새초롬하다	새치름하다	”
아웅다웅	아웅다웅	”
야멸차다	야멸치다	”
오손도손	오순도순	”
찌뿌둥하다	찌뿌듯하다	”
추근거리다	치근거리다	”

○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것(3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택견	태견
품새	품세
짜장면	자장면

【 추가 표준어 2 (2014년 8월 29일 국어심의회 의결) 】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을 가진 표준어로 인정한 것(5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구안와사	구안괘사
굽신*	굽실
눈두덩이	눈두덩
빼지다	빼치다
초장초	작장초

※ ‘굽신’이 표준어로 인정됨에 따라, ‘굽신거리다, 굽신대다, 굽신하다, 굽신굽신, 굽신굽신하다’ 등도 표준어로 함께 인정됨.

○ 현재 표준어와 뜻이나 어감이 차이가 나는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것(8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개기다	개개다	개기다: (속되게)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하다. (※개개다: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다.)
꼬시다	피다	꼬시다: ‘피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피다: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생각대로 끌다.)
놀잇감	장난감	놀잇감: 놀이 또는 아동 교육 현장 따위에서 활용되는 물건이나 재료. (※장난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
판지	판죽	판지: ((주로 ‘걸다, 놓다’와 함께 쓰여)) 일이 순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거나 어기대는 것. (※판죽: 이미 동의하거나 약속한 일에 대하여 판전을 부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그라들다	사그라지다	사그라들다: 삭아서 없어져 가다. (※사그라지다: 삭아서 없어지다.)
섬찔*	섬뜩	섬찔: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 (※섬뜩: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
속얹이	속병	속얹이: 「1」 속이 아픈 병. 또는 속에 병이 생겨 아파하는 일. 「2」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걱정하거나 괴로워하는 일. (※속병: 「1」 몸속의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위장병01’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3」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하여 생긴 마음의 심한 아픔.)
허접하다	허접스럽다	허접하다: 허름하고 잡스럽다. (※허접스럽다: 허름하고 잡스러운 느낌이 있다.)

※ ‘섬찔’이 표준어로 인정됨에 따라, ‘섬찔하다, 섬찔섬찔, 섬찔섬찔하다’ 등도 표준어로 함께 인정됨.

○ 실제 발음에 따라 표기를 변경한 것(1개)

변경된 표기	기존 표기
배뱅이굿	배뱅잇굿

【 표준국어대사전 수정 내용(2015년 6월 22일 국립국어원 누리집-‘알림·소식’에 소개) 】

‘너무’의 뜻풀이 수정 전	‘너무’의 뜻풀이 수정 후
<p><u>일정한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게.</u> (예) 너무 크다/너무 늦다/너무 먹다/너무 어렵다/너무 위험하다/너무 조용하다/너무 멀다/너무 가깝다/ <u>너무 많다</u>/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내가 너를 그동안 너무 몰라라 한 것도 사실이다.</p>	<p><u>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로.</u> (예) 너무 크다/너무 늦다/너무 어렵다/너무 위험하다/너무 조용하다/너무 멀다/<u>너무 좋다</u>/너무 예쁘다/ <u>너무 반갑다</u>/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내가 너를 그동안 너무 몰라라 한 것도 사실이다.</p>

※ 언어 현실을 고려하여 ‘너무’를 긍정적 서술어와 함께 쓸 수 있도록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뜻풀이와 용례를 수정함.

1.5. 외래어 표기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에콜 폴리테크니크 → 에콜 폴리테크니크

■ 이파이이파이병 → 이타이이타이병

■ 콩트 → 쿡트

(예외) 푸켓, 호찌민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 비타민(vitamin), 껌(gum), 빵(pão), 라디오(radio)

제2장 표기 일람표

외래어는 다음 표에 따라 표기한다.

※ 외래어 표기법 참조.

제3장 표기 세칙

제1절 영어의 표기

<표 1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

자 음			반 모 음		모 음	
국 제 음 성 기 호	한 글		국 제 음 성 기 호	한 글	국 제 음 성 기 호	한 글
	모 음 앞	자음 앞 또는 어 말				
p	ㅍ	ㅍ, ㅑ	j	이*	i	이
b	ㅂ	ㅂ	ɥ	위	y	위
t	ㅌ	ㅌ, ㅑ	w	오, 우*	e	에
d	ㄸ	ㄸ			ø	외
k	ㅋ	ㄱ, ㅋ			ɛ	에
g	ㄱ	ㄱ			ɛ̃	앵
f	ㅍ	ㅍ			æ	외
v	ㅂ	ㅂ			æ̃	윙
θ	ㅌ	ㅌ			æ	애
ð	ㄸ	ㄸ			a	아
s	ㅌ	ㅌ			ɑ	아
z	ㅌ	ㅌ			ɑ̃	앙
ʃ	시	슈, 시			ʌ	어
ʒ	ㅌ	지			ɔ̃	오
ts	ㅌ	츠			ɔ̃	옹
dz	ㅌ	즈			o	오
tʃ	ㅌ	치			u	우
ʤ	ㅌ	지			ɔ̃**	어
m	ㅁ	ㅁ			ɒ	어
n	ㄴ	ㄴ				
ɲ	니*	뉴				
ŋ	ㅇ	ㅇ				
l	ㄹ, ㄹㄹ	ㄹ				
r	ㄹ	ㄹ				
h	ㅎ	ㅎ				
ç	ㅎ	히				
x	ㅎ	ㅎ				

* [j], [w]의 ‘이’와 ‘오, 우’, 그리고 [ɲ]의 ‘니’는 모음과 결합할 때 외래어 표기법 제3장 표기 세칙에 따른다

** 독일어의 경우에는 ‘에’,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으’로 적는다.

※ <표 1>에 따라 적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적는다.

제1항 무성 파열음 ([p], [t], [k])

①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 gap[gæp] 갭 ■ cat[kæt] 캣
- book[buk] 북 ■ doughnut [ˈdoʊnʌt] 도너츠 → 도넛
- Gannett [gænɪt] 갠네트 (산) → 개닛 (산)
- Scott [skat/skɒt] 스코트 → 스큷

② 짧은 모음과 유음·비음([l], [r], [m], [n])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 ([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 apt[æpt] 앵트 ■ setback[setbæk] 섯백 ■ act[ækt] 액트

③ 위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다.

- stamp[stæmp] 스탬프
- nest[nest] 네스트
- desk[desk] 데스크
- apple[æpl] 애플
- chipmunk[tʃɪpmʌŋk] 치프멍크
- set shoot [set ʃu:t] 셋트샷 → 세트 샷
- cake [keɪk] 케익 → 케이크
- cape[keɪp] 케이프
- part[pɑ : t] 파트
- make[meɪk] 메이크
- mattress[mætrɪs] 매트리스
- sickness[sɪknɪs] 시크니스
- trot [tra:t] 트롯 → 트로트

제2항 유성 파열음([b], [d], [g])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

- bulb[bʌlb] 벌브
- zigzag[zɪgzæɡ] 지그재그
- kidnap[kɪdnæp] 키드냅
- Jacob [dʒeɪkəb] 야곱 → 자코브
- baobab [ˌbeɪəʊbæb] 바오밥(나무) → 바오바브(나무)
- land[lænd] 랜드
- lobster[lɒbstə] 로브스터
- signal[ˈsɪɡnəl] 시그널

제3항 마찰음([s], [z], [f], [v], [θ], [ð], [ʃ], [ʒ])

①어말 또는 자음 앞의 [s], [z], [f], [v], [θ], [ð]는 ‘으’를 붙여 적는다.

- mask[ma : sk] 마스크 ■ jazz[dʒæz] 재즈 ■ graph[græf] 그래프
■ olive[ɒliv] 올리브 ■ thrill[θrɪl] 스릴 ■ bathe[beɪð] 베이드

② 어말의 [ʃ]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ʃ]는 ‘슈’로,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셔’, ‘세’, ‘쇼’, ‘슈’, ‘시’로 적는다.

- flash[flæʃ] 플래시 ■ leadership[[li:dərʃɪp] 리더십 ■ shrub[ʃrʌb] 슈러브
- shark[ʃɑ:k] 샤크 ■ shank[ʃæŋk] 생크 ■ fashion[fæʃən] 패션
- sheriff[ʃerɪf] 셰리프 ■ shopping[ʃɒpɪŋ] 쇼핑 ■ shoe[ʃu:] 슈
- shim[ʃɪm] 심 ■ marshmallow [mɑ:ʃmeləʊ] 머쉬멜로 → 마시멜로
- Rushmore [rʌʃmɔ:r] 러쉬모어(산) → 러시모어(산)
- Nova Scotia [nóʊvə-skóʊʃə] 노바스코샤 (반도) → 노바스코샤 (반도)

③ 어말 또는 자음 앞의 [ʒ]는 ‘지’로 적고, 모음 앞의 [ʒ]는 ‘쥬’으로 적는다.

- mirage[mɪrɑ:ʒ] 미라지 ■ vision[vɪʒən] 비전

제4항 파찰음([ts], [dz], [tʃ], [dʒ])

①어말 또는 자음 앞의 [ts], [dz]는 ‘츠’, ‘즈’로 적고, [tʃ], [dʒ]는 ‘치’, ‘지’로 적는다.

- Keats[ki:ts] 키츠 ■ odds[ɒdz] 오즈
- switch[swɪtʃ] 스위치 ■ bridge[bɪdʒ] 브리지
- Pittsburgh[pɪtsbɔ:g] 피츠버그 ■ hitchhike[hɪtʃhaɪk] 히치하이크
- Double Dutch[dʌbl dʌtʃ] 더블덜취 → 더블 더치

② 모음 앞의 [tʃ], [dʒ]는 ‘췌’, ‘췌’으로 적는다.

- chart[tʃɑ:t] 차트 ■ virgin[vɜ:dʒɪn] 버진

제5항 비음([m], [n], [ŋ])

①어말 또는 자음 앞의 비음은 모두 받침으로 적는다.

- steam[sti:m] 스팀 ■ corn[kɔ:n] 콘
- ring[rɪŋ] 링 ■ lamp[læmp] 램프
- hint[hɪnt] 힌트 ■ ink[ɪŋk] 잉크

② 모음과 모음 사이의 [ŋ]은 앞 음절의 받침 ‘ㅇ’으로 적는다.

■ hanging[hæŋɪŋ] 행잉

■ longing[lɒŋɪŋ] 롱잉

제6항 유음([l])

① 어말 또는 자음 앞의 [l]은 받침으로 적는다.

■ hotel[houtel] 호텔

■ pulp[pʌlp] 펄프

② 어중의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m], [n]) 앞에 올 때에는 ‘ㄹ’로 적는다. 다만, 비음([m], [n]) 뒤의 [l]은 모음 앞에 오더라도 ‘ㄴ’로 적는다.

■ slide[slaid] 슬라이드

■ film[filɪm] 필름

■ helm[helm] 헬름

■ swoln[swouln] 스월른

■ Hamlet[hæmlɪt] 햄릿

■ Henley[henli] 헨리

■ 타라라 → 탈라라

■ 크로바 → 클로버

■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 클리브랜드 → 클리블랜드

■ Talara 타라라 → 탈라라

■ clover[klɒvə(r)] 크로바 → 클로버

■ display[drɪsplɪ]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 Cleveland[kli:vlənd] 클리브랜드 → 클리블랜드

■ stapler[stæplə(r)] 스테플러 → 스테이플러

제7항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 team[ti : m] 팀

■ route[ru : t] 루트

■ beaker[bi:kə(r)] 비이커 → 비커

제8항 중모음([ai], [au], [ɛi], [ɔi], [ou], [auə])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ə]는 ‘아워’로 적는다.

■ time[taim] 타임

■ house[haus] 하우스

■ skate[skeɪt] 스케이트

■ oil[ɔɪl] 오일

■ boat[bout] 보트

■ tower[tauə] 타워

■ window [windoʊ] 윈도우 → 윈도

■ slow food[sloʊ fu:d] 슬로우 푸드 → 슬로푸드

제9항 반모음([w], [j])

①[w]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wə], [wɔ], [wou]는 ‘위’, [wa]는 ‘와’, [wæ]는 ‘왜’, [we]는 ‘웨’, [wi]는 ‘위’, [wu]는 ‘우’로 적는다.

- | | |
|---|--------------------|
| ■ word[wə : d] 워드 | ■ want[wɒnt] 원트 |
| ■ woe[wou] 위 | ■ wander[wandə] 완더 |
| ■ wag[wæg] 왜그 | ■ west[west] 웨스트 |
| ■ witch[wɪtʃ] 위치 | ■ wool[wul] 울 |
| ■ band-wagon[bændwægən] 밴드웨건 효과 → 밴드왜건 효과 | |

② 자음 뒤에 [w]가 올 때에는 두 음절로 갈라 적되, [gw], [hw], [kw]는 한 음절로 붙여 적는다.

- | | |
|------------------------|--|
| ■ swing[swɪŋ] 스윙 | ■ twist[twɪst] 트위스트 |
| ■ penguin[peŋɡwɪn] 펭귄 | ■ whistle[hwɪsl] 휘슬 |
| ■ quarter[kwɔ : tə] 쿼터 | ■ Sequoia[sɪkwɔɪə] 시콰이어 (국립공원) → 세쿼이아 (국립공원) |

③ 반모음 [j]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야’, ‘애’,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d], [l], [n] 다음에 [j]가 올 때에는 각각 ‘디어’, ‘리어’, ‘니어’로 적는다.

- | | |
|---|------------------------|
| ■ yard[jɑ : d] 야드 | ■ yank[jæŋk] 앵크 |
| ■ yearn[jə : n] 연 | ■ yellow[jeləu] 옐로 |
| ■ yawn[jɔ : n] 온 | ■ you[ju :] 유 |
| ■ year[jiə] 이어 | ■ Indian[ɪndjən] 인디언 |
| ■ battalion[bətəljən] 버탈리언 | ■ union[ju : njən] 유니언 |
| ■ Grand Canyon[grænd kænjən] 그랜드 캐년 → 그랜드 캐니언 | |

제10항 복합어

①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 | | |
|----------------------------|---------------------------|
| ■ cuplike[kʌplaɪk] 컵라이크 | ■ bookend[bukend] 북엔드 |
| ■ headlight[hedlaɪt] 헤드라이트 | ■ touchwood[tʌtʃwud] 터치우드 |

- sit-in[sitin] 샌응
- flashgun[flæʃgʌn] 플래시건
- bookmaker[bukmeikə] 북메이커
- topknot[tɒpnɒt] 톱낏

② 원어에서 띄어 쓴 말은 띄어 쓴 대로 한글 표기를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다.

- Los Alamos[los æləməʊs] 로스 앨러모스/로스앨러모스
- top class[tɒpk læs] 톱 클래스/톱클래스

제4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제1절 표기 원칙

제1항 외국의 인명, 지명의 표기는 제1장, 제2장, 제3장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제3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 지명은 원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Ankara 앙카라
- Gandhi 간디
- Königsberg 케니히스베르그 → 쵸니히스베르크
- Gogh 고흐 → 고히

제3항 원지음이 아닌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용을 따른다.

- Hague 헤이그
- Caesar 시저

제4항 고유 명사의 번역명이 통용되는 경우 관용을 따른다.

- Pacific Ocean 태평양
- Black Sea 흑해

제2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제1항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2항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 북경 → 베이징(北京)
- 황하 강 → 황허 강
- 스촨 자이언트 팬더 보호지역 → 쓰촨 자이언트 판다 보호 지역

제3항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 삿쵸르 → 삿포로
- 풍신수길 → 도요토미 히데요시

제4항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 | | | | |
|------|---------|------|---------|
| ■ 東京 | 도쿄, 동경 | ■ 京都 | 교토, 경도 |
| ■ 上海 | 상하이, 상해 | ■ 臺灣 | 타이완, 대만 |
| ■ 黃河 | 황허, 황하 | | |

제3절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칙

제1항 ‘해’, ‘섬’, ‘강’, ‘산’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에는 띄어 쓰고, 우리말에 붙을 때에는 붙여 쓴다.

- | | |
|---------|-------|
| ■ 카리브 해 | ■ 북해 |
| ■ 발리 섬 | ■ 목요섬 |

제2항 바다는 ‘해(海)’로 통일한다.

- | | | |
|------|--------|----------|
| ■ 홍해 | ■ 발트 해 | ■ 아라비아 해 |
|------|--------|----------|

제3항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섬은 모두 ‘섬’으로 통일한다.

- | |
|---------------------------|
| ■ 타이완 섬 |
| ■ 코르시카 섬 (우리나라: 제주도, 울릉도) |

제4항 한자 사용 지역(일본, 중국)의 지명이 하나의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 ‘강’, ‘산’, ‘호’, ‘섬’ 등은 겹쳐 적는다.

- | | |
|-------------|--------------|
| ■ 온타케 산(御岳) | ■ 주장 강(珠江) |
| ■ 도시마 섬(利島) | ■ 하야카와 강(早川) |
| ■ 위산 산(玉山) | |

제5항 지명이 산맥, 산, 강 등의 뜻이 들어 있는 것은 ‘산맥’, ‘산’, ‘강’ 등을 겹쳐 적는다.

- | | |
|----------------------|--------------------------|
| ■ Rio Grande 리오그란데 강 | ■ Monte Rosa 몬테로사 산 |
| ■ Mont Blanc 몽블랑 산 | ■ Sierra Madre 시에라마드레 산맥 |

1.6. 국어의 로마자 표기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① 단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a	eo	o	u	eu	i	ae	e	oe	wi

② 이중 모음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붙임 1] ‘ㅩ’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 광희문 Gwanghuimun

[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①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ㅍ	ㅂ	ㅃ
g, k	kk	k	d, t	tt	t	b, p	pp	p

② 파찰음

ㅈ	ㅉ	ㅊ
j	jj	ch

③ 마찰음

ㅅ	ㅆ	ㅎ
s	ss	h

④ 비음

ㄴ	ㅁ	ㅇ
n	m	ng

⑤ 유음

ㄹ
r, l

[붙임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 | | |
|-----------------|-------------------|
| ■ 구미 Gumi | ■ 영동 Yeongdong |
| ■ 옥천 Okcheon | ■ 백암 Baegam |
| ■ 함덕 Hapdeok | ■ 호법 Hobeop |
| ■ 월곶[월곶] Wolgot | ■ 벚꽃[번곶] beotkkot |

[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 | | |
|--------------|--------------------------|
| ■ 구리 Guri | ■ 설악 Seorak |
| ■ 칠곡 Chilgok | ■ 임실 Imsil |
| ■ 울릉 Ulleung | ■ 대관령[대괄령] Daegwallyeong |

※ 고유어 음식 이름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적는다.

- dashik → Dasik
- hwajeon → Hwajeon
- songpyeon → Songpyeon
- gimchi → Gimchi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①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 | | |
|-------------------|----------------------|
| ■ 백마[뽕마] Baengma | ■ 신문로[신문노] Sinmunno |
| ■ 종로[종노] Jongno | ■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
| ■ 별내[별래] Byeollae | ■ 신라[실라] Silla |

② ‘ㄴ, ㄹ’이 덧나는 경우

- | | |
|-----------------------|-----------------|
| ■ 학여울[향녀울] Hangnyeoul | ■ 알약[알략] allyak |
|-----------------------|-----------------|

③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 해돋이[해도지] haedoji
- 맞히다[마치다] machida

- 같이[가치] gachi

④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 종고[조코] joko
- 잡혀[자펴] japyeo

- 놓다[노타] nota
- 낱지[나치] nachi

※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 목호 Mukho
- 집현전 Jiphyeonjeon

[붙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압구정 Apgujeong
- 죽변 Jukbyeon
- 합정 Hapjeong
- 샛별 saetbyeol

- 낙동강 Nakdonggang
- 낙성대 Nakseongdae
- 팔당 Paldang
- 울산 Ulsan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중앙 Jung-ang
- 세운 Se-un
- 반구대 Ban-gudae
- 해운대 Hae-undae

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 부산 Busan
- 세종 Sejong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안의 표기를 허용함.)

- 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
-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①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 홍빛나 Hong Bitna (Hong Bit-na)

②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불임표(-)를 넣는다. 불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 | |
|-----------------------------|-----------------------------|
| ■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 ■ 양주군 Yangju-gun |
| ■ 제주도 Jeju-do | ■ 의정부시 Uijeongbu-si |
| ■ 도봉구 Dobong-gu | ■ 신창읍 Sinchang-eup |
| ■ 삼죽면 Samjuk-myeon | ■ 인왕리 Inwang-ri |
| ■ 종로 2가 Jongno 2(i)-ga | ■ 당산동 Dangsan-dong |
| ■ 봉천1동 Bongcheon 1(il)-dong | ■ 퇴계로 3가 Toegyero 3(sam)-ga |

[불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 | | |
|----------------|-----------------|
| ■ 청주시 Cheongju | ■ 함평군 Hampyeong |
| ■ 순창읍 Sunchang | |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불임표(-) 없이 붙여 쓴다.

- | | |
|---------------------|-----------------------|
| ■ 남산 Namsan | ■ 속리산 Songnisan |
| ■ 금강 Geumgang | ■ 독도 Dokdo |
| ■ 경복궁 Gyeongbokgung | ■ 무량수전 Muryangsujeon |
| ■ 연화교 Yeonhwagyo | ■ 극락전 Geungnakjeon |
| ■ 안압지 Anapji | ■ 남한산성 Namhansanseong |
| ■ 화랑대 Hwarangdae | ■ 불국사 Bulguksa |
| ■ 현충사 Hyeonchungsa | ■ 축석루 Chokseongnu |
| ■ 독립문 Dongnimmun | ■ 다보탑 Dabotap |
| ■ 오죽헌 Ojukheon | ■ 종묘 Jongmyo |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불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불임표(-)를 쓴다.

- | | |
|-----------------|----------------------------|
| ■ 집 jib | ■ 쥘 jip |
| ■ 밖 bakk | ■ 값 gabs |
| ■ 붓꽃 buskkoch | ■ 먹는 meogneun |
| ■ 독립 doglib | ■ 문리 munli |
| ■ 물엿 mul-yeos | ■ 굳이 gud-i |
| ■ 좋다 johda | ■ 가곡 gagog |
| ■ 조랑말 jolangmal | ■ 없었습니다 eobs-eoss-seubnida |

1.7 표기 기타

1) 원어를 표시해야 하는 외래어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원어를 표시해야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외래어나 동음이의어가 있어서 의미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한자를 확인해야 하는 한자어들은 그 원어를 표시해 주는 것이 좋다.

- 키, 몸무게, 길이와 같이 하나의 실수로 나타낼 수 있는 양을 스칼라라고 한다.
→ 키, 몸무게, 길이와 같이 하나의 실수로 나타낼 수 있는 양을 ‘스칼라(scalar)’라고 한다.
- 교사를 늘리기로 했다. → 교사(校舍)를 늘리기로 했다.

2) 표현의 일관성

같은 의미를 나타내거나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용어는 한 교과서 안에서 일관성 있게 하나의 용어로 통일해야 한다.

- (앞부분)공을……, (뒷부분)구를……
→ 전체 단어 표현을 한 가지로 일관성 있게 통일할 것.

3) 문단 들여쓰기

문단을 시작할 때에는 첫째 줄을 들여쓰기 해야 한다.

2 표현 사례

표현 사례 체계	
문 장	1. 부적절한 호응 (1)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문제 (2)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문제 (3)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호응 문제
	2. 부적절한 어순
	3. 부적절한 높임
	4. 부적절한 시제
	5. 부적절한 사동
	6. 부적절한 피동
	7. 부적절한 접속
	8. 부적절한 조사
	9. 부적절한 어미
	10. 부적절한 생략
	11. 장황한 표현
	12. 부자연스러운 표현
어 휘	1. 외래어 오남용
	2. 번역 투
	3. 부적절한 어휘

2.1. 문장

1) 부적절한 호응

(1)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문제

주어와 술어의 부적절한 호응은 국어 문장에서 빈번하게 발견된다.

‘비사치기를 하는 방법은 일정한 거리에 선을 그은 뒤에 그 선 위에 네모진 돌을 비석처럼 세워 두고 자신의 말로 상대방의 말을 쓰러뜨려야 합니다.’

호응하는 성분끼리는 가급적 가까이 있어야 문장의 의미가 정확하다. 하지만 주어와 술어는 각각 문장의 앞과 뒤에서 실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간 다른 성분들에 이끌려 서로 호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주어와 술어만을 따로 연결해 보아 그 의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위의 문장은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다.

‘비사치기는 일정한 거리에 선을 그은 뒤에 그 선 위에 네모진 돌을 비석처럼 세워 두고 자신의 말로 상대방의 말을 쓰러뜨리는 놀이입니다.’

■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서로를 도와 가며 정답게 살아왔습니다.

→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서로를 도와 가며 정답게 살아왔습니다.

■ 말의 빠르기, 높낮이, 강약 등과 같은 인물의 말투는 말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 말의 빠르기, 높낮이, 강약 등과 같은 말투는 말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돕습니다.

■ 백일홍은 줄기가 곧게 자라고, 높이는 1미터쯤 자라요.

→ 백일홍의 줄기는 곧게 자라고 그 높이는 1미터쯤 되어요.

■ 초가지붕은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열을 막고, 겨울에는 효율적으로 열을 가두는 아주 실용적인 집이 있습니다.

→ 초가지붕은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열을 막고, 겨울에는 효율적으로 열을 가둡니다.

(2)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문제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살펴볼 때에는 서술어가 목적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여러 개의 목적어가 나타나는 경우 짝이 되는 서술어와의 의미 관계가 명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양이가 아이와 똑같은 몸짓과 표정을 하는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하여 봅시다. → 몸짓을 하고 표정을 짓는

또한 목적어와 의미상 정확하게 호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명한 서술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휴대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휴대 수하물에 대한 규정을 한다. → 적용한다.

이 외에도 목적어와 술어의 연결이 전체 문장의 내용에 비추어 어색하지 않은지 살펴도록 한다.

■ 또한 여가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 센터와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도록 돕는 공공 기관도 있습니다.

→ 또한 여가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 센터와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공공 기관도 있습니다.

■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쓴 일기에는 그 사람이나 물건을 제목으로 붙일 수도 있어.

→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쓴 일기에는 그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일 수도 있어.

■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져야 할 가족 사랑과 예절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가족 사랑과 예절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3)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호응 문제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호응 문제는 관형어(또는 관형절)와 부사어(또는 부사절)가 문장 내에서 의미적으로나 문법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글과 그림을 나타내어 봅시다.
→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위 문장에서 ‘생각이나 느낌’을 ‘-으로 나타내다’로 호응해야 하는데, ‘-으로’에 해당하는 문성 성분의 조사가 ‘을’로 되어 호응 관계가 맞지 않는다.

■ 베트남 어린이들은 설에 우리나라처럼 세뱃돈을 받는데 행운과 부를 상징하는 붉은색 봉투에 받습니다.

→ 베트남 어린이들은 설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처럼 세뱃돈을 받는데 행운과 부를 상징하는 붉은색 봉투에 받습니다.

■ 그는 국제 육상 대회 결승에 연속 진출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 그는 국제 육상 대회 결승에 연속으로 진출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 그러나 현대 사회는 환경의 오염으로 각종 공해를 일으켜 우리의 건강 생활을 해치고 있다.

→ 그러나 현대 사회는 환경의 오염으로 각종 공해가 발생해 우리의 건강 생활을 해치고 있다.

※ 이와 같이 관형어나 부사어의 의미 호응 문제도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호응 문제’이다.

2) 부적절한 어순

우리말은 어순 배열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어순이 부적절하면 문장의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필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 (1) 상황에 따라 예사말과 높임말이 바르게 사용되었는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 예사말과 높임말이 상황에 맞게
- (2) 교실에서 나의 위치를 분단과 줄을 이용하여 표현하면 다른 사람이 쉽게 정확한 나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 → 정확한 나의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의미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서는 위의 (1)에서와 같이 주어와 술어가 문장(또는 그 성분이 속한 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각각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부사어(절)와 같은 수식어는 가능한 한 피수식어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 모두 친구들이 과는 사람 역할을 모두 해 볼 때까지 놀이를 계속합니다.

→ 모두 친구들이 모두 과는 사람 역할을 해 볼 때까지 놀이를 계속합니다.

■ 가장 기본적인 시 읽기의 즐거움은 바로 언어가 주는 즐거움이다.

→ 시 읽기의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은 바로 언어가 주는 즐거움이다.

■ 놀이터에는 체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 놀이터에는 체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 이번 주말에 하고 싶은 일을 연필을 바르게 잡고 바른 자세로 앉아 써 봅시다.
→ 연필을 바르게 잡고 바른 자세로 앉아, 이번 주말에 하고 싶은 일을 써 봅시다.

- 동글이는 예쁜 나의 친구입니다.
→ 동글이는 나의 예쁜 친구입니다.

※ 위와 같이 어순의 문제로 중의문이 되기도 한다. 중의적 표현은 대부분 어순 조정이나 문장 부호의 사용으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범주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부적절한 어순’의 문제로 처리한다.

3) 부적절한 높임

높임 표현은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경우,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경우, 그리고 인용 구문에서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선생님께서 아프시다. → 편찮으시다.

선생님이 너 오시래. → 선생님께서 너 오라셔.

높임 표현을 살필 때에는 주변 상황이나 인물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어미 ‘-시’, 조사 ‘-께서’, 존대 어휘 등이 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설명 형식의 문어체 문장을 주로 사용하는 교과서에서는 높임 표현의 오류가 다른 범주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다.

- 커피값은 오천 원이세요/이십니다.
→ 커피값은 오천 원이예요.
- 어떤 분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실까요?
→ 어떤 분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실까요?

4) 부적절한 시제

시제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해당 명제들 간의 시간 관계를 살핀 뒤, 서술어로 쓰인 용언이 동사인지 형용사 인지를 짚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조 용언의 경우 함께 쓰인 본용언의 품사에 따라 실현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오늘날에는 이 제품을 쓰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 → 않는

이 밖에도 동일한 사건에 대해 진술할 때에는 시제의 일관성이 지켜져야 하며 일반적인 진술을 할 때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 옛날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생각하여 봅시다.
→ 옛날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었는지 생각하여 봅시다.

■ 정월 대보름날 밤에 하던 놀이로, 이날 다리를 밟으면 일 년간 다릿병을 앓지 않았다고 하여 많이 함.

→ 정월 대보름날 밤에 하던 놀이로, 이날 다리를 밟으면 일 년간 다릿병을 앓지 않는다고 하여 많이 함.

■ 여러 방향으로 몸을 빠르게 움직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운동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여러 방향으로 몸을 빠르게 움직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운동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5) 부적절한 사동

주체가 제3의 대상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사동’이라고 한다. 사동문은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과 ‘시키다’ 및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이 있다.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시키다’ 사동문의 오류가 많이 발견된다.

남자들이 머무는 곳으로, 손님을 맞이하거나 자녀들을 교육시켰던 곳입니다. → 교육했던

교과서에서 발견되는 사동 표현의 오류는 과도한 사동 표현 사용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동 표현을 수정할 때에는 서술어를 주동사(또는 형용사나 피동사 등)로 바꾸면서 그에 따른 문장 구조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금지의 말, 도움을 요청하는 말,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을 듣고 말할 수 있다.

→ 금지의 말, 도움을 요청하는 말, 주의를 환기하는 말을 듣고 말할 수 있다.

■ 자신의 현재 체력 수준을 알고 부족한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 자신의 현재 체력 수준을 알고 부족한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인천과 경기도로 인구가 분산되면서 서울의 통근권과 상권을 확대시켰다.

→ 인천과 경기도로 인구가 분산되면서 서울의 통근권과 상권이 확대되었다.

■ ‘○○하다’가 타동사인 경우 ‘○○시키다’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직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에서 꼭 확인해야 한다.

6) 부적절한 피동

주체의 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피동이라 한다. 피동문에는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과 ‘-어지다’에 의한 피동문, 그리고 ‘되다, 받다, 당하다’ 등에 의한 피동문이 있다. 교과서에서는 불필요한 피동 표현과 이중 피동에 관한 오류가 많이 발견된다.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보인다.

완전히 왕권이 확립되어진 시기는 아니었다. → 확립된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수정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문장 구조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민들레는 무엇에 빗대어 표현되고 있는지 말해 보자.
→ 민들레를 무엇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 오늘날의 생활 도구 중에는 옛날의 생활 도구의 좋은 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 오늘날의 생활 도구 중에는 옛날(의) 생활 도구의 좋은 점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 자신의 선택이 자랑스럽게 생각되나요?
→ 자신의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나요?

- 이처럼 전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효과적인 메모가 될 수 있다.
→ 이처럼 전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효과적으로 메모를 할 수 있다.

- 또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침해되게 되어 불행하게 될 것이다.
→ 또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침해되어 사람들은 불행해질 것이다.

- 바다로 나뉘어져 있는 마을을 이어 주는 갯배
→ 바다로 나뉜 마을을 이어 주는 갯배

7) 부적절한 접속

문장 접속에서 중요한 것은 연결되는 문장들의 논리적인 관계이다. 앞뒤 문장의 관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적절한 접속 부사나 어미를 사용해야 한다.

대등 접속의 경우는 앞뒤 문장이 문법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대등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종속 접속의 경우는 원인과 결과, 시간의 순서, 가정과 추측 등 구문의 호응이 알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행복 마을을 갖기 위한 방법과 도덕 공부의 방법을 비교하면서 그 내용을 공부해 봅시다. → 도덕 공부를 하는 방법

이 외에 문장과 문장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접속 부사를 수정하는 경우도 '부적절한 접속'으로 분류한다.

- 책 읽기, 텔레비전, 영화와 같은 것을 통해 모범적인 행동이나 생활 모습을 본받고자 노력합니다.
→ 책, 텔레비전, 영화와 같은 것을 통해 모범적인 행동이나 생활 모습을 본받고자 노력합니다.

- 동물 마을의 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의 의견이 가장 좋은지 친구들과 이야기하여 봅시다.
→ 동물 마을의 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하여 봅시다.

- 고장의 높은 곳과 낮은 곳, 물이 흐르는 모습과 건물의 위치, 도로와 마을이 자리 잡은 곳 등
→ 고장의 높은 곳과 낮은 곳, 물이 흐르는 모습, 건물과 도로의 위치, 마을이 자리 잡은 곳 등

8) 부적절한 조사

조사와 관련된 표현 오류는 주로 ‘에’와 ‘의’의 혼동, 인용 조사의 혼동, 과도한 조사의 생략에 관한 것들이 많다.

그중에 3/4 이상은 남극과 북극 주위에 언 상태로 있다. → 그중의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외에도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으나 문장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조사가 있다면 수정하는 것이 좋다.

- 말판에 제시한 내용대로 하지 못하면 말을 뒤로 한 칸 옮깁니다.

→ 말판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하지 못하면 말을 뒤로 한 칸 옮깁니다.

- 그중에 한 가지를 정하여 사랑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실천해 봅시다.

→ 그중의(또는 그중에서) 한 가지를 정하여 사랑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실천해 봅시다.

-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글과 그림을 나타내어 봅시다.

→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 위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조사 부분을 수정하였지만 ‘부적절한 호응’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부적절한 조사’의 문제는 ‘호응’의 문제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표현 조사의 편의상 이 두 가지 범주를 모두 설정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적절한 조사’의 범위를 좁게 보는 태도를 취하도록 한다. 즉 위와 같이 성분의 호응 문제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적인 조사의 의미상 오류나 인용 조사의 오류, 조사의 과도한 생략, 불필요한 조사 사용 등의 경우만을 ‘부적절한 조사’의 범주로 분류한다.

9) 부적절한 어미

어미 사용의 문제는 종결 어미, 전성 어미, 연결 어미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연결 어미는 ‘부적절한 접속’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접속을 고려하여 수정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어미의 수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부적절한 접속’의 문제로 다룬다.

글쓰기의 경험과 나의 경험을 비교하여 글을 읽습니다. → 비교하며

※ ‘부적절한 접속’

교과서 문장에서 자주 지적되는 어미 문제는 아래와 같이 어법상 잘못된 종결 어미가 사용되거나 부적절한 전성 어미가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사례를 적어 보자. → 위해 노력한 사례를

■ 건강해라. 너랑 더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

→ 건강하게 지내라. 너랑 더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

■ 그리고 부탁하는 내용에 알맞지 않는 까닭도 보이는데 고칠 부분을 같이 찾아보세요.

→ 그리고 부탁하는 내용에 알맞지 않은 까닭도 보이는데 고칠 부분을 같이 찾아보세요.

■ 외모가 매력적인 모델이 호감을 이끌어 낼 확률이 높음 역시 이론의 여지가 없다.

→ 외모가 매력적인 모델이 호감을 이끌어 낼 확률이 높은 것 역시 이론의 여지가 없다.

■ (1) 오늘날 이 제품을 쓰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

→ 오늘날 이 제품을 쓰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2) 돼지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후각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 돼지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후각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 ‘부적절한 어미’는 높임이나 시제, 피·사동 등과 같은 다른 오류 범주와 겹치는 면이 있지만 표현 조사 및 교정 지시의 편의를 위하여 그 범주를 따로 설정하였다. 대신 높임이나 시제 및 피·사동의 문제 등으로 보기 애매한 경우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생각하도록 한다. 즉 (1)은 결과적으로는 어미를 수정하였지만 ‘시제’를 고려한 것이므로 ‘부적절한 시제’로 분류하되, (2)는 시제를 고려하여 표현을 수정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절한 어미’로 분류한다. 양쪽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감수자의 판단에 따라 어느 쪽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10) 부적절한 생략

문장 내에서 필자와 독자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나 맥락상 복원이 가능한 정보(또는 성분)들은 생략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정보의 과도한 생략으로 문장의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문장의 구조가 문법적으로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교과서에서는 정확한 의미의 전달을 위해 가능한 한 필요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주변 인물을 면담하고 목적에 맞게 정리할 수 있는가? → 주변 인물을 면담하고 면담 결과를 목적에 맞게 정리할 수 있는가?

이 외에도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과도한 생략으로 인해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면 가급적 정보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맞장구치는 말을 자주 하면 말하는 사람이 더 잘 말할 수 있고, 사이가 더 좋아집니다.

→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맞장구치는 말을 자주 하면, 말하는 사람이 더 잘 말할 수 있고, 두 사람 사이가 더욱 좋아집니다.

■ 인구 집중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 인구 집중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 전 세계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 여러 지역의 사람들은 주변의 자연환경에 적응하기도 하고 적절히 이용하기도 하면서 촌락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 여러 지역의 사람들은 주변의 자연환경에 적응하기도 하고 또 자연환경을 적절히 이용하기도 하면서 촌락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 글의 목적과 형식에 따른 글쓰기를 연습하여 활용한다.

→ 글의 목적과 형식에 따른 글쓰기를 연습하여 실제 작문에 활용한다.

■ ‘민국이네 반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어떤 내용을 옮겨 적어야 할지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그어 봅시다.

→ ‘민국이네 반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어떤 내용을 옮겨 적어야 할지 생각하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그어 봅시다.

■ 이야기를 들을 때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며 들으면 훨씬 재미있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 이야기를 들을 때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며 들으면, 이야기가 훨씬 재미있고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 (1) 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의견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 단체는…….
→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실현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 단체는…….

(2) 재담은 익살과 재치를 재미있는 말로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이다.
→ 재담은 익살과 재치를 부리며 재미있는 말로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이다.

※ (1)은 ‘부적절한 호응’에 속하고 (2)는 ‘부적절한 생략’에 속한다. (1)은 목적어와 서술어의 의미상 호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며, (2)는 해당하는 서술어가 아예 실현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11) 장황한 표현

문장이 장황하면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논리적으로 불필요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동일한 성분이나 정보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간결하게 정리하여 의미 전달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글의 내용을 생각하며 글을 바르게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 글의 내용을 생각하며 바르게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우리도 빨래 건조하는 건조기 사요.
→ 우리도 빨래 건조기 사요.

이 외에 문장이 너무 길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은 둘 이상의 문장으로 나누어야 하는 경우도 ‘장황한 표현’의 문제이다.

■ 세계 곡물의 1/4을 생산하는 미국의 농업은 이 평야를 중심으로 농업이 이루어진다.

→ 세계 곡물의 1/4을 생산하는 미국의 농업은 이 평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청소년이 각종 캠페인에 참여한다거나 시정 활동에 참여하거나 공공 기관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나면 쿠폰을 주는 것입니다.

→ 청소년이 각종 캠페인이나 시정 활동에 참여하고, 공공 기관에서 봉사 활동을 하면 쿠폰을 주는 것입니다.

■ 짜과 관광지의 위치에 따른 가타카나 표기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 관광지의 가타카나 표기가 올바른지 짜과 함께 확인합니다.

■ 나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 나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12) 부자연스러운 표현

■ 고조선의 문화 범위는 어디까지였을까?

→ 고조선의 문화는 어디까지 분포할까?(또는 ‘고조선의 문화는 어디까지 퍼져 나갔을까?’)

■ 의천이 11살이 되던 어느 날, 문종이 왕자들을 불러 물었다.

→ 의천이 열한 살이 되던 어느 날, 문종이 왕자들을 불러 물었다.

■ 수학 교과서에 나타난 특별한 내용 제시 방식으로는 다음 4가지를 들 수 있다.

→ 수학 교과서에서 채택하는 특별한 내용 제시 방식으로는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 내일은 날씨가 맑겠으나…….

2.2. 어휘

1) 외래어 오남용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를 말한다. ‘버스, 컴퓨터, 피아노’ 등과 같이 이미 국어의 체계 속에서 자리를 잡아 따로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이 없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이 있음에도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말로 바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내자. → 선생님께 전자 우편을 보내자.

■ 지역 소개 팸플릿

→ 지역 소개 소책자

■ 따라서 인터넷으로 만들어진 사이버 공간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공간에서처럼 바르게 행동하고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 따라서 인터넷으로 만들어진 가상 공간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공간에서처럼 바르게 행동하고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 그림의 메뉴판에 토머스가 좋아하는 음식은 O표, 싫어하는 음식은 X표 해 봅시다.

→ 그림의 차림표에서 토머스가 좋아하는 음식에는 O표, 싫어하는 음식에는 X표 해 봅시다.

2) 번역 투

외국의 글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말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나 문장 구조까지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체를 ‘번역 투’라고 하는데 교과서 문장에서는 ‘about’이나 ‘have’, 수동 표현, 물주 구문 등의 영어 구문 번역 투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작가에 의해 창조된 인물이다. → 작가가 창조한 인물이다.

우리 선생님은 좋은 목소리를 가졌다. → 우리 선생님은 목소리가 좋다.

■ 친구들이 갖고 있는 다른 점 중에서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는 글을 써 봅시다.

→ 친구들이 지닌 나와 다른 점 중에서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는 글을 써 봅시다.

■ 프랑스 남부 해안에 위치한 …….

→ 프랑스 남부 해안에 있는 …….

■ 그러나 오늘날에는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오늘날에는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성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부적절한 어휘

잘못된 어휘를 사용한 경우,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한 경우, 부정확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 맥락상 어색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에는 정보 전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위해 좀 더 쉽고 정확한 어휘로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

세계 인구는 산업 혁명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다. → 증가하였다.

친구들이 잘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하었나요? → 읽었나요?

이 외에도 오류로 볼 수는 없으나 필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휘가 있다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 사전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교과서에서는 비어, 속어, 은어, 유행어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을 피하기 위해 공이 있는 곳으로 몸의 방향을 바꾸어 봅시다.

→ 공을 피하기 위해 공이 있는 쪽으로 몸의 방향을 바꾸어 봅시다.

- 세계적으로 눈이 많이 분포하는 곳은 겨울 기온이 낮은 냉대와 한대 기후 지역이다.
→ 세계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은 겨울 기온이 낮은 냉대와 한대 기후 지역이다.
- 학교에 도착하자 수진이는 짝이었던 심술쟁이 종수를 아는 체도 하지 않습니다.
→ 학교에 도착하자 수진이는 짝이었던 심술쟁이 종수를 알은체도 하지 않습니다.
- 민들레씨의 얕은 실 끝에는 털이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 민들레씨의 가는 실 끝에는 털이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3 사전 이용 방법

- 사전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www.korean.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3.1. 표준어

- 1) 어떤 말이 표준어인지 아닌지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해당 어휘가 표준어가 아닐 경우 ‘→’ 표시를 하고 표준어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 알아-맞추다 「동」→ 알아맞히다

■ -라구⁰¹ 「어미」→ -라고⁰³

- 2) ‘옛말’, ‘방언’, ‘북한어’의 표지가 있는 표제어는 비표준어이다.

■ -세라 「어미」 『옛말』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구나. 『데 내 은 닛 량을 떠디워 두세
란』《번박 상:34》

■ 부루⁰³

「명사」

「1」 『방언』 ‘상추01’의 방언(강원, 경기, 경북, 제주, 충청).

「2」 『북한어』 『식물』 ‘상추01’의 북한어.

「3」 『옛말』 ‘상추01’의 옛말.

3.2. 띄어쓰기

- 1)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일반어(전문어, 고유 명사 제외)는 한 단어이다. 따라서 사전에 있으면 붙여 쓰고 없으면 띄어 쓴다.

■ 가슴-속 「명사」 = 마음속. 『(가슴속) 깊이 간직한 추억/(가슴속을) 내보이다/그는 일기장을
펼치고 {가슴속에서} 우리나라오는 대로 적었다.

→ ‘마음속’의 의미일 때 ‘가슴속’은 한 단어이지만 단순히 ‘가슴의 안쪽 공간’을 의미하는 ‘가
슴 속에 돌이라도 걸린 듯 속이 거북하다’와 같은 경우에는 ‘가슴 속’으로 띄어 쓴다.

- 2) ‘접사’와 결합한 말이 사전에 표제어로 수록되지 않았더라도 접사를 앞뒤의 말(어기)과 띄어 쓰지 않는다.

■ -질¹¹ 「접사」 「1」(도구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가위질}/{걸레질}/{망치질}/{부채질}. ~

→ 따라서 사전에는 없지만 ‘빗자루를 가지고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은 ‘빗자루질’로 붙여 쓴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표제어는 없지만 띄어 쓰지 않는다.

■ 감⁰³ 「명사」 ~「2」(옷을 뜻하는 명사 뒤에 붙어) ‘옷을 만드는 재료’의 뜻을 나타내는 말. ﴿한복감}/{양복감}.

→ 따라서 사전에는 없지만 ‘바지를 만드는 재료’의 의미를 가진 말은 ‘바짓감’으로 쓴다.

4) 전문 용어나 고유 명사 중에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어휘의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 부분에 “^” 표시가 되어 있다.

■ 성격^묘사(性格描寫) 『문학』 문예 작품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을 그려 내는 일.

→ ‘성격 묘사’와 ‘성격묘사’가 모두 가능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원칙에 따라 ‘성격 묘사’를 선택한다.

5) 다만 관습적으로 굳어진 경우는 ‘허용’을 인정하여 붙여 쓰는 것으로 통일하는 경우도 있다.

■ 대한 중학교(원칙)/대한중학교(허용) ⇨ 융통성 있게 적용 가능

■ 꺼져 간다(원칙)/꺼져간다(허용) ⇨ 교과서에서는 원칙 적용

■ 1446 년 10 월 9 일(원칙)/1446년 10월 9일(허용)

⇨ 교과서에서는 허용에 따름

3.3.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

1)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표제어의 표기와 활용 정보를 근거로 한글의 표기를 결정한다.

■ 눈-곱 「명」 「1」 눈에서 나오는 진득진득한 액. 또는 그것이 말라붙은 것. ㄴᆞᆫᆫ01 [3] ‘안지06(眼脂). ﴿눈곱이》 끼다/{눈곱을} 떼다/세수하면서 {눈곱을} 닦다.§ 「2」 아주 적거나 작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는 이 집에 {눈곱만큼의} 미련도 없다.

■ -을게 「어미」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에 붙어))(구어체로)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그 사람은 내가 {말을게}/{남은 밤은 내가 {먹을게}.

→ ‘[눈꼽]’과 ‘[을께]’로 소리 나더라도 사전의 표기에 따라 ‘눈곱’, ‘을게’로 적는다.

■ 가냘프다[가냘파, 가냘프니] 「형용사」 「1」 몸이나 팔다리 따위가 몹시 가늘고 연약하다. ﴿가냘픈〉 허리 ~

■ 퍼렇다[퍼레, 퍼러니, 퍼렇소] 「형용사」 「1」 다소 탁하고 어둡게 푸르다. ~
→ 위의 활용 정보를 근거로 ‘가냘퍼’가 아니라 ‘가냘파’가 옳고, ‘퍼레’가 아니라 ‘퍼레’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외래어의 표기 또한 사전 표제어의 표기를 통해 판단한다. 그리고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외래어 표기법 용례 찾기 사이트를 확인해 보고 판단한다.

■ 포일(foil) 「명사」 금, 알루미늄 따위의 금속을 종이같이 얇게 편 것. 특히 요리나 포장에 쓰는 알루미늄박을 이른다.

■ 뉴턴(Newton, Sir Isaac) 「명사」 『인명』 영국의 물리학자·천문학자·수학자(1642~1727)
→ 흔히 ‘호일’, ‘뉴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포일’, ‘뉴턴’이 옳은 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4. 순화어

어떠한 용어를 대체할 순화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다듬은 말(순화어) 찾기 사이트(<http://www.korean.go.kr/sunhwa>)를 이용하면 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2003년)과 2004년부터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통해 순화한 말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2004년 7월 이후 누리꾼들과 함께 다듬은 말들은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https://malteo.korean.go.kr/>) - 이렇게 바뀌었어요 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순화 대상어(다듬을 말)	순화어(다듬은 말)
갈라쇼	뒤폴이공연
내비게이션	길도우미, 길안내기
더치페이	각자내기
레시피	조리법
로고송	상징노래
롤 모델	본보기상, 본보기
리플	댓글
마일리지	이용 실적 점수
메신저	쪽지창
멘토	인생길잡이
무빙워크	자동길
바우처	상품권, 이용권
발레파킹	대리주차
보이스 피싱	사기전화
브레인스토밍	난상 토론, 발상 모으기

브이오디(VOD) 서비스	다시보기 (서비스)
스마트워크	원격근무
스크린 도어	안전문
오디오 북	소리책, 듣는책
오프라인	현실공간
워터 파크	물놀이 공원
유시시(UCC)	손수제작물, 손수저작물
이모티콘	그림말
캠프 파이어	모닥불놀이
컬러링	멋울림
큐아르(QR) 코드	정보무늬
팁	도움말, 봉사료
파트너십	동반 관계
팝업창	알림창
패키지 상품	꾸러미 상품, 기획 상품
포스트잇	붙임쪽지
하이브리드카	복합동력차
하이파이프	손뽕맞장구
할리우드 액션	눈속임짓
핸드 프린팅	기념손찍기
홈페이지	누리집

편수자료 1

▣ 연구진

윤현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곽영순(한국교육과정평가원)
권점례(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명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진용(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안종욱(한국교육과정평가원)
양윤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유창완(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윤지훈(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용백(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은경(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근주(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검토위원

김희진(국어생활연구원장)	구지민(국립국어원)
김대원(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	강순나(교육부 장학관)
송낙현(교육부 교육연구사)	주정훈(교육부 교육연구사)
백현일(교육부 교육연구사)	이상엽(교육부 교육연구사)

▣ 기획·편집위원

박제윤(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김대원(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
강순나(교육부 장학관)	이지은(교육부 교육연구사)

교과서 편수 자료 (I)

- 편수 일반 편 -

발 행 일	2015년 12월
저 작 권 자	교육부

인	쇄	신 영 문 화
Tel. 02-2278-5654		

※ 본 자료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